



8

주 체 87 (1998)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7(1998)년 제 8 호

(루계 제 610 호)



## ◆◆◆◆◆◆◆◆◆◆ 차 례 ◆◆◆◆◆◆◆◆◆◆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만고에 빛나는 혁명업적을 더 잘 그리자 .....	4
타오르라 성강의 봉화여 .....	6
성강의 숨결 .....	6
새벽의 꽃 .....	7
찬물 한고뿌로 .....	8
장령들 .....	9
더 아름다와지자 .....	9
더 높이 날으자 대고조의 천리마여 .....	10
나를 부른다 .....	10
고향 .....	11
길이 빛나라 강행군의 6 천리여 .....	12
위대한 혼연일체의 숭고한 화폭 .....	22
나의 아버지는 7 보충수였네 .....	23
금수산기념궁전의 립상홀에 깃든 불멸할 충정의 이야기 .....	24
향도의 자욱을 따라 6 천리 .....	26

바람아 뗏으라 .....	28
머은령에서 다시 만난 사람 .....	29
명산의 근본 .....	44
장군님과 길가집 할머니(외 1 편) .....	46
어머니의 마음 .....	47
성강의 구내길이어 .....	57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사상을 적극 구현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중요과업 ...	58
영원한 메아리 .....	61
보통날의 하루 .....	62
흰머리수건 .....	70
병사시초 .....	78
자기 문답 .....	79
뜨거운 8 월(외 1 편) .....	79

##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만고에 빛나는 혁명업적을 더 잘 그리자

지금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령도하시어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해방을 이룩하신 력사적인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문학형상으로 더욱 빛내일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 우리 작가들이 해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다지는 결의이지만 이해에 다지는 우리의 결의는 더욱 의의있고 굳센것이다.

오늘 우리는 력사에 류례없는 강행군을 다그치고 있다. 오늘의 강행군은 제국주의고립압살책동과 경제적난관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준엄한 행군이다. 한결음도 물러설수 없는 이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우리의 승리를 확고하게 담보해주는 위력한 무기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의 위대성이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강행군을 신념의 행군, 의지의 행군으로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으며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기 위한 명작창작강행군에 기세준جه 박차를 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기수로서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 잘 그리는데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며 명실공히 우리 문학을 수령업적고수의 문학으로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도이기도 하다.

당사상전선의 전초병들인 우리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영원한 동행자로서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 잘 그리는데 자기의 창작적열정과 지혜를 깡그리 바쳐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만고에 빛나는 혁명업적은 그 내용의 폭과 깊이, 그가 가지는 의의에 있어서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할수 없을만큼 방대하고도 위대하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시여 주체시대, 자

주시대의 찬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수령님.

인류가 알지 못하는 걸출한 사상리론가,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위대한 정치, 위대한 전략, 위대한 령도예술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님.

정녕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사로운 손길아래 이 땅위에 조국해방의 새 력사가 펼쳐졌고 세인을 경탄케 한 세기적전변이 일어나 지난날 착취받고 억압받던 우리 인민이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우리 식 사회주의체도의 품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독창적인 사상리론 활동과 탁월한 령도예술에 있어서뿐아니라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으로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이민위천》**을 혁명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우리 인민모두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 주시고 성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영생하도록 이끌어 주신 어버이수령님,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관계를 믿음과 충성, 사랑과 효성의 관계로 끌어올리신 경애하는 수령님.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는 혁명전사와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한평생을 오로지 믿음과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를 베푸신 인민의 수령의 위대한 귀감이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핌속에 지난 기간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수령형상을 창조하는 사업을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으로, 창작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간 결과 주체문학의 대화원을 활짝 꽃피우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작품들을 수많은 내놓았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형상창조에서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만고에 빛나는 혁명업적을 더 잘 그리기 위한 사업을 창작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수령형상창조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격이 있고 높은 수준에서 창조해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모를 격이 있게 형상하자면 수령님의 위대성을 그려낼수 있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내세워야 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조국과 민족,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간다. 작품에서는 사회정치적집단을 움직이고 역사의 거창한 전진운동을 떠밀어나가는 수령의 활동세계가 펼쳐질수 있도록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내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더 잘 그리기 위해서는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업적이 풍만한 예술적화폭속에서 생활적으로 뜨겁게 안겨오도록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주위인물들사이의 인간적관계속에서 생활을 통하여 깊이 있게 그리는것이다.

수령형상창조에서의 금물은 수령의 형상을 격식화하거나 주위인물들과의 관계를 생활적으로가 아니라 공식적인 관계로만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게 그리는것이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한 적지 않은 작품들이 격식화되어 형상의 좁이 없이 썩여진것은 크게 두가지 원인으로 설명할수 있는바 그 하나는 생동한 생활적세부를 탐구하지 않고 성급히 펜을 든 데 있고 다른 하나는 인간적품모를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통하여 깊이 펼쳐주지 못한 데 있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생활적으로 뜨겁게 안겨오도록 생동하고도 의의있는 생활세부들을 깊이 탐구하여 형상하여야 하며 인민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시지 않으신 한없이 고매한 인간미, 한 인간의 운명문제를 두시고도 며칠 밤을 지새우시며 사색하고 또 사색하신 친어머님의 위대한 사랑의 내면세계를 진지하게 파고들어 감동적으로 그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생활적으로 깊이 있게 감동적으로 그리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참다운 인간적품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 진수를 깊이 파악하여야 하며 철두철미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안겨오도록 수령님의 형상을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의 원칙에서 당과 대중과의 련관속에서 잘 그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3위1체의 관계에서 형상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깊이 있게 그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로정에 깃든 잊을수 없는 사연들, 인민과 고락을 함께 한 수령님의 빛나는 활동과 숭고한 품모에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하 많이 깃들어 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의 참모습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내야 하며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인간적인 관계를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를 바탕으로 하여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수령형상창조에서 격식화의 경향과 사건기록의 현상을 없애고 현지지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인간적품모를 풍만한 예술적화폭속에서 감명깊게 그려낼수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형상함에 있어서 현시기 중요하게 제기되는 창작실천적인 문제는 시대의 미학적요구를 작품에 구현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나게 계승하시여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 새로운 역사적전환의 시대이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력사의 온갖 시련과 준엄한 폭풍을 뚫고 승승장구하며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고있다는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힘있게 부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도 특히 탐구와 사색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략관주의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에 그대로 체현됨으로써 오늘 우리 인민들이 준엄한 강행군길도 웃으며 가고 락원의 행군길로 되게 하고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립증하는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지난날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오늘도 강행군을 하고있으며 앞으로 그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갈수있지만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그대로 빛나게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는한 최후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문학형상으로 드높이 구가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책임적이고도 숭고한 임무이다.

모두다 만고에 빛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형상한 명작창작에 창작적탐구와 열정을 다 기울이자.

# 타오르라 성강의 봉화여

김석전

불이 없으면 못사는 성강에  
불이 꺼지지 말라고  
위대한 장군님 지퍼주신  
대고조의 그 봉화로 숨결높은 땅

우리 조국이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하는 오늘  
불의 귀중함을 깨우쳐주며  
바람세찬 동해천리 먼길을 오신  
장군님의 그 믿음을 어이 잊으랴

그렇더라  
이 땅에 불이 없으면 조국의 숨결이 멎고  
혁명의 기관차가 멎고  
찬란한 미래로 향해가는  
진군의 흐름이 멎어서기에

위대한 장군님 지퍼주신 봉화는  
투쟁의 불

전진의 불  
우리의 사회주의를 살리는  
운명의 불 자력갱생의 불

활활 타오르는 이 불로  
제국주의원수들의 봉쇄의 얼음장  
위협과 압살의 광풍을 부셔버리리라  
다시한번 천리마의 대고조를 일으키는  
비약의 이 불로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장에 터져 오를  
경축의 축포를 울리리라

오, 타오르라 성강의 봉화여  
이 땅우에 존엄높이 솟아오를  
주체의 강성대국을 위해  
장군님 이름으로 빛나는  
희망찬 새 세기를 위해  
타오르라 조선의 신념이 비긴 대고조의 봉화여!

## 성강의 숨결

량덕모

못내 기다려온 시각이었지만  
참으로 죄송스런 마음이었어라  
하늘 가득 강철난가리를 쌓고  
어버이장군님을 모시였다면  
그이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랴

다정히 어께도 두드려주시며  
수고한다고 보고싶었다고  
생산을 정상화해보자고  
따뜻이 고무해주시던 장군님

윤기돌게 관리한 기대들을 보시며  
원수들의 악착한 봉쇄와 체제속에서  
공장을 지켜낸 성강로동계급  
그 정신이 좋다고  
오히려 치하해주실 때

아, 어찌하여 우리는 할말을 잊고  
가슴만 들먹이었던가  
강행군의 어려운 세월

자기 힘을 믿고  
간고분투한 나날  
장군님만 믿고 일떠서던 그 마음

그이께선 보시였다  
다시한번 대고조의 불길 일으킬  
뜨거운 불씨  
혁명의 핵심부대  
로동계급의 불타는 심장을

확신에 넘쳐 보시였다  
어지러운 먼지에 때묻지 않고  
자기 공장 자기 기대를 그렇게도 사랑한  
우리의 심장의 불길  
봉화로 추켜들면  
온 나라를 불붙이며  
세기를 주름잡을  
천리마의 거센 나래 펼칠수 있음을

시련은 겹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한한 창조의 열기를 뿜으시는  
태양같은 장군님의 그 믿음  
찬겨울 광풍에 잎떨어진 나무들에  
봄물을 올리고 있을 피워주는 봄빛처럼  
수십리 공장구내에 화광을 펼치며  
활력의 숨결 높뛰여주거니

나날이 거세차지는  
우리의 숨결 성강의 숨결이어  
전후의 어려운 날 강선로동계급처럼  
강철로 장군님을 옹위해갈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안은  
조국의 숨결  
사회주의 맥박

오, 다가오는 새 세기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울  
무쇠기둥을 쏟아내며  
성강에서 타오르는 대고조의 불길  
우리 장군님 담력과 의지에서 시작된  
조선의 숨결이어!

## 새벽의 꽃

조르 사한

인사를 드리웁니다  
사회주의조선의 등대  
**김정일**령도자께  
축원의 인사 드리웁니다

푸르른 조선의 대지와도 같이  
그이의 사상 청청하고  
그이의 심장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이  
세기의 하늘가를 밝게 비칩니다

당신은 만민의 친근한 벗  
투쟁과 강의성의 빛나는 상징  
민족의 령도자 위대한 장군님이시여  
우리는 당신께 기쁨만을 드리웁니다

조선은 가장 존엄있는 나라  
그대의 심장 평양에 새봄은 찾아와  
온갖 꽃 대지에 피어나고  
사람들의 가슴속에 행복의 노래 차넘칩니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사상  
사회주의조선을 일떠세웠나니  
노래하라 사회주의화원이여  
진보적인류의 념원을 담아

사회주의조선은 **김정일**령도자의 사랑속에  
온 세상에 더욱 빛나고  
더해가는 그 사랑속에  
우리의 혈연의 뉴대 이어지나니

언제나 찾고싶은 조선이어  
내 이 한편의 시로 평생소원 이루고

위대한 그이를 우리러  
마음속의 기쁨 노래하렵니다

내 심장 조선에서 높뛰고  
내 마음 조선에서 살고싶어  
나는 평양의 하늘을 날으는 새  
무성하는 사랑의 숲속에서  
창조로 빛나는 오늘과 래일을 노래합니다  
조선을 희망의 등대로  
조선의 어제와 오늘, 래일에 나는 삽니다

사랑하는 조선이어  
그리운 조선이어  
내 조국의 향기 그윽한 꽃다발 드립니다  
그대의 심장 평양으로 이 마음 달려갑니다

내 희망에 넘쳐 지은 이 시를  
조선에 드립니다  
사랑과 충성의 화신이신  
그이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조선의 심장 **김정일**동지이시여  
당신은 사회주의와의 수호자  
당신의 빛발따라 우리는 미제와 싸우고  
당신의 손길아래 인류의 원수와 싸워잡니다

당신은 세계인민들의 가장 친근하신 벗  
당신은 세계혁명가들과 투사들의 동지  
당신은 근로대중의 위대한 태양이시거니  
만수축원의 인사 삼가 드립니다

(필자는 수리아시인임)





## 찬물 한고뿌로

주체64(1975)년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날 점심시간이 되었을무렵 한 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벌써 며칠째 집무실에서 새날을 맞으시며 사업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점심식사도 건느시고 사업에 전념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그이께서 계시는곳으로 향하는 그 일군의 발걸음은 저으기 무거웠다.

언제나 그러하시듯 일군을 반갑게 맞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부서앞에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오래동안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다 받고 일군이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는 오후 4시가 가까와오고있었다. 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이렇게 식사도 제때에 안하시고 무리하시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장군님께서서는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시간이 없는데 언제 식사하러 다니겠습니까. 랭수를 한모금 마시면 허기증이 멀어지고 기운도 납니다.》**

일군은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라 견딜수 없었다.

대기실에 나오니 몇명의 일군들이 또 장군님을 뵈웁고저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있었다.

(점심식사를 건느신 그이께서 이제 그들을 련이어 만나주시느라면 얼마나 피로하고 힘겨우시랴.)

일군은 그들에게 장군님께서 아직 점심식사를 못하셨다고 알려주었다.

펼쩍 놀란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자기들은 몰랐다고, 장군님께서 이제 곧 찾으시겠는데 돌아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앉아있을수도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고 하였다. 그러는 그들의 눈가에는 뜨거운 물기가 어리어있었다.

그날밤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더니 곧 길을 떠나자고 하시였다. 이밤 그이께서 가시려는곳은 지방치고도 아주 먼곳이었다. 점심도 건느시고 저녁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장군님께서 이 한밤을 현지지도의 길에서 지새우실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벌써 자정이 가까와오는데 오늘밤만은 쉬시고 래일 가시면 좋겠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밤 12시면 초저녁인데 뭐랍니까, 내 걱정은 조금도 말고 어서 떠납시다 라고 재촉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그 일군은 아무 말씀도 못올리고말았다.

장군님께서 한밤을 그대로 지새우시며 머나먼 지방에 나가시여 일을 다 보시고났을 때에는 날이 훨씬 밝아올무렵이었다.

일군은 장군님께 간단히 요기라도 하시고 떠나시며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다고, 술한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겠는데 언제 한가하게 먹을것을 다 먹으면서 다니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전에 여기 와보니까 물맛이 참 좋던데 샘물이나 한그릇 떠오라고 이르시였다.

일군은 하는수없이 샘터에서 떠온 찬물을 가져다 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 물을 한고뿌 다 드시고 **《역시 뭐니뭐니해도 물맛이 제일이거든.》**라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곳을 떠나 귀로에 오르시였다. 혁명을 위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시였으면 하루의 식사시간마저 아까와하시고 찬물 한고뿌로 끼니를 에우시였으랴. 우리 인민들이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우리모두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처럼 불면불휴의 로고를 기울이시며 우리 혁명과 우리 조국을 이끄신다.



## 장령들

권강일

벌써 달라요  
생각하는 품이  
앞날을 쪽-내다보는거랑  
일판을 큼직큼직 펼치는것도  
  
-듬뿍 먹입시다  
용광로가 배부르게  
쪼물쪼물 닐라오던 철광석도  
지름길을 열어서 통채로 날라오고  
  
-자체로 해봅시다  
손 내밀지 말고  
엄두도 못내던 새 발전기를

용해장 가까이 직사포처럼  
들어앉힐 구상도 하고  
  
야전복 누빈 솜옷 옷깃속으로  
큰별이 번쩍 빛을 뿌리는  
그 모습 보기만 해도 기운이 나고  
나란히 함께 서도 가슴 넓어져  
  
정말 달라요  
통이 크고 배짱이 센 그 사람들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을  
가까이 모시고 따르며  
그이의 성격을 닮은 그 사람들

## 더 아름다와지자

리일섭

세멘트 한삽  
강재 한토막이  
그처럼 귀한 오늘도  
우리는 신심높이 건설한다  
수도의 현대적인 새거리를  
  
허리띠 조이며  
강행군 다그치는 이 시각도  
우리는 배심있게 일떠세운다  
후손만대를 위한 기념비들을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우리 대에 또 이 세기안에  
여기엔 새 거리를 저기엔 수목원을  
앞 강엔 소형발전소 뒤편엔 새 목장  
보다 찬란한 미래가 우릴 부르나니  
  
무엇을 아끼랴 서슴으랴  
사나운 폭풍은 우리 길동무  
시련의 언덕은 우리 디딤돌  
래일을 위해 오늘을 바치는것으로  
더욱 벅찬 이 삶이 아니냐  
더욱 성스러운 이 강행군 아니냐

추억은 아름다워  
기초를 파며 웅벽을 쌓으며  
저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  
머지 않아 새 거리 집집의 창가에  
현란한 구슬무리등으로 빛나리  
  
목고채에 서로 어깨 바투 드밀며  
흠없이 짓던 그 웃음  
휴식참 마라초도 달게 나누던 그 우정  
우리의 보람찬 청춘시절 자서전은  
후대들 교과서에 행복의 전설로 꽃피리니  
  
건설하고 또 건설하자  
산을 허무는 저 발파소리  
승리의 북소리처럼 울리며  
철골을 이어가는 저 용접의 불꽃  
축포의 꽃보라처럼 날리며  
  
하여 먼 후날 후대들이  
조국앞에 부끄럼없이 산 우리 삶을  
더없이 귀중한 가보로 유산으로  
공지높이 간직하고 자랑하도록  
더 아름다와지자 조국이며 생활이며

# 더 높이 날으자 대고조의 천리마여

박경심

나에겐 고삐가 있다  
나의 아버지세대가 물려준 천리마의 고삐  
사회주의조국의 력사우에  
장엄한 시대를 아로새겼던  
거창한 변혁과 기적의 고삐가

9 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강행군의 발구름소리 높이 울리는 이 땅에서  
내 오늘 그것을  
뜨거운 심장으로 틀어쥔다  
나를 지켜보는 우리 혁명선배들의  
믿음에 찬 그 눈빛으로 틀어쥔다

조국이 시련을 헤쳐가는  
가장 준엄한 시절에  
천리마여 내 당당히 고삐를 틀어쥐고  
너의 용감한 기수가 되어 날으려니  
너는 흘러간 추억의 천리마가 아니다  
호기찬 그 발굽소리로 강산을 다시금 울려라  
우리 함께 네굽을 놓아 힘차게 달려보자

우리의 부모들 너를 타고  
쇠돌을 깨고  
쇠물을 뽑고  
들에는 오희를 살찌우고

바다엔 만선기 펄펄 날렸듯이

우리도 세우리라 건설의 기념비 창조의 탑들을  
더 기세차게 돌리리라 우리 공장 기대들을  
더 많은 탄  
더 많은 철  
더 많은 쌀로  
이 나라 부흥의 새 시대를 또다시 안아오리라

오늘의 천리마는  
제국주의봉쇄의 불구름을 뚫고  
총폭탄 영웅, 자폭영웅들이  
억세게 몰아가는 천리마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수령님의 제자, 장군님의 전사들이  
사회주의승리를 세상에 펼쳐가는 대고조의 천리마

아,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천리마! 네가 숨쉬고  
너와 함께 우리 날으는 한  
최후승리는 우리의것 우리의것  
조국은 거연히 일떠서리라  
위대한 강성대국으로 일떠서리라  
천리마여! 더 높이 날으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자

## 나를 부른다

조창제

마음속에 되새기며  
이 아침도 불려보노라  
우리 당의 목소리  
나를 부르는  
우리 당의 구호를

구절구절 가슴에 새길수록  
새힘을 안겨주고  
미래를 바라보는 나의 눈빛을  
더 밝게 해주누나  
최후승리 그날에로 부르는  
조선로동당의 구호여

아, 가는 길이 험치 않기에

믿음이 넘친 구호마다엔  
뜨거운 피가 뚫고  
가는 길이 그리도 보람찬 길이기엔  
받아안은 나의 심장도  
이토록 세차게 고동치는것이거니

한걸음한걸음이 이어져있다  
순간순간이 이어져있다  
경사로운 승리의 대축전장  
9 월의 광장으로 이어져있다

산악이 막아서면  
산악을 딛고 나아가리라  
폭풍이 몰아치면

내 심장의 목소리 더 높이 울리리라  
투쟁의 구호  
신념과 의지의 이 구호

그럴 때면 아, 그럴 때면  
나의 귀전에 들리리라  
장군님 헤쳐가시던 북방의 6 천리 눈보라소리가  
눈앞에 보이리라  
성강의 거세찬 대고조의 봉화가

력사의 강행군길에  
기적의 창조자로  
나를 세워주고 인민을 세워준  
우리 당 조선로동당이여  
최후의 승리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세상앞에 내세워준  
혁명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

그이가 계시여  
내 삶이 빛나고 조선이 빛난다  
그이가 계시여  
인민의 심장속에  
우리 당의 위대한 구호가 새겨져  
오늘에 자기를 다 바치며  
미래에 살고있거니  
가자, 9 월의 광장으로

아, 그날에 나는 보리라  
축전장에 들어서는 나의 한결음한결음이  
그대로 위훈의 기념비로 솟아  
하늘땅에 빛나리라  
내 목청껏 부르는 만세소리는  
맑고 푸른 9 월의 하늘가에 터져오르리라

## 고향

장은하

흔히 생각하더라 사람들은  
고향이라고 하면  
빠꾸기 울던 뒤산에  
떨기떨기 피어나던 진달래

생각하더라 사람들은  
고향이라고 하면  
 시내물 흐르는 강가  
 못잇을 추억속의 소꿉동무

허나 내 서있는 여기  
전승기념탑에는  
빠꾸기도 진달래도 없다

잔잔히 흐르는 강물은  
고향의 시내물이 아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소꿉시절의 동무들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엔 있다  
진달래 피는 고향을 거닐던  
영웅들의 모습이  
고향을 그려보며  
적의 화점을 가슴으로 막은  
영웅들이

그들은  
고향이 아닌  
전승기념탑에 서있다

그렇다  
조국은 그들을 세워주었다  
영생의 언덕우에  
조국의 그 품에서  
영웅들은 다시 태어났다

빠꾸기는 울지 않아도  
진달래는 피지 않아도  
영웅들은 여기 돌아와  
두번다시 태어났다

여기서 영웅들이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오, 우리의 마음속에  
애국을 불태워주는  
전승기념탑이여  
너는 영웅들의 영생의 집  
영웅들의 고향이여라

(조선인민군 군인)

# 길이 빛나라 강행군의 6천리여

차승수

그 시각은 0 시였다  
우리 장군님  
경건히 옷깃을 여미시며 계단을 오르신  
금수산기념궁전  
수령님 조용히 덮고계시는  
붉은 기폭을 마음속에 추켜드리고  
이해의 첫걸음 떼신것은

그 시각은 새벽이었다  
건조등 불빛으로  
이해의 러명을 부르시며  
최전방 초소로 달리신 장군님  
그 붉은 기폭아래  
일당백무장력을 맨먼저  
불러세우신것은

그 시각은 동트는 아침이었다  
공동사설의 열풍을 안고  
약동하며 일어서는 수도의 거리들을  
차창가에 비껴담고  
만경대혁명학원으로 달리신 장군님  
마음속으로 뜨겁게  
노래를 부르신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신념과 의지의 발자욱으로  
력사에 아로새길  
준엄한 이 해와 함께  
강행군길에 오른 우리 인민이여  
무심히 보지 마시라  
우리 장군님 진두에 높이 드신 저 붉은 기발을  
무심히 부르지 마시라  
우리 장군님 진두에서 선창하신 그 노래를

그 시간도  
자정이 넘은 밤이었다  
높이 드신 그 붉은 기발  
동지애의 그 노래를  
렬차에 옮기시고  
우리 장군님  
만포선의 분수령  
명문령을 오르시던것은  
멀리 동해선에선  
한공기의 죽을 덜어

나누어들자시며  
장군님 들려주시는 수저를 받아든 장령  
끝내 바위같은 어깨를  
오열에 떨게 한 그 집무실

치녀시절 서있던 초소에  
딸을 키워 세워준  
그 마음 기특해  
장군님 부름받고 렬차에 찾아간 그 녀인  
너무나 소박하고 겸소한 방차림에  
수행원들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흐느껴울었다는 그 집무실

생각만해도  
눈시울 젖어드누나  
강행군의 겹쌓인 피로를  
그대로 안으신채  
우리 장군님  
이밤에 또다시  
달리는 궤도우에  
집무실을 옮기셨는가

제국주의원수들이 강요하는  
압살과 질식에 겹친 재난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세상에 하나뿐인  
사회주의보루를  
양심품고 해치려는  
원수들을 생각하면  
눈에서 불이 인다고

강행군의 진두에  
몸소 자신을 세우시고  
이밤도  
인민을 찾아 떠나시는  
장군님

하늘도 땅도 정적에 묻힌  
깊은 밤  
세기의 어둠을 헤가르는 류성처럼  
전조등불빛은  
명문령하늘가에 줄달음치는데  
-명문령...

조용히 외우시며  
수북이 쌓인 문건에서  
시선을 드시는 장군님  
가볍게 흔들리는 창가림을 여시고  
차창밖을 근엄히 바라보시여라

우중충한 수림속에 흘러든  
한줄기 하얀 길을 따라  
뜨겁게 안겨오는 추억깊은 오솔길을

언제 어느해였던가  
만경대고향집 사립문을 나서신  
김형직선생님  
력사의 새벽길을 헤치시며  
이 령을 넘으신것은

언제 어느해였던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아버님의 발자욱 따라  
해방의 큰 뜻 품으시고  
우리 수령님이 령을 넘으신것은

이름도 삶도 짓밟힌 이 땅에  
조국은 수령님 한몸이였고  
산천도 자원도 빼앗긴 이 땅에  
인민의 재부는  
수령님 안고가신 두컬레 짚신이  
전부였거니

사랑하는 조국이며  
이 길로 이어진  
저 멀리 화전의 언덕에서 백두의 령봉에서  
우리 수령님  
《ㄷ.ㄷ》의 화불을 지펴드시고  
혈전의 행군길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너는 영영 력사밖으로 떠밀리고말았으리  
철쇄에 묶이운 인민과 함께

이 길로 이어진  
황막한 광야에 천고의 밀림속에  
사선을 헤쳐가신  
피어린 자욱 찍히지 않았다면  
자력갱생 마치고  
병기창에 울리지 않았다면

네 어찌 돌아올수 있었으랴  
철웅성의 힘을 키운 무적의 인민  
강철의 무장력과 함께

모든것을 제힘으로!  
모든것을 제정신으로!  
우리 수령님 백두밀림에서  
혁명의 만능보검으로 버려내신

주체의 신념!

너를 혁명의 표대로 추켜든것이  
우리 수령님 한생의 님이 어린  
혁명의 붉은기 아니었던가

이 순간  
명문령굴간을 울리는 차바퀴소리  
문득 수령님 모시고 떠나시던  
그 차바퀴소리  
세월을 거슬러  
장군님 심중에 마쳐오는듯  
승엄한 안광 번뜩이시여라

-아버이수령님!  
오직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 인민을 불러일으켜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겠습니다  
이 세계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하늘땅사이를 섬광처럼 가르며  
차바퀴에 번개를 날리며  
거세인 열풍을 몰아가는 밤렬차  
나에겐 생각되누나  
인민의 운명을 무겁게 싣고  
가야 할 먼 길을 등대처럼 밝히며  
주체의 궤도를 달리는  
저 혁명의 기관차따라  
이 시각  
지구가 돌고 력사가 흐르고있음을

해가 뜨고  
달이 떠도  
산 그림자에 가리우던  
자강도의 깊은 골짜기-

이 어인일인가  
내 눈을 감아도  
삼삼히 떠오르는  
징검다리며  
추억깊은  
그 강기슭으로  
우리 장군님 찾아오셨다니

소박한 자강땅사람들의 충직과 성실  
그 불굴의 실천력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는  
강행군의 앞자리에 내세워 주셨다니

생각만해도  
온몸이 얼어드는  
그 대한추위속으로

그이 걸으신 장장 6천여리

아 그 자옥자옥  
이 손으로 쓰다듬고  
이 가슴에 새기며  
눈굽이 젖어 굵어보는  
내 고향 자강땅이여

정녕 꿈인가  
생시인가  
장군님 분명  
이 작은 배전반실  
다녀가셨단말인가  
장군님 분명  
이 좁은 발전기실  
돌아보셨단말인가

지금도 배전반의 눈금을 바라보시며  
한절기에 이만하면 대단하다고  
환하게 웃으시던 그 미소  
방안에 해빛으로 남아있는듯

지금도 귀기울여 들으시던  
발전기의 동음과 함께  
-이것이 우리 식이요  
이것이 우리 식이요-  
기쁨이 실린 그 음성  
방안에 가득차서 울리는듯

수고했다고 잡아주신 이 손이  
제손이면서도 제손 같지 않아  
그이 체온 스며있는  
그 손을  
남몰래 쓰다듬는 운전공  
소리없이 흐르는 더운 눈물  
눈시울에서 방울져 손등을 적시누나

그 누가 알았으랴  
개울가에 흔한 돌  
이 가슴에 굳은살 배기도록  
하나 둘 안아올려  
강기슭을 다듬던 그 새벽이

사람들의 눈박에서 녹쫄던 부속들을  
보물처럼 찾아내어  
썰고 갈고 맞추며  
남모르게 흘리던 그 진땀이  
그이께 드리는 기쁨으로 될줄은

그 누가 상상이나 했으랴  
제힘으로 제손으로 발전소를 건설하자는  
당세포결정을 받들어  
소문없이 꾸려놓은 이 작은 일터가

위대한 장군님의 기쁨으로 될줄을

들으시는 사연마다  
대견하고 기뻐하시여  
정겨운 시선을 보내주시고  
보시는 설비마다  
해종일 머물러 쓰다듬고싶으신듯  
쉬이 자리뜨실줄 모르신 장군님

우리 로동계급의 지혜가 깃들고  
우리 인민들의 땀이 어린  
창조물이면  
그것이 설사 작은 부속품 하나라도  
남의 땅, 남의 하늘에 날아오른  
로켓트보다  
더 귀중한 여기시는 그 사랑, 그 믿음  
세계를 개조할 힘을 안겨주시고  
키낮은 문을 열고 나서시는 장군님

뜨거운 눈물속에  
장군님을 배려하는  
운전공도 소장도  
마음속걱정을 소리없이 터치여라  
-위대한 장군님  
그 신념으로  
우리 마을, 우리 공장을  
세상이 보란듯이 꾸려놓겠습니다

발전기실 나서시는 그 걸음으로  
전기화의 덕을 보는  
인민들을 보고싶으시여  
우리 장군님  
얼음덮인 언덕길을 오르셨거니

그 집은 양지바른 산기슭에  
오붓이 들어앉은 주력마을 두번째집

《...지금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꼭 꿈을 꾸는것만 같다오  
저 하늘이 점찍어 내려보낸  
은총이 아니면  
하늘아래 누구나 바라는 그 소원  
땅우에 이 집에만 차례질수 있었겠소

내 미처 몰랐다오  
하루에도 삼시  
스위치만 슬쩍 넣으면  
부글부글 끓는 가마  
왜 그리 오래도록 지켜보시였는지

내 미처 몰랐다오  
문밖에선  
소대한 찬바람 기승부러도

따뜻한 전기온돌에 손을 얹으신채  
왜 그리 자리를 못뜨셨는지

옷장을 여시고도 기쁨의 웃음  
이불장을 여시고도 기쁨의 웃음  
인민의 행복을 바라시는  
그 심정 오죽하시면  
이제는 한시름 놓인다고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시라

온 나라 가정을 보살피시느라  
근심걱정 가실날이 없으신 장군님  
눈바람 안고오신 솜옷자락이  
촉촉히 젖어드는 그 모습 우러르니  
눈물이 펴 돌아 목이 메어올랐다고

이제야 알았다고  
멀리 평양에서 떨어져  
천리밖에 사는 집  
이 집이 그이 모실 영광을 지닌것은  
그이께서 안겨주신 전기화의 덕분임을

이제서야 알았다고  
인민이 바라는 소원이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시는 장군님  
인민을 하늘처럼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늘의 태양이 내려보내신 은총임을...》

어머니의 소박한 이야기  
여기서 매듭을 지었어도  
이 가슴에 밀물쳐오르는 감사의 정  
금할수가 없구나

눈보라  
북방의 눈보라  
땅위의 눈무지 하늘로 말아올려  
눈바람 소나기로  
살을 찌르고  
가슴을 에이는 눈보라속에  
백두산의 모습인양  
강언덕에 거연히 서계시는 장군님

전기온돌 훈훈한 방안에서  
추위를 모르는 인민의 행복이  
영원히 식지 않을 온기가 되어  
온몸을 덥혀드리는데  
기쁨어린 안광으로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산골마을 풍경을 둘러보시라

충충이 늘어선 발전소언제며  
정갈하게 솟아오른 발전소건물들  
언제너머로 눈부신 얼음판에선

스케트날우에 실린 아이들의  
원을 그어 달리는 즐거운 모습

그 얼음 풀린 화창한 봄이면  
버들방천 그늘아래 즐거운 뽀트놀이며  
그밀에 꼬리치는 산천어떼들도 그려보시는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장군님

발전소 지붕밑에서 뻗어간  
은빛 전선줄 너머로  
즐비하게 늘어선 읍거리며  
창문마다 올려나오는  
지방산업공장들의 경쾌한 기대소리  
행복한 인민의 노래소리 웃음소리 들으시는듯  
만족하시여  
두손을 허리에 얹으신채  
수원들을 돌아보시며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라  
-여기가 공산주의리상촌입니다

오, 들었는가  
자강땅의 이름없는 마을이여  
내 고향사람들이여

삶과 투쟁의 절정에서  
인간이 누리는 행복의 상상봉에서  
인류가 바라는 리상의 언덕에서  
우리 장군님 하시는 말씀을

너 들었는가  
북천강이여  
네 기슭에 삶의 첫 보습이 박히던  
아득한 그 시절부터  
세대와 세대에게 넘겨준  
절절한 념원은 무엇이었던가

나라없던 그 시절엔  
착취와 압박의 중압밑에서  
참다운 인간의 해방이  
하나같이 간절한 소원이었고

해방의 기쁨속에선  
공산주의 미래라는 휘황한 앞날이  
손잡아 이끌어  
전쟁도  
폐허도  
대건설의 불야성도  
《고난의 행군》의 엄혹한 시련도  
웃으며 헤쳐온 인민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어이하여  
이 고장 사람들  
세월을 멀리 주름잡아  
남먼저



공산주의리상촌에 들어섰느냐

말해다오  
대답해다오  
북천강이여

북천강은 찼찼-  
얼음장을 떠밀며 소리치누나  
-들어라 사람들이여  
내 기슭에 마을들은 많건만  
남들이 편히 이불속에 든 깊은 밤에도  
이고장 사람들은 잠들줄 몰랐노라

저 언제속엔  
로인들도 불몽치 태워들고  
한밤을 같이 새운  
그 지성 고여있고  
아이들도 우등불 피워놓고  
혁명가요 불러주던  
그 정신 배여있거늘

남들은 우에다 손을 내밀고  
빈차타고 분주히 오고갈 때에  
이고장 사람들은  
제 눈앞의 바위산을 뚫아올랐고  
제 발밑의 폐갱속을 헤쳐갔거니  
거기서 발전소의 언제감이 다듬어지고  
거기서 문화주택 지붕감이 구워졌더라

그들이 있어  
수천년 무료히 흘러가던 저 강물  
주체의 신념으로 불타는 심장속에 흘러들어  
공산주의불빛으로 태여났노라

그들이 있어  
수만년 땅속깊이 잠들었던 억만보물이  
제힘으로 제손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참된 인간들의 숨결속에 깨어나  
공산주의아침을 남먼저 맞게 됐노라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들은 살고있지 않는가  
백두대산줄기가  
그대들의 발밑까지 뻗어내린  
그 땅에서  
백두산천지물이  
그대들의 눈앞으로 흘러가는  
그 기슭에서

문노니  
거기엔 없었더란말인가  
북천강사람들이

언제로 안아올린 그 자갈과 모래들이  
제방으로 안아올린 그 돌들과 흙들이

거기에 없었더란말인가  
령넘어 또 넘어  
아직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무성한 림지가  
땅속에서 빛을 뿌리는  
보화의 무지가  
있었던만  
그들은 찾을수 없었거니  
폭풍도 시련도 헤쳐나가는  
불굴의 녀이 어린 혁명의 붉은기  
심장의 끓는 피로  
추켜들지 못했기에

백두의 혈통을 지닌 후손들이여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길에  
장군님 진두에 서신 강행군길에  
우리 더 높이 추켜들자  
그 붉은기!

해뜨는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북천강기슭의 솟는길 헤치시며  
현지도도자육을 새겨오신 장군님  
어둠이 깃드는 언제우에 서시여  
강건너 불밝은 창문들을 바라보시여라

하늘의 별들이 내려앉은듯  
황홀한 밤  
불빛 타고 흘러 나오는  
밝은 웃음소리  
즐거운 노래소리  
제국주의 압력도  
질식의 마수도  
북방의 강추위처럼 창밖에 녹아내리는듯

별세상 같다고  
텔레비죤수상기도 전기용품도  
더 많이 보내주자고  
행복우에 행복을 고여주시는 장군님  
전기화의 덕을 보는 인민들의 기쁨속에  
피곤이 풀리고 새힘이 솟는다고  
또다시 새 고장 찾아 떠나시여라  
앞에는 눈보라 생는길 헤치시고  
뒤에는 행복의 불빛들을 남겨두시고...

아  
행복의 밤  
영광의 밤  
북천강마을은 잠들줄 몰라라  
장군님 잡아주신 보배손들을

저마다 부여안고 쓸어보고 만져보며  
장군님 안겨주신 설계도를 펼쳐들고  
자동화의 동음을 마음속에 들어보며

그런데 이 밤  
강건너 자리잡은  
《ㄱ》공장에서만  
지배인도 당비서도  
무거운 침묵속에 잠못들고있어라  
더 많은 예비를 찾지 못한 자책감에  
처벌만을 기다리는 피로움속에

-혹시 우리 공장도 찾아주실가  
아니 너무나 체면없는 생각이야

순간이 천년인듯  
일어서는 욕망과  
주저앉는 자책이  
마음속에 엉켜돌며  
열백번 씨름질을 하는데

공장을 옆에 끼고 지나가셨다는  
장군님소식-  
그만에야 가슴 한구석이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져내리는듯  
얼결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젖히며  
눈물에 젖어 바래우는 뜨거운 마음이어  
한생을 잃어버린 한순간이어  
대중의 심장속에 묻혀있는  
그 많은 잠재력을  
대중의 지혜속에 빛을 뿌리는  
그 많은 예비를  
자책의 눈물속에 오늘에야 찾았건만  
장군님 모실 그 영광  
잃어버린 그 공백을  
살아 한생 어떻게 메꾼단말인가

북천강기슭을 떠나신 그 길로  
낮에 밤을 이어  
얼마나 머나먼 현지지도로정을  
자강땅 굽이굽이 새기셨던가  
강계를 떠나 성강으로  
성강을 떠나 전천으로

아 간북천 거슬러 오르신 생눈길이어  
외중천 따라서 내리신 얼음길이어

아무리 눈산이 앞을 막아도  
기어이 가야 할 혁명의 길이기예  
한걸음 늦추면  
제국주의원수들이 두걸음 접어들고  
한순간 멈춰서면

제국주의포위환이 더 깊이 죄여들어  
자주적인간으로 사느냐  
노예가 되느냐  
혁명이 내리는 준엄한 선언앞에  
비장한 결심품고  
눈보라 천리길을 헤쳐가시는  
강철의 령장  
위대한 장군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그이의 심중에서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울려나오는 이 노래속에  
앞을 막는 눈산도  
쏟아지는 눈사태도 녹아내리는듯

우리 장군님  
이 신념으로  
달려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이런듯  
산악같이 밀려오는 파도를  
거인처럼 눌러딘고  
초도의 병사들을 찾으셨더라

사회주의 방향타인듯  
몸소 조향륜을 틀어쥐시고  
천길 낭떠러지길을 지나  
최전방초소로 달리셨더라

그날의 파도에 젖으신 옷자락  
말라볼 사이도 없이  
그 나날에 겹쌓인 피로도  
풀어볼 사이도 없이  
북방의 엄혹한 대한추위속으로  
강행군의 자욱을 이으시거니

강인담대한 의지로  
시대의 난국을 헤쳐가시는  
장군님의 기상이런듯  
눈성에 허영계 불리어  
북변을 달리던 밤렬차

웬일인가  
오던 길  
다시금 되돌아감은  
누구도 알수 없으리  
누구도 알수 없으리

북천강기슭을 떠나시던 그 시각부터  
장군님 심중에  
알끈히 차올라  
마음속 한구석에 고이는 생각

...얼마나 서운하고 피로워하라  
그들을 눈앞에 두고 지나왔으니  
전화의 그날에는  
수령님 몸소 터를 잡아주시고  
전후의 그날에는  
현지지도 먼길을 에돌아  
품어주고 이끌어주시고  
손때묻혀 키워주신 그들인데  
강행군길에 락오자로 되다니

피로운 그 심정  
온몸에 불을 다는듯  
한두자식 거느린 부모라 해도  
앞에서는 대답하고  
뒤에서는 타발하는  
그런 때면 제자식도 민망스러워  
때로는 외면하기 일쑤이건만

장군님은  
온 나라 자식들을 거느리신 몸  
장군님은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운명  
한몸에 지니시고  
천사만려  
천신만고  
한몸에 안으시고  
제국주의 봉쇄와 끈질긴 압력을  
단신으로 단신으로  
헤치시는 몸

부모심정 몰라주고  
부모고생 더 시키는  
불효자식  
잠시 외면한들  
차라리 내버린들  
탓할 사람  
세상에 있으랴만  
우리 장군님 결심은 단호하셔라  
-가야 합니다  
진정한 어머니라면

오던 길 되돌아  
북변을 달리는 밤렬차여  
너 기적소리  
높이 울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리높이 전해주렴

이런분을 모시고  
우리는 산다고  
이런 령도자의 슬하에서  
우리 인민은 한생을 산다고

그리고 너 밤렬차여  
잠시라도 흔들리지 말아주렴  
우리 장군님 겹쌍인 피로  
순간이나마 푸실수 있게  
우리 장군님  
만시름 놓으시고  
쪽잠이라도 드시게...

렬차는 질풍같이 내달리는데  
장군님 마음은  
더딘것만 같아라

천리길 되돌아  
장군님이 오신다고  
바람처럼 퍼져가는 그 소식에  
그이 심정 알리없는 일군들의 생각이어  
(우리들이 뭐길래  
우리들이 뭐길래)

달려가자니  
죄스러운 마음 무겁고  
서있자니  
기쁜 마음 북받쳐올라  
안타까워라  
만세를 부르려니  
목이 짹 메이고  
장군님을 뵈옵자니  
눈물이 앞을 가리워라

정문을 지나  
공원처럼 꾸려진  
구내길 지나  
어느덧 해빛을 뿌리시며  
작업장에 들어서신 장군님

대교향악을 연주하는  
화려한 극장이런듯  
불빛은 태양등아래  
눈길이 모자라게 펼쳐진  
자동흐름선이며  
윤기흐르는 기대들  
쏟아지는 제품들

이 모든것이  
우리 기술, 우리 손으로 만든것이라니  
얼마나 좋은가  
이것이 자력갱생이라고  
대단히 훌륭하다고

구실 못하는 오늘을 두고  
책망할 대신  
어제의 성과를 두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고무를 주시니

로동자들도 기술자들도  
자책의 진한 눈물 흘리며  
그이앞에서  
기대를 붙들고  
기름묻은 가슴들을 불안고  
어깨를 들먹이여라

성실하고 충실한  
저 로동자들의 심장에  
계속혁명 불을 달지 못한채  
처벌만을 기다리며 손뼉을 놓았던  
자신들이 저주로워  
지배인 당비서 격정을 터치는데  
오열에 떠는 그들의 어깨를  
다정히 한품에 안으시며  
장군님은 힘주어 말씀하셔라

-오늘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말공부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감무쌍하게  
집행하는 실천가형의 일군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동무들을 믿습니다

아 그 음성, 그 모습이 아니었던가  
밖에서는 원수들이 복진소동 일으키고  
안에서는 종파들이 우리 당을 헐뜯던  
준엄한 그 시절  
흰눈을 맞으시며  
강선을 찾으셨던 우리 수령님

그이 모실 온전한 회의실 하나 없어  
숫불난로 피워올린  
연기자육한 창고자리에서  
강재 1 만톤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이 난국을 타개해나가자고  
그리도 절절히 호소하시던  
수령님의 거룩한 그 모습 그날의 그 음성

수척하신 수령님 모습을 우러러  
쇠물같은 눈물을 흘리며  
종파놈들을 보내달라고  
전기로속에 처넣겠다고  
불덩이같이 달아오른 가슴들이  
맹세를 터치던  
그 자리, 그 위치에  
이 순간  
자신들이 서있는듯  
-장군님, 이 몸이 천쪼각, 만쪼각이 난대도

사회주의보루를 철옹성같이 지키겠습니다  
장군님만 계시면 됩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금시라도  
장군님 명령만 떨구시면  
불속이건 물속이건 뛰어들어  
천쪼각, 만쪼각으로 흠어질듯  
제국주의 원수들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  
금시라도  
압연기에 밀어넣고 짓몽개버릴듯  
장군님 우러러  
불꽃을 날리는 눈동자들  
억세게 그러친 무쇠주먹들

장군님 안녕을 위해서라면  
금시라도  
한몸이 방패되어 달려나올듯  
장군님 두리에  
겹겹이 어깨성을 이루며  
성새처럼 둘러싼 로동자와 일군들

마치도  
50년대 그 나날  
강철로 우리 당을 받들어온  
강선의 로동계급을 보시는듯

끓는 심장에서 쇠물을 뽑아  
원수들의 목덜미를 짓누르고  
이 땅우에 천리마시대를 불러온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듯  
눈시울 후더워오르신 장군님

하고싶으신 천만마디 말씀  
주고싶으신 끝없는 정을 담아  
기름묻은 손들을 힘있게 잡아주셔라  
《고답소》 《고답소》

배뿔아도  
혈벗어도  
그 손길만 놓지 않고  
그 손길만 따라서  
영원히 가고싶은 그 마음  
운명도 미래도 그 품에 맡기고  
한생을 살고싶은 뜨거운 심장들이  
그이 품에 얼굴 묻고 흐느끼여라

오 보느냐  
세계여  
저 하늘아래  
이 땅우에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무기로도  
가를수도 떼여버릴수도 없는  
혼연일체의 이 화폭을

아느냐  
원썬들이여  
인류의 머리우에  
죽음의 공포로  
네놈들이 휘두르는 핵무기  
그것으로 지구는 깨뜨릴수 있다 해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우리 인민의 배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세계를 움직일 크나큰 잠재력을  
로동계급의 심장에서 다시 찾아내시고  
그 힘을 영원히  
심장속에 간직하고싶으신듯

우리 장군님  
공장을 떠나실 때는  
그들모두를 기념사진에 불러세워  
한품에 안고 가시였어라

그가 누구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지구촌에 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기어이 가야 할 혁명의 길이기에  
기어이 올라서야 할  
최후승리의 언덕이기에  
마지막 한사람까지 다 불러  
강행군길에 세워주시는  
우리 장군님

오 축복을 받으라  
자강도여  
그대는 우리 당의 로선을 신념으로 받아안은  
심장을 지닐 때  
빈손으로도  
빈터에서도  
공산주의락원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결사관철의 의지  
강계의 정신을 낳았거니

그대의 신념  
그대의 의지  
그렇듯 억세인 비결은 무엇이던가  
백두령봉으로 이어진 광복의 천리길  
그 길녘에 태를 묻고 자라나  
그 길에 흐르는  
백두의 혈통을

심장의 뚫는 피로 안고살기때문이던가

우리 장군님  
그대들의 발걸음  
그대들의 땀배인 창조물에서  
그대들의 행동과 기풍  
그대들의 웃음어린 얼굴에서

우리 당이 택한 길  
우리 당이 가는 길  
그 길이 진리이고 영원한 승리임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셨거니

그대들은 시국이 좋을 때보다  
시국이 어려울 때 돋보인 충신들  
그대들은 장군님만 따르면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반드시 이어갈수 있음을  
실천으로 보여준 사람들

내 오늘처럼  
그대품에 태를 묻고 자라나  
이 영예 이 궁지  
가슴부풀도록 느껴본적 없었노라  
어릴적 추억깊은 고장들  
잊지 못할 이름들을  
오늘처럼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은적  
일찌기 없었노라

사람들이여  
나는 지금 명문령마루에 서있노라  
우리 장군님  
력사적인 현지도로정을 뒤에 남기시고  
자강땅을 떠나는 렬차  
뜨거운 눈시울로 바래우며

낮과 밤의 계선이 없이  
이어지고 또 이어진 6천여리  
신념과 의지의 새 장을 펼치며  
자강땅에 굽이쳐간 6천여리

그것은  
한걸음 한걸음이  
우리 수령님 강선의 정신으로  
50년대 난국을 헤쳐오신것처럼  
우리 장군님 강계의 정신으로  
위대한 전환의 돌격로를 열어놓으신  
진격의 길

그것은

한걸음 한걸음이  
사회주의보루를 무너뜨리며  
피를 물고 조여드는  
제국주의봉쇄망에  
강계정신의 포화로 파열구를 열어놓으신  
승리의 길

그 길을  
혁명의 6만리로  
충성의 6억만리로 이으며  
공산주의봉우리에 가닿을  
우리 인민의 불타는 마음이어

나는 보노라  
우리 장군님  
이해의 0시에  
수령님앞에서 엄숙히 받아드리고  
강행군의 첫걸음 떼신 그 붉은기  
자강도가 들고가는  
그 붉은 기폭파라  
대고조의 열풍을 일으키며  
온 나라가 산악처럼 일떠서는 모습을

저 멀리  
성강과 김철의 지붕밑에선  
주체의 제철제강에 심장의 불을 지핀 용해공들이  
쇠물폭포앞에서 행복에 겨워 웃고있음을  
잠들줄 모르는 로동계급의 숨결인양  
북창의 하늘가에 거세게 뿜어올리는 연기를

나는 또 보노라  
지구를 아홉번 돌고 남을 길을 이어  
마식령을 넘어서는 대용연료차 영웅운전사  
제손으로 무슨 배 서해바다에 띄우며  
손저어 흐뭇이 바래우는 지배인의 모습을

바다를 밀어내는 간석지건설장과  
땅속을 헤쳐가는 갯막장에서  
기적을 창조하는 병사들의 일터와  
봄씨앗을 키우는 비닐지붕밑에서  
실천가형의 일군들이 숨쉬는 그 모든곳에서  
대고조의 거센 숨결 태동하거니

자력갱생  
이 길만이  
자주적인 인간으로 사는 길  
이 길만이  
사회주의를 지키고

최후승리로 가는 길  
죽어도 이 길에서  
살아도 이 길에서  
결사의 각오를  
붉은기에 새겨들고  
강행군길 다그쳐가는 조국이어

이 길에서 주저앉으면  
배신자되고  
이 길에서 물러서면  
노예가 되거니

죽음을 각오한 사람 당할자  
세상에 없다는것은  
우리 장군님의 신념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버려야 한다는것은  
우리 장군님의 의지

우리의 신념이고  
우리의 의지이며  
인류의 운명이고  
세계의 전부이신  
강철의 령장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강행군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두려움 모르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으로  
그이께서  
사회주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미래를 띠고있는 인류의 마음속으로  
밝아오는 21 세기여

너는 듣고있으리  
지축을 울리며  
다가오는 조선의 발구름소리  
자강땅이 추켜든  
강계정신의 역센 무쇠마치로  
이지러진 지구를 바로세우는 소리를

너는 벌써  
보고있으리  
오만한 제국주의아성을 눈아래 굽어보며  
승리자로 웃고있는 조선의 모습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령마루에 맨먼저 올라선  
조선의 모습을...

(1998. 3. 18)

## 위대한 혼연일체의 숭고한 화폭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령도 따라 공화국창건 50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 드높은 결의안고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온 나라 인민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걷는 오늘의 강행군길, 그 선두에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서계신다.

새해 정초부터 여러 인민군부대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련이어 찾으시여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시는 **김정일**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모습은 정녕 한평생 언제나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며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오신 아버지 수령님의 모습 그대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자강도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를 하고계시던 지난 1월 17일.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에 오른 로동계급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며 자강땅에 도착하신 순간부터 련일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날도 어느 한 공장에 들리시었다. 공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터마다에서 들려나오는 거세찬 기계의 동음을 만족에 넘쳐 들으시며 작업장으로 들어서시었다. 모든것이 정갈하게 꾸려져 화려한 극장을 방불케 하는 작업장에는 유격구의 병기창에서 울리던 자력갱생의 마치소리인양 거세찬 증산의 숨결이 도도히 맥박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공장을 잘 꾸렸다고, 공장이 휴양소같기도 하고 궁전같기도 하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로동자들이 일하는 기대앞으로 다가가시었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서 맞이하게 된 로동자들의 가슴속에서는 걱정의 파도가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었다.

《장군님!》 하고 목매며 부르며 그이께 인사들 올리는 로동자들의 두볼 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만만시련이 중중첩첩 앞을 막아나섰던 그 준엄한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도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안고 일편단심 장군님만을 따라 험로역경을 웃으며 헤쳐온 우리 로동계급이었다. 그 간고한 나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려 원수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의 앞장에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으시며 완강한 의지의 힘으로 난국을 헤쳐가시는 장군님을 생각할때마다 가슴저미는 아픔

을 금할수 없어 몸부림치던 그들이었으니 어찌 눈물이 앞서지않을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도 무척 감개무량하시었다. 어려울 때나 힘겨울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당을 받드는 기둥이 되어주고 우리 혁명의 핵심부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로동계급이 더없이 미더우시고 장하시여 모두를 꽃방석에 앉히고싶으신 심정이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기대마다에 들리시여 기대공들의 손을 하나하나 따듯이 잡아주시면서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고무격려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이 새로 창안제작한 기계설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우리 로동계급이 오늘과 같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생산을 끊임없이 높여가고있다고 하시면서 로동자들의 성과를 거듭 치하해주시었다. 그러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절삭기대에서 풍기는 매연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로동자들과 다정히 말씀을 나누시었다.

기계소음때문에 로동자들이 잘 듣지 못할가봐 이마를 맞대시고 큰소리도 이야기도 주고받으시고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들과 함께 호탕하게 웃으시기도 하시는 장군님, 친부모앞에 선듯 어려움을 잊고 속마음까지 스스럼없이 아뢰이는 로동자들, 참으로 그 모습은 단란한 한식술의 모습이 었다.

아버이장군님을 모신 일터는 한껏 행복에 젖어있었다. 로동자들의 일손에서는 번개가 이는듯하였고 기운차게 돌아가는 기대마다에서는 갖가지 가공품들이 줄줄이 쏟아져나왔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나가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무쇠마치로 역세계 옹호고수하는 우리 로동계급의 거세찬 숨결이 어디에서나 확확 풍기고있었다. 그 모든것을 더없이 소중하게, 더없이 대견하게 안아보시는 장군님의 안광은 뜨겁게 빛나시었다.

**《우리 로동계급이 정말 장합니다. 기세가 대단합니다. 로동계급의 역센 무쇠마치로 빈터에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던 그 정신, 그 기백이 온 공장에 차넘쳐있습니다.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이 곳곳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로동계급은 당의 요구라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무조건 해내는 충실성의 전통을 창조한 영웅적로동계급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열정과 신심, 로동계급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로 넘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모습을 보니 힘이 부쩍 솟는다고,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도 승리적으로 결속될 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면서 랑만과 회열에 넘친 로동자들의 얼굴을 사랑스러이 바라보시었다. 그러시며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우리의 귀중한 로동계급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후방공급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아버이장군님의 말씀에 로동자들은 눈시울을 적시며 송구함에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나라의 맡아들구실을 제대로 못하여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지 못하였다는 자책감을 금치 못하며 그이께 이렇게 말씀올리었다...

《장군님, 우리 로동계급은 더 어렵고 준엄한 시련이 앞을 막는다 해도 추호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맞받아뚫고 사회주의를 철옹성같이 지키겠습니다.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무서운것도 못해낼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것은 장군님의 만수무강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사나운 눈보라길을 걸으십니까. 장군님께서 계시야 조국도 있고 우리 로동계급도 있을게 아닙니까!》

눈물을 머금고 울리는 로동계급의 이 꾸밈없고 소박한 진정의 말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잠시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못내 격해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로동자들의 기쁨문은 손을 짹 잡으시며 《고맙소, 고맙소!》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하고싶으신 천만마디 말씀, 주고싶으신 끝없는 정을 뜨거운 손길에 담으시어 로동계급의 장알박힌 손을 잡고 오래도록 놓지 못하시는 장군님, 장군님

의 그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르며 그이를 결사옹위할 충성의 맹세로 가슴을 들먹이는 로동계급... 참으로 그 모습은 전후 재더미만 남았던 그 어렵던 시기 용해장을 찾으신 아버지수령님께 강철로 당을 만들 심장의 맹세를 드리며 최장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던 강선로동계급의 모습 그대로였고 그들의 목소리는 전후복구건설은 넘려마시라고, 수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폐허를 가시고 잘살게 된다고 하던 락원로동계급의 목소리 그대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성벽마냥 겹겹이 에워져 있는 로동자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오늘 여기 로동계급에게서 큰 힘을 얻고 갑니다. 나는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땅위에 기어이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웁시다!》**

위대한 수령님과 로동계급이 하나로 굳게 뭉쳐 엄혹한 난관과 시련을 뚫고 빈터위에 사회주의를 일떠세우던 50년대 그때처럼 위대한 령도자와 로동계급이 사랑과 믿음, 의리로 일심단결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일떠선 이 숭고한 력사적화폭, 어려울 때일수록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받들고 따르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영웅조선의 이 고귀한 전통, 백전백승의 우리 당, 위대하고 성스러운 우리 인민만이 창조할수 있는 이 위력한 혼연일체의 힘으로 하여 우리의 조국-**김일성**조선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최용호

## 가사

# 나의 아버지는 7 보총수였네

안근배

포화에 불타버린 발머리 뒤에 두고  
언덕넘어 전선으로 달려간 나의 아버지  
분대에선 나이많아 마지막 7보총수  
하지만 훈련에선 첫번째 병사였다네

엽초 한대 피울 때면 담배연기사이로  
풍년농사 다시 지을 그날이 안겨왔다네

분대에선 나이많아 마지막 7보총수  
미국놈사냥에선 첫번째 병사였다네

수령님 주신 땅을 한치인들 빼앗기라  
달려드는 미국놈들 모조리 잡았다네  
승리의 날 금별메달 달고온 7보총수  
아버지 대를 이어 영웅병사 나도 되리라

## 금수산기념궁전의 립상홀에 깃든 불멸할 충정의 이야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고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

금수산기념궁전을 찾는 사람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을 모신 홀에 들어서게 된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생전의 모습 그대로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

붉게 피어나는 새벽노을을 배경으로 거연히 서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립상은 진정 온 누리에 눈부신 백광을 뿌리며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 그대로이다.

립상홀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태양과도 같이 밝은 빛을 뿌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을 우러르며 숭엄하고 경건한 심정에 휩싸이게 된다.

금수산기념궁전의 립상홀이 오늘처럼 최상의 수준에서 꾸러지게 된것은 충효와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끝없는 심혈과 로고의 결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을 생존해계실 때보다 더 잘 그리고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심으로써 세상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도덕관을 가지고 자기 수령을 받들어모셔야 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체83(1994)년 9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일군들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는 문제를 협의 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꾸리는 1층홀에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을 모시여 찾아오는 인민들이 경의를 표시한 다음 수령님을 찾아뵈옵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창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 형상도안작성에 심혈을 기울이였다.

얼마후 여러건의 도안이 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닫긴것의 옷차림을 하신 영상, 제낀것옷을 이으신 영상, 대원수의 군복을 입으신

영상, 한손을 앞에 드신 모습, 두손으로 뒤짐을 지신 모습 등의 도안들이 나왔다.

제기된 도안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대원수복을 입고 계시거나 손을 높이 쳐드신 어버이수령님을 형상한 안들을 보시고 인위적으로 상상을 형상하지 말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립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금수산의사당에서 활동하시던 때의 모습으로 형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과 외국 손님들을 접견하시거나 기념사진을 찍을 때 우리 수령님께서 뒤짐을 지고 서계시던 자세가 우리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모습으로 립상을 형상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은 한평생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해오시였고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그대로 모시려는것이였다. 그 숭고한 뜻을 비로소 깨달은 창작가들은 립상 도안을 다시 작성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1층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이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금수산기념궁전에 찾아오는 우리 인민들이 생전의 모습대로 수령님을 만나뵈웠다는 인상을 가지도록 립상을 잘 형상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창작가들은 토의를 거듭하던 끝에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형상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어느 명절날 휴식도 잊으시고 만수대창작사로 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롭게 형상한 립상원형을 보아주시고나서 금수산기념궁전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숭엄한 감정으로 웃기를 여미고 수령님의 립상을 우러러 보게 되는데 수령님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형상한 립상을 모시는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며 숭엄한 자세로 서계시는 모습으로 형상하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사실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존시에 인류가 처음으로 맞이하고 무한히 숭배하는 위인중의 위인

을 만나뵈옵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게 된다는 숭엄한 마음을 안고 금수산의사당에 들어서곤했었다. 그럴 때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뒤짐을 지고 근엄히 서계시다가 손님들을 반가이 맞아주시곤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뵈은 오늘 사람들은 더욱 더 경건하고 엄숙한 심정으로 이곳을 찾게 된다. 이런 인민들에게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을 안겨주려면 수령님께서 사람들을 맞아주시던 영상을 그대로 형상하여야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철하신 가르치심에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드넓은 홀에 숭엄하게 서시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롭게 모시려는 수령님의 립상은 혁명의 영재, 만민의 태양으로서의 어버이수령님의 숭엄한 모습이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을 형상할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립상형상에서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더 잘 모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극한 충정은 또한 립상의 새벽노을 배경에도 깃들어있다.

처음 창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배경을 그림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다.

그리하여 평양시전경과 백두산천지 그리고 일만가지 꽃들을 그린 도안과 백두산에서 한나산까지 전조선의 면모와 세계를 한폭에 담은 배경도안 등 여러가지를 준비하였다.

어느날 배경도안들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립상배경을 그림으로 처리해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를 전면적으로 폭넓게 보여주기 힘들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립상을 모신 뒤벽면에 백색수지도장을 하고 거기에 새벽노을을 형상한 조명을 주는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해야 어버이수령님의 립상이 위대한 태양의 모습으로 보다 상징성이 강하게 안겨울수 있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순간 일군들 모두는 마음속으로 환성을 올리였다.

사실 새벽노을을 펼치여 어버이수령님의 립상이 위대한 태양의 모습으로 안겨오게 할데 대한 경애

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그야말로 립상배경처리에서 하나의 위대한 발견이였다.

노을은 태양이 있어야만 펼쳐질수 있다.

태양을 떠난 그 어떤 노을에 대해서도 결코 생각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은 존함 그대로 만민의 은혜로운 태양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할 태양의 모습을 안겨주시려고 립상배경에 새벽노을을 형상한 조명을 주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참으로 현명한 가르치심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배경에 필요한 조명기재 구입과 그 설치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립상홀을 중심이 깊게 형상하며 홀의 기둥들을 우리 식으로 처리할데 대한 문제, 홀의 벽체와 바닥에 붙이는 대리석의 문양을 맞출데 대한 문제, 홀안이 주단을 펴놓은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도록 할데 대한 문제, 홀에서 울리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음향문제에 이르기까지 립상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세심하고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립상홀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꾸러지도록 하시였다.

완공된 립상홀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립상과 그 배경처리정형에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 땅에 러명을 불러 금시 솟아오른 태양이런듯 장쾌한 새벽노을을 배경으로 뒤짐을 지고 서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위대하고 거룩하신 모습은 진정 눈부신 태양의 모습이다.

홀안에 은은히 울리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통성변영의 노래, 태양의 노래 《**김일성**장군의노래》.

찾아오는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영원불멸할 태양의 모습을 안겨주며 숭엄하고도 엄숙한 감정에 휩싸이게 하는 금수산기념궁전의 립상홀.

정녕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지극한 충정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 향도의 자욱을 따라 6천리

김대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1월 대소한의 강추위속에서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며 장자강과 북천에 새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지난해 《고난의 행군》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자강도인민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온 나라가 자강도를 따라배울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그처럼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린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중소형발전소들이있는 자강땅으로 우리는 기행의 길에 올랐다.

### 장자강반의 불빛

혁명의 수도 평양으로부터 약 천리나 멀리 떨어져있는 자강도 강계시는 랑림산줄기의 험준한 산발들이 성벽인양 서로 어깨를 겨루고 빙 둘러선가운데 오בות한 분지에 들어앉은 자그마한 산골도시이다.

북천과 남천이 이 아름다운 산골도시의 변두리를 정성껏 쓰다듬으며 흘러 내리다가 시내 한복판을 장쾌하게 꿰질러 흐르는 장자강에 합류한다.

이처럼 크고 작은 강들이 도시의 경계선을 긋고 있기에 그 이름도 강계시라 하는지...

장자강과 북천의 합수목에는 기묘한 절벽이 솟아 있고 그 절벽우에는 관서팔경의 하나인 고색창연한 명승고적 인풍루가 방금 하늘로 날아오를듯 합각지붕의 추너를 높이 들고 서있다. 풍치도 수려한 그곳에서 북천을 따라 땡기처럼 길게 뻗어나간 유보도로 십분가량 올라가면 유서깊은 천리길 답사로정에 들어서게 된다.

이 길에 들어선 우리는 감격과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혁명의 천리길》이라고 부르는 이 영광의 로정에는 지난 1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를 헤 치시며 걸으신 자욱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세가 복잡하고 난관이 겹칠수록 우리는 더욱 더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해나가야 합니다.》

북천을 따라 걷는 우리는 사뭇치며 흘러내리는 푸른 물결우에 유람선처럼 생긴 소형발전소가 다섯 개씩이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떠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발전기들의 량쪽엔 긴 통나무처럼 생긴 띄움통이 있고 가운데엔 원통식으로 된 수차가 있는데 해빛에 번쩍이며 쉬임없이 돌아가는 수차의 수많은 날개들에서는 물보라가 하얗게 일어번진다. 마치도 여러대의 압연기들이 줄지어 서서 요란한 동음을 울리며 푸른색강판을 련속 밀어내는것만 같았다. 강기슭의 도로 한쪽옆에는 찌리카트브들로 아담하게 지은 배전반실이 두개 있었다.

우리가 첫 배전반실에 들어가보니 철색얼굴에 우선우선한 표정을 담은 중년의 남자가 침착한 눈길로 계기들을 살피고있었다.

통성을 해보니 그는 어느 한 련합기업소에서 건설한 물우에 뜬 소형발전소 3개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림계성동무였다.

《지금 전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호기심이 담긴 우리의 물음에 림계성동무는 계기판을 가리켜보이며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보시다싶이 매 발전소당 17키로와트씩 나옵니다.》

다섯개의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합쳐보니 적은량이 아니였다.

《여기서 나오는 전기로 무엇을 합니까?》

《저기 장자강 건너편에 있는 고층살림집들에 보내주지요. 전등도 켜고 밥을 짓고 방을 덥히고 텔레비죤수상기도 봅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도 돌리구요...》

《그러니까 장자강 건너편에까지 송전선을 늘였단말입니까?》

《예. 그곳까지 1,200미터구간에 여러개의 철탑을 세우고 고압선을 늘였습니다.》

어째서 전력소비지와 먼 여기에 발전소를 건설 했는가고 우리가 문자 립계성동무는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떠우개식으로 된 이 발전소는 언제를 쌓지 않고도 전기를 생산할수 있으며 홍수피해도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 옮길수 있는 우 점을 가지고있지만 겨울에 물이 얼면 가동할수 없다. 때문에 이 발전소의 합리적이고 리상적인 위치는 겨울철에도 물이 얼지 않는 큰 수력발전 소의 방수로라는것이였다.

《여기가 바로 큰 발전소의 방수로입니다. 랑림 땅에서 흐르기 시작한 장자강물이 대형타빈들을 돌리고 이 방수로로 쏟아져나오지요. 그러니 물 의 온도가 여름에는 이가 시릴 정도로 차지만 겨울에는 4℃로서 상대적으로 덥지요. 이 물은 백여리밖에 있는 다음 발전소에 흘러갈 때까지도 얼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고보니 참 묘한 위치에 묘하게 띄워 놓고서 계절적제한을 받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야말로 리상적인 소형발전소였다.

《이런 발전소들을 자체의 힘으로 처음 건설할 때에는 애로와 난관이 많았을테지요?》

우리의 물음에 상대방은 예상외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물론 우리에게도 애로와 난관은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시작한 안전기관동무들의 수 고에 비하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문가도 아닌 그들이 진짜 자체의 힘으로 예비를 동원하고 자력갱생을 한 고귀한 경험에서 우리는 많은 교무를 받았습시다. 강병찬동무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숨은 공로자인 강병찬동무는 마침 자기네 발전소 배전반실에 있었다.

우리는 재작년에 환갑상을 받았지만 젊은이 들처럼 혈기가 왕성하고 열정과 패기에 넘쳐있는 그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 되어 전문분야의 일도 아닌데 띄우개 식발전소를 건설할 생각을 하게 되였습니까?》

우리의 물음에 강병찬동무는 품속에서 자그마한 수첩을 꺼내여 펼쳐들었다.

《이걸 보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물위에 뜬 극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습니다. 발전소를 10 키로와트, 15 키로와트 능력으로 건설하여도 좋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물위에 뜬 소형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놓고 전기를 생산하려고 생각하고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난방을 하면 석탄을 때는것보다 낫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학습하며 저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강병찬동무는 그날밤을 뜬눈으로 새웠다고 했다.

큰 발전소의 방수로결에 자리를 잡고있는 자기네 기관에서 이런 발전소를 건설하기만 하면 해마다 수백톤에 달하는 석탄을 실어들이지 않고도 난방과 조명을 얼마든지 보장할수 있다는 신심이 생긴것이였다.

워낙 그는 실천가형의 일군이여서 즉시에 발전소건설에 착수했다.

그러나 처음 해보는 일이다나니 설계로부터 시공과 설비조립, 시운전과 정상운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애로와 난관을 겪고 수백번의 실패를 거듭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3 년, 고심참담의 노력과 헤아릴수 없이 흘린 구슬땀의 집합체인 새형의 발전기를 물위에 띄워놓고 시운전을 했을 때 열한키로와트의 전기가 나왔다.

반신반의하던 일부 사람들조차 환성을 올리던 그날로부터 한달만에 특수강으로 만든 수차축이 부러져 발전소운영이 중지되였다.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한 탐구의 모태김은 다시 시작되였다.

강병찬동무는 전문연구기관들의 방조를 받으며 고심어린 연구를 진행했다.

열기띤 론쟁, 자재구입, 힘겨운 가공제작... 무엇이든 자체의 힘으로 애로와 난관을 뚫고 나가며 그는 끝끝내 실패의 원인을 찾아냈으며 성공의 날을 보고야말았다. 종전보다 피육통을 두배로 크게 하여 수차축이 받는 부하를 대폭 줄인 발전소에서는 최고 30 키로와트의 전기가 나왔으며 24 키로와트의 전기를 정상적으로 생산해낼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4년간에 걸치는 고심분투의 열매였으며 전문가들도 누구나 인정한바와 같이 수리공학부문의 미개척지를 뚫고들여간 자랑스런 성과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1월16일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는 첫걸음으로 강계청년발전소의 방수로에 띄워놓은 소형수력발전소들을 보아 주시고 대단한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강산이 얼어붙은 대소한의 강추위에도 세찬 동을 울리며 물보라를 날리며 기세좋게 돌아가는 수차들을 기쁨에 넘치신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경애하

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발전소를 건설하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래전에 과학자들에게 과업을 주시었는데 강계로동계급과 안전기관일군들이 해냈다고, 대단하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었다.

자강도에서 건설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이 정말로 은을 내는가, 인민들이 전기덕을 보고있는가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시여 우정 최대갈수기인 겨울철에 그것도 제일 추운 대소한기간을 택하여 찾아왔는데 이렇게 잘 돌아가니 기쁘다고 것처럼 만족해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강병찬동무는 솟구치는 걱정과 뜨거운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고 한다.

《그날은 몹시 추웠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우리가 건설해놓은 이 자그마한 수력발전소들을 보아주시느라 시간이 가는줄도 모르시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여기 강기슭에 오래도록 서계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나운 눈보라를 앞장에서 헤치시며 6천여리의 머나 먼 현지지도의 길을 다녀가시자마자 갑자기 계절이 뒤바뀌운듯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순이 지나도록 강계에서 살아오지만 대소환이 지나기 바쁘게 날씨가 풀리고 장자강의 얼음이 녹기 시작한건 처음으로 봅니다.

이처럼 신기한 자연현상을 두고 강계사람들은 누구나 말합니다.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서 대소한 강추위때 사랑의 봄빛을 안고 자강도를 찾아주셨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새겨볼수록 뜻이 깊은 말이였다.

강행군의 앞장에 서시여 사나운 눈보라는 자신께서 다 헤치시고 인민들에게는 따뜻한 봄빛을 안겨주시는 우리 장군님.

장군님께서 찾아오시였기에 북방의 사나운 겨울은 서둘러 물러가고 여기 유서깊은 장자강반에서 계절을 앞당겨 새봄이 시작된것이 아닌가.

오! 환희로운 봄이여!

력사에 류례없는 준엄한 시련의 겨울을 강행돌파하여 내 조국이 얼싸안은 희망의 봄이여.

참고 건디기만 해서 저절로 물러간 강추위가 아니고 기다리기만 해서 저절로 찾아온 새봄빛이 아니거늘 신심도 드높이 해빛밝은 락원으로 앞장서 나아가는 강계로동계급의 자력갱생의 마치소리, 기세높은 발전기소리는 장자강반이 들썩하게 울려 퍼진다, 온 나라에 메아리친다.

향도의 자옥을 따라 6 천여리.

그 머나먼 기행의 첫걸음에서 우리가 뜨겁게 받아안은 소중한 생각.

그렇구나! 장자강반에 봄이 오니 온 나라에 봄이 왔구나!

## 바람아 맞으라

(총련)김경준

맵짠 바람 귀뿌리 스치는데  
끝없는 눈길을 걸어감은  
백양나무 저끝너머에  
은이 있어 금이 있어 걷는것 아니여라  
애타게 애인을 찾는것도 아니여라

어머니 젖줄기인 저 강반에  
논두렁 끼고 오붓하게 자리잡은  
아담한 집 지붕아래서  
눈바람을 그어가자고  
밭길 서둘러 가는것도 아니여라

설레는 마음 고동치는 가슴 젖히고

내 났이 가리키는 이 길에  
오히려 마음 후덥나니  
너 잠간 멎으라  
바람아 잠간 멎으라

아, 세월을 두고  
조국을 빼앗겨  
설움에 사무쳤던 이 땅에  
해방의 새날을 불러오고저  
싸워온 자취 더듬고저 가노니  
피어린 력사를 새기고저 가노니  
너 바람아 잠간 멎으라



## 머은령에서 다시 만난 사람

서진명

### 첫인상

한마디로 말하여 고원양말공장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놀라움과 감탄의 연속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원읍거리의 남쪽 변두리, 원산쪽으로 뻗어간 올림밭이길결에 덩지 큰 기초를 내리우고 우뚝 솟아있는 지붕에 대형안테나가 설치되어있는 8층집, 사람들이 사는 고층아파트에 대비할수 없게 층고가 높아서 그런지 말이 8층집이지 20층맞잡이로 아슬하니 높아보이는 웅장한 공장건물을 올려 다보는 나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큰일을 했구나.》하는 찬사가 터져 나왔다.

공장에서 60여리 떨어져있는곳에 있는 중형발전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덕지강을 가로질러 성벽처럼 서있는 120미터의 콘크리트언제, 기차궤를 방불케하는 산을 뚫고 뻗어간 400미터의 물길굴, 발전기 3대가 만부하로 돌고있는 발전기실과 산과 들을 지나 공장까지 이어진 65리의 송전선, 이 모든 전경을 둘러보는 나의 입에서는 노래의 후렴과도 같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큰일을 했구나.》하는 말이 다시 터져나왔다.

갱입구에 《자력갱생》, 《간고분투》라는 구호를 써붙인것이 유묘하게 눈에 띄우는 수동구에 있는 탄광도 레외로 되지 않았다.

그 크지 않은 자체탄광에서 지난해만도 5,000톤의 무연탄을 생산했다니 그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었던것이다.

이 공장 로동계급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최근 10년도 되나마나한 사이에 큼직큼직하게 일떠세운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돌아보는것으로 오전시간을 보낸 나는 오후 첫 시간에 비서동무를 만나러 초급당위원회를 찾아갔다.

공장당위원회는 8층집과 넓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있는 아담한 2층집에 자리잡고있었다.

언덕이마에 하관이 좁은 체소한 50대의 사나이, 굳이 남다른 점을 찾아본다면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정기가 넘치는 눈이었다.

나는 그와 긴책상을 마주하고있자 단도입적으로 찾아온 용건을 말했다.

《유감스럽지만 난 원래 말주변이 없습니다.》

황도하비서는 눈가에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일을 좀 했다면 비서라면 누구나 해야 할 그런 일을 했겠지요. 내 대신 우리 공장 동무들을 만나보십시오. 이 몇해사이에 그 동무들이 정말 수고를 했습니다》

황도하비서와의 대화는 이렇게 말꼭지를 떼는것으로 끝났다.

책상위에 놓여있는 두대의 전화기가 승벽내기로 울리는데다 사람들이 연방 찾아와 그와 더이상 말을 주고받을수 없었다.

강물이 쉽없이 앞으로 굽이치며 흐르듯 들끓으며 내닫는 생활은 그에게 한가하게 사무실에 앉아 지나간 일을 추억할 틈을 주려하지 않았거니와 그 또한 나를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하는것을 미안한 일로 생각하는것 같지 않았다.

《오늘은 머은령원료기지에 가기로 되어있어놔서...》

황도하비서는 이런 말로 량해를 구하고나서 자리에서 움쭉 일어나는것이였다. 천리먼길을 찾아온 나의 성의가 무시당하는것 같았다.

비서가 아무리 바쁘기로서니 작가를 위해 그렇게 시간을 낼수 없단말인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내색을 내지 않고 부비서동무와 마주앉았다. 알고보니 부비서동무는 공장에서 8층집이며 발전소를 건설할 당시 군당위원회에서 일했으므로 그때 있는 일을 잘 모르고있었다.

이날 오후 부비서동무의 안내로 두세사람을 더 만났으나 취재수첩에 적어놓은 글은 한두페이지가 되나마나했다.

다만 취재에서 조금 전진이 있었다면 내가 그러럼 알고싶어하는 이야기의 샘을 터쳐줄 사람을 알게 된것이다.

이름은 한기세, 나이는 58세, 현직은 어느 회사 지사장, 8층집이며 발전소를 건설할 당시 비서동무와 이마를 맞대고 일했다는 동무였다.



그의 사무실은 공장에서 얼마 멀지 않은 길가에 서있는 아파트의 맨 밑층에 자리잡고있었다. 살림방만한 크기의 자그마한 방에 크지 않은 편수책상과 그우에 놓인 전화기 한대, 한기세지사장의 방은 작고 조용했다.

황도하비서의 방이 강물의 한복판이라면 전 지배인의 방은 잔물결이 이는 강기슭이라 해야 할런지 ...

나의 뜻밖의 방문에 어지간히 놀란데다가 내가 입에 올리는 화제인즉 돌이켜볼수록 심장의 피가 뛰게 하는 보람넘치는 그 시절의 위훈담이여서 그런지 몇마디 말을 주고 받기도전에 그의 눈에는 정기가 넘치기 시작했으며 목소리는 점점 활기를 띠는 것이었다.

## 가깝고도 가깝지 못한 사이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것은 쉽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나는 비교적 오랜 기간 황도하동무와 같이 일했지만 그를 다 모르고 그와 헤어지고말았지요.》

한기세지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가 수동식료공장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다 고원양말공장 지배인으로 조동 된것은 주체 76(1987)년 봄이었다.

공장실태는 그닥 좋은 편이 못되었다.

크지 않은 2 층집과 하모니카식의 단층집 두개, 공장건물도 락후했지만 전기와 석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그럭저럭 액상계획이나 하면서 현상유지를 하고있는 형편이었다.

황도하비서에 대한 인상도 그닥 좋지 않았다.

《우리 힘을 합쳐 8층짜리 집을 지어 공장의 면모부터 일신시킵시다.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말입니다. 그리고 후방기지와 연료, 동력, 원료기지를 자체의 힘으로 꾸려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장이 제발로 걸어나가게 합시다.》

한기세는 황도하비서가 눈을 번쩍이며 이렇게 말할 때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였다. 당비서가 공장에 가까운 (그는 그렇게 생각하였다)높은 목표를 내놓기때문이었다.

한기세는 자기보다 일년 먼저 임명되어온 황도하가 벌써 많은 일을 벌려 놓았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종업원들의 식생활을 개선해보겠다고 선박공장에 사람들을 보내 200 마력짜리 배를 못기 시작했으며 돈산에 8층짜리 집을 짓자고 벌써 기초공사를 시작했던것이다. 생산은 생산대로 하면서 벌려놓은 일을 마무리하자고 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석탄이며 전기, 원료까지 자체로 해결하자고 하니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소리같지 않았다. 함께 호흡을 맞추며 일하기가 힘들리라는것이 뻔했다.

다음해 봄, 8 층집이 기초를 갖 끝냈을 때였다.

어느날 그의 방에 들린 황도하비서는 밀도끝도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지배인동무, 우리 힘으로 수동지구에 자체탄광을 개발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에 탄이 긴장해 중요 공장, 기업소에도 미쳐 다 대주지 못하고 있는데 탄줄기를 가까이 두고있는 우리까지 탄을 주겠거니 하고 팔짱을 끼고있을수 없지 않습니까!》

한기세 역시 탄을 자체로 생산하면 좋은줄을 모르지 않고있었다.

실을 염색하자고 해도 사철 보이라를 돌려야 했다.

하지만 굴을 뚫어본 경험도 없고 설비, 자재도 없고 종업원의 거의 전부가 녀자들뿐인데 무슨 힘으로 탄광을 개발하겠는가.

한기세가 우는 소리를 하자 황도하비서는 제힘을 믿고 나가는 사람앞에는 막혔던 길도 열리고 없던 것도 다 생기기마련이라고 하면서 한번 내밀어보자고 우기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탄부출신인 김동혁을 책임자로 한 10여명으로 된 탄광개발조가 곧 그 일에 착수하였다.

8 층건물이 5 층계선에 이르렀던 주체 78(1989)년 정초였다.

날로 증대되는 전력수요를 풀기 위해 전국도처에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전달받은 일군들의 립장과 자세는 서로 달랐다.

한기세를 비롯한 거의 모든 일군들은 개울물을 막아 수차를 돌리는 소형발전소를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몇몇 실무일군을 파견해 덕지강 지류를 답사하게 했었다. 개울물은 마가을철부터 수원이 적어지고 겨울철에는 얼어붙어 전기를 일킬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있었다.

하지만 봄, 여름 가을철에 전기를 생산할수 있으니 그것을 어찌 작은 일이라 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황도하비서는 이 의견을 완강히 반대해나섰다. 물론 우리가 자그마한 물레방아식발전소를 건설한다 해도 탓할 사람을 없을것이다. 그렇다해도 갈수기나 겨울철에 전기덕을 볼수 없는 그런 절름발이식 발전소를 건설해서 뭘하겠는가. 힘에 부치고 기일이 걸리더라도 갈수기에도 관계없이 전기를 광광 생산할수 있게 덕지강을 통채로 가로막아 중형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 좋지 않는가.

발전소를 건설할 위치는 공장으로부터 70 리가까이 떨어져있는곳이었다.

덕지강물결이 팽팽히 당긴 활동처럼 (U)자형으로 3키로미터 남짓 휘어져 흐르고있었는데 휘어든 산안쪽으로 곧바로 물길굴을 뚫자는것이였다.

말하자면 십리가까이 산고승이를 감돌아 흐르는 물길을 400미터 직선길로 곧바로 열어주면 13메타락차고를 얻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 발전기 3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자것이였다.

그야말로 위치는 명당자리였다.

1월 어느날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한 안건을 가지고 오후 첫시간에 열린 초급당집행위원회는 저물녘에야 끝났었다.

8층집도 채 짓지 못했는데 어떻게 또 큰 공사를 시작하겠는가.

발전소를 건설하더라도 집을 다 지은 다음에 하자.

적지 않은 일꾼들이 조심스러우나 집요하다할 정도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었다. 그런속에 황도하비서의 의견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높이 울려 결국 회의는 발전소건설에 곧 착수하는것으로 략착을 보았다. 사무실에 들어온 한기세지배인의 마음은 보라빛어둠이 깃드는 창밖의 하늘처럼 밝지 못했다. 험심증이 도지는지 가슴이 답답해났다.

한기세는 조금전에 있는 집행위원회에서 발전소 건설문제로 논의가 분분할 때 시종 입을 꼭 다물고있었다. 물론 그 역시 반대하는 사람들의 편이였다.

하지만 지배인이라는 책임을 걸머진 사람이 아래 일꾼들앞에서 당비서와 정면으로 엿서고싶지 않아 침묵을 지켰던것이다. 성에 돌친 창밖으로 심뇌여린 눈길을 돌렸던 그는 5층계선에 이른 8층집이 눈에 띄우자 무겁게 한숨을 쉬고말았었다. 어떻게 시작한 집이고 어떤 간난신고끝에 저 집이 한층두층 일어서고있는것인가. 8층집을 짓자고 하자 공장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였었다. 천명도 되지 못하는 종업원들중 처녀들과 아주머니들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그들은 오랜기간 낮은 공장건물에서 일하는데 습관되어왔으며 8층집을 지을 힘이 자기들에게 있다는것을 한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었다. 극상 생각한것이 단층집을 한두채 더 짓거나 확장해서 새로 온 현대적인 설비를 설치하자것이였다. 또한 그럭저럭 현상유지나 하면서 편안히 일해오는데 습관된 사람들은 뒤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 비난의 대상은 황도하비서였다. (우리 공장을 양말공장이 아니라 건설기업소로 착각한게 아닌가. 공명주의자다.) 그런속에 공장이 넓은 부지에 기초를 내리고 일어서기 시작하자 황도하비서는 초급당위원회 결정으로 매달 한층씩 층막

을 올리되 층막을 치는 날은 매달 20일이라고 쪼아박았었다.

어느 마가을철엔가 층막을 쳐야 할 날인데 공교롭게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온도가 령도아래로 내려갔었다.

《어찌겠소. 온도가 낮은데 다음날로 미루지요.》

한기세는 시공을 책임진 동무가 사무실을 찾아와 우는 소리를 하자 그에 동감을 표시했었다. 사달은 그로부터 3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났다.

황도하비서가 건설현장에 나타나 그 시공책임자를 되게 다블러세웠던것이다.

《동무는 무슨 권한으로 당회의 결정을 흥정하려 드오. 버겨와 소금을 준비했다 층막을 치는 족족 버겨를 덮고 소금을 뿌리면서라도 오늘 무조건 층막을 쳐야 하오.》

하여 그런 날에도 층막은 계획대로 키를 솟구었으니 시비군들이 황도하비서의 머리우에 덧씌운 (무서운 공명주의자다)라는 또 하나의 감투는 의연히 벗겨지지 않고있었다....

그런데 8층집이 5층계선에 이른 때에 중형발전소를 건설하자고 나섰으니 시비군들의 불만이 물끓듯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했다. 한기세는 체소하고 병약한 일꾼인 황도하가 무슨 배심으로 중형발전소를 건설하자고 덤벼드는지 리해가 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비서가 제정신이 있는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당위원회 결정대로 중형발전소라는 또 하나의 큰 전선을 펼치는수밖에 없었다.

《중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돛에 충성의 선물을 드리자.》

초급당위원회는 이런 구호를 높이 들고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리하여 물소리, 새소리밖에 들리지 않던 인적드문곳으로 50여명의 청년돌격대원들이 파견되어갔었다. 유감스럽게도 돌격대원들속에는 굴을 뚫어본 사람이 한명도 없었으며 압축기도 배판도 없었다. 모든것을 령에서부터 시작해야 했었다. 자체탄광을 개발할 때처럼 수굴로 한치한치 굴을 뚫는것으로 물길굴공사가 시작되였었다. 그뒤 황도하비서를 비롯한 일꾼들이 탄광의 고철무지에서 덩굴던 남들이 쓰다버린 압축기며 폐갱속에 들어가 회수해온 배판을 되살려 전문탄광처럼 착암기로 굴을 뚫게 되였다.

허나 압축기를 돌리고 착암기로 굴을 뚫는 일에 익숙되기도 조련치 않았었다. 어떤 운전공처녀는 압축기소리가 조금만 높아도 그것이 터질것만 같아 운전실에서 뛰쳐나왔으며 또 어떤 착암공청년은 천

공구멍에 착암기 정날을 대다가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 넘어지기도 했었다.

어느날 굴이 무너진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한기세는 황도하비서와 같이 허둥지둥 공사장으로 달려갔었다. 아무리 둘러보고 또 둘러보아도 굴이 무너지는것 같지 않았다. 알고보니 청년들이 발파의 진동에 의해 곧추 서있던 동발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진것을 굴이 무너지는것으로 착각한것이였다. 한기세는 웃는것으로 그 일을 잊고말았다. 그런 일이 있는지 얼마 안있어 그는 황도하비서가 팡산에서 오래동안 일하다 공로보장을 받으며 쉬고있는 로인들을 기술고문으로 초빙해 청년들이 굴일에 익숙하도록 대책을 세웠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었다.

일군이라면 마땅히 일이 안된다고 걱정만 할것이 아니라 당비서처럼 일이 잘 풀려나가도록 대책을 세웠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가책때문이었다.

그즈음 한기세는 황도하비서의 얼굴이 눈에 띄게 축이 간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주머니에 언제나 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황도하동무는 육체적으로 볼 때 약골이었다. 한기세는 만성적인 대장염환자인 당비서가 집에 들어가면 늘 안해한테서 치료를 받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어쩌다 당비서가 집에 들리면 안해는 아래목에 놓아두었던 찜질돌을 달구어다 남편의 배에 올려놓고 찜질을 해주곤했었다. 하지만 당비서는 집보다 돌격대합숙에서 자는때가 더 많았으며 공사장과 건설장으로 드달려다니며 짬없는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무쇠로 된 사람이 아닐진대 그라고 왜 피곤해하지 않겠는가. 한기세는 때로 당비서가 벌려놓은 일을 채 마무리하지 못한채 쓰러지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을 느끼곤했는데 그의 걱정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그는 어느날 아침 당비서가 아파서 출근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좀해서는 자리에 눕지 않는 그의 성미로 보아 중한 병이 틀림없는것 같았다.

아니나다를세라 집에 가보니 비서는 배를 끌어안고 뱅뱅 돌아가고있었다.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볼듯 언제나 정기가 넘치던 그의 눈은 고통과 피로움으로 빛을 잃고있었으며 고열로 하여 온몸이 열기를 뽕기고있었다.

한기세는 급히 차를 불러 군병원으로, 군병원에서 다시 도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해갔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 수술대우에 누웠다.

의사들은 건강관리를 잘 하지 않고 몸을 차게 거둔 관계로 담낭이 불어나면서 십이지장과 유착되어

염증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조금만 지체했더라면 생명이 위험할번 했다는것이였다.

수술이 끝난뒤였다.

아직 의식을 차리지 못한 환자결에 가슴을 조이고 앉아있는 한기세에게 나이지숙한 한 의사가 한말을 그는 오늘도 기억하고있었다.

《체통은 작은데 대틀이더구만. 내가 수술부위에 주사를 놓으려하니 《나는 좀해서는 마취되지 않을 겁니다. 마취약을 많이 놔주십시오.》 하질 않겠소.》

황도하비서는 도병원침대에 누워있는 기간 어느하루도 공장과 건설장을 떠나 산적이 없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하는가, 공사는 어떻게 진척되고있으며 걸린것은 무엇인가, 전화선을 타고 한기세의 방으로 매일이다싶이 그의 목소리가 울려와 지배인은 늘 당비서와 함께 있는 심정이었다.

한기세는 퇴원하는 날 료양권을 당비서의 손에 쥐여주며 의사들이 권고하는대로 료양소에 가서 허약해진 몸을 추켜세우라고 진심으로 권고했었다.

하지만 그는 병이 완쾌되었으니 걱정말라고 하면서 공장에 오자바람으로 그전과 다름없이 일에 몸을 잠그는것이였다.마치 일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같았다. 한기세는 사업상 관계로 당비서방에 드문히 들리곤했는데 그의 방에 걸려오는 전화며 뻔질나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좋은 일보다 골치아픈 일을 더 많이 가져오곤하는것이였다. 크고 작은 시름 무거운 짐이 그의 머리를 복잡하게 했으며 어깨를 무겁게 하곤했다. 놀라운것은 그런속에서도 당비서가 한숨을 쉬는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것이였다. 악바리였다.

한기세는 어느날 저녁 당비서가 발전소건설장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의 방에 찾아갔었다. 황도하는 이마를 잔뜩 찌프리고 무슨 약인가를 먹고있었다.

또 속이 편안치 않아하는것 같았다.

한기세가 일만 일이라고 하지 말고 건강을 좀 돌보면서 쉬엄쉬엄 일하라고 권고하자 황도하는 《나도 책상앞에 까치다리를 하고 앉아 우의 지시나 되받아 넘기면서 세월을 보내면 편안하리라는것을 모르는게 아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살고싶지 않소. 생산은 생산대로 하면서 집도 짓고 탄광도 개발하고 발전소도 건설하고...고생스럽기는 해도 난 어쩐지 무거운 짐을 지고 바빠 일을 해야 마음이 편안하더구만. 사는 보람도 있고...》

황도하의 목소리는 그닥 높지 않았었다.

한기세는 진정에 넘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초불처럼 제 한몸을 불태우며 투쟁이라는 생활의 바

다에 큰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 황도하를 이 벽찬 일에서 빼어낸다는것은 그더러 살기를 그만두라는 것과 같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후의 생활은 그의 생각이 옳았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비교적 순조롭게 전진하고있던 물길굴공사가 180미터 계선에서 그만에야 전진을 멈추게 되였었다. 뜻밖의 봉락구간과 맞다들게 되였던것이다.

물길굴우의 산이 통채로 무너져내리는듯 막장을 메워버린 버력사태, 삽과 곡괭이로 버력을 간신히 한광차 퍼담으면 마치 그러기를 기다리리라도 한듯 천정에서 다시 쏟아져내리는 돌과 흙, 배관을 타고 흐르던 압축공기소리며 암벽을 두드리는 착암기소리속에 살아숨쉬던 굴진막장에 무겁게 서린 침묵...

사고현장을 돌아보는 한기세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다.

자연이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양말공장사람들의 앞을 가로막아나서며 《뭘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구》 하고 랭소를 보내는것 같았다.

그로부터 며칠후 한기세는 한 일꾼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금 황도하비서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봉락구간을 열기 위한 결사전을 하고있다는것이였다. 한기세는 막장일에 서툰 양말공장사람들의 힘으로는 봉락구간을 극복하기 힘들것이라고 생각하고있던 참이였다.

당비서가 아무리 투신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만은 제손으로 막힌 굴길을 열 엄두를 내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사람두, 죽구사는 문제도 아닌데 너무해, 너무하단 말이야.) 한기세는 내심 그렇게 언짢게 생각했으나 비서가 한몸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있는 그 막장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한기세는 잠시 이야기를 끊고 전화기를 멍하니 쳐다보았다.그런지 얼마후에야 저도 모르게 깊어졌던 추억의 세계에서 깨어난듯 수화기를 드는것이였다.나는 취재수첩장으로 달리던 펜을 멈추고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때 12시를 알리는 고동소리가 울리였다.

내가 오후에 이야기를 마저 하는것이 어떤가고 하자 한기세지사장은 《아니, 나는 할말을 다했습니다.》 하는것이였다.

《할말을 다하다니요?》

한기세지사장은 그러는 내 기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듯 조용히 한숨을 쉬며 덤덤히 앉아있었다. 둘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 침묵속에서 (이 사람이 지난 일로 몸이 피로와하고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작가동무도 짐작했겠지만.》

한기세지사장은 얼마후 어색한 침묵을 깨치며 이렇게 다시 말문을 열었다.

《나는 황도하동무와 5년가까이 일했지만 종시 심장의 박동을 맞추지 못하고말았지요. 이를테면 가깝고도 가깝지 못한 사이였지요. 의사들의 눈에는 나 역시 협심증환자이지만 황도하비서보다 내가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했지요. 물길굴의 봉락구간과 장마철의 언제공사, 65리 구간의 송전선구간과 대안에서의 발전기설비제작, 이러루한 큼직큼직한 일을 해제끼자면 황도하비서처럼 철의 배심과 의지가 있어야겠는데 유감스럽게도 나에게는 그런것이 없었지요. 결국 나는 벌려놓은 일을 끝내기도전에 여기 한적한 일터로 자리를 옮기고말았지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취재수첩을 덮으며 진심으로 사례를 했다.

했더니 한기세지사장은 허거프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고맙습니다. 인생을 헛살은 패배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비서동무야말로 인생을 후회없이 살고있다고 봅니다. 작가동무, 황도하동무에 대한 좋은 글을 꼭 써주십시오.》

## 4월로 잇닿은 나날에

나는 한기세지사장의 이야기를 통해 고원양말공장이 최근 몇해사이에 어떻게 전변의 새 화폭을 펼치게 되였는가에 대해 료관적으로나마 알게 되었다. 그런탓인지 아침 첫시간에 느꼈던 이 공장비서에 대한 좋지 못한 인상은 안개가시듯 사라져버리고말았다.

다만 내 가슴에 넘치는것은 지나온 나날보다 오늘의 일에 더 신경을 쓰고있는 일욕심많은 일꾼, 황도하비서를 꼭 다시 만나야겠다는 그 한생각뿐이였다. 나는 오후 첫시간부터 조금당위원회의 한 사무실에 앉아 부비서동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당비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제나저제나 하는속에 날이 저물었다.

이튿날아침 공장으로 일찌감치 나왔으나 비서를 또 만나지 못하였다.

조금전에 화물자동차를 타고 원료기지로 떠났다는것이였다. 쉼평 좋게 당비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어 나는 얼마후 부비서동무의 자전



거를 얻어라고 생소한 고장, 그 머은령원로기지를 찾아떠났다.

꽤청한 봄날이었다.

원산쪽으로 향한 길로 10 리 남짓 달려가니 부비서동무가 대준대로 왼쪽으로 뻗은 넓은 갈래길이 나졌으며 《송흥리》라는 길표식판이 그쪽을 가리키고있었다.

나는 그 갈래길로 자전거를 몰아갔다. 길은 크고 작은 논밭사이를 누벼가 기도 하고 산기슭에 펼쳐진 농장마을사이를 지나기도 하였다. 고개길의 중턱에 화물자동차 한대가 서있었다.

나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혹시나 해서 기관실덜개를 제끼고 무엇인가를 열성스레 손질하고있는 운전사에게 이 길이 머은령으로 가는 길이 맞는가고 물었다. 그 운전사는 잠시 일손을 놓고 나를 뵈히 내려다보았다. 나도 그를 쳐다보았다.

《머은령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얼굴이 철색인 운전사가 두툼한 입술을 벌리며 물었다.

나의 대답에 그 운전사는 눈가에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좀더 일찌기 왔더라면 비서동지를 만날걸 그랬구만요. 비서동진 한시간전에 이 차에서 내려걸어갔습니다.》

그 자동차는 바로 아침 일찌기 당비서가 타고 떠났던 차였다.

《그런데 비서동진 왜 혼자 걸어갔습니까? 기다렸다 차를 타고 가지 않고...》

《이런 일이 한두번이라구요. 우리 비서동진 기다리는 성미가 아닙니다.》

《정말 성미가 불같구만요.》

나는 외진 산골길을 걸어가고있을 당비서의 모습을 그려보며 눈가에 웃음을 지었다.

《부속을 가지러 같이 가던 동무가 공장에 갔는데 이제 좀 있으면 올겁니다.》 운전사가 초조히 시계를 보며 하는 말이였다.

우리는 길설의 풀판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운전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가 발전소건설을 시작한 첫날부터 끝장을 볼때까지 그 전투의 목격자이며 적극적인 참가자였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호기심이 동해 발전소를 건설할 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 《잘하던 이야기도 멍석펴고 하라하면 못한다고 작가동지가 갑자기 물으니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며 시뭇이 웃는것이였다.

《순서가 틀리면 뭐랍니까. 그저 생각나는대로 말해주시오》 나는 운전사 곁으로 바투 다가앉았다.

운전사 최성열은 명주숨같은 구름이 뚝뚝 떠가는 쪽빛하늘을 쳐다보며 무엇인가 잠시 생각하더니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체 78(1989) 년 정초 발전소건설을 위해 변압기를 싣고가던 일 말입니다.》 라고 말쑥지를 뻗다.

《그날아침 눈을 떠보니 눈이 무릎이 넘게 내렸더군요. 수굴로 굴을 뚫는 일을 끝장내자면 뛰니뛰니 해도 변압기를 가져다 전기를 살려야 했지요. 전기가 있어야 압축기도 돌리고 배관도 설치할수 있었으니까요. (할수 없지, 눈에 발목이 잡힌거야 내탓이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공장에 나왔지요. 《뭘하오, 떠날 준비를 안하고.》 비서동지가 휴게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하는 첫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서며 차가 뛰기 곤란하다는것을 말했지요. 그러자 비서동지는 가다가 정 곤란하면 설썰치고 슷눈길을 한번 헤쳐보자, 발전소건설은 말그대로 대자연과의 싸움인데 시작부터 뒤걸음치면 우리가 어떻게 수령님의 탄생 80 돌전으로 발전소건설을 끝내겠는가. 그리하여 우리 일행을 태운 자동차는 슷눈길을 헤치며 목적지를 향해 떠나게 되었지요. 부래산 초입구까지는 평지길이여서 크게 애를 먹지 않고 마람령기에 들어서자부터 자동차는 눈가루를 휘뿌려치며 헛바퀴질을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적재함에 실었던 삽과 눈가래를 들고 자동차에서 내렸지요.

《1211 고지의 용사들이 고지우에 직사포를 끌어올려 원썬을 족쳐듯이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령마루에 오릅시다.》

비서동지가 삽을 들고 나서며 이렇게 호소하더군요.

우리 일행은 묵묵히 눈길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삽과 눈가래로 눈을 치고 얼음을 곡괭이로 까며 우리가 한메터 전진하면 차도 한메터 전진하고...

처음에는 발이 시려들고 그다음에는 추위를 못느낄 정도로 몸이 얼어들어 감각을 다 잃을 정도였지요.

(머칠 갈길을 미룬다고 큰일이 날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고생을 사서 해야 하는가 비서동진 확실히 일을 너무 시킨다.) 하는 생각이 머리를 들더군요. 그러나 허약한 몸으로 눈을 치고있는 비서동지를 떠올려보자 나는 아니할 생각을 한듯 얼굴을 붉혔지요.

300 메터 정도밖에 안되는 령길이 왜 그리 높아 보이던지.

우리 일행이 천신만고를 하여 마람령에 올랐을때는 손목시계가 밤 10 시를 가리키고있었습니다.

마람령에서 진맥을 뽑은데다 추위까지 더해지니 두번째령인 미둔령을 극복하기가 곱절로 힘들더군요.

나는 비서동지와 같이 령기슭에 있는 미둔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으로 달려갔지요. 프락포르의 도움을 받으려고말입니다.

장작불을 때서 후끈후끈 열기가 풍기는 경비실에서 졸고있던 경비원 아바이는 밤중에 뛰여든 낯선 사람들, 온몸에 눈을 들었는데다 눈섭이며 코언저리에 하얗게 성애가 물린 우리의 물결을 보며 눈을 크게 홉뜨더군요.

아마 처음은 정체모를 사람이 내려온것이라고 생각한것 같더군요. 눈에 묻힌 산중의 고개길에서 고생을 하고있는 우리 일에 크게 감심했던지 경비원 아바이는 마을로 달려가 반장과 운전수를 불러내왔지요.

프락포르의 도움으로 우리가 미둔령을 넘어 그곳에 도착한것은 다음날 새벽 3시였지요. 나는 그때부터 비서동지와 같이 주체 81(1992)년 4월 중형발전소를 완공할 때까지 그날의 그 마람령과 같은 시련의 평마루를 얼마나 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자주 다닌곳은 평양과 대안 그리고 발전소 건설장이었습니다. 평양에는 종합대학에 다니는 비서동지의 만아들이 있었고 어느 중앙기관에서 일하는 처남도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장에서 30분이면 가닿을수 있는 산곡에는 비서동지의 어머니와 병으로 장기치료를 받고있는 둘째아들이 있었습니다. 발전기설비를 실으려 대안으로 가자면 어차피 평양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서동진 아들과 처남네 집에 들릴 시간을 내려 하지 않았지요.

《시간이 급한데 빨리 가자구.》

비서동지가 얼마나 서둘러됐으면 내가 매번 비서동지의 아주머니와 이웃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채 평양을 지나치곤했겠습니까. 그런탓에 비서동지의 아주머니가 아들한테 전해달라던 간식보따리가 대안을 거쳐 고원으로 되돌아온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작가동진 아마 두줄기 궤도우로만 달리는 렬차가 아닌 조금만 시간을 내면 그 어디든 갈수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사사일은 조금도 보지 못했다고 하면 잘 믿어지지 않을겁니다. 언젠가 산곡에 계시는 비서동지의 어머니가 몹시 앓는다는 소식이 왔을때도 비서동진 끝내 시간을 내려 하지 않았지요. 오죽하면 우리 동무들이 나의 차를 《무궤도최대급행자동차》라고 불렀겠습니까. 어느 여름날엔가 우리가 대안에서 변압기를 실고 평양에 잠시 들렀을 때였

습니다. 그날따라 비서동진 손목시계를 보며 몹시 초조해하더군요.

나는 고원으로 오는 길에서야 비서동지가 평양에 들렀을 때 위급한 병으로 앓고있는 처남의 병문안도 운행길이 바빠 그만두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지요.

《비서동진 너무합니다. 어쩌면 그럴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나는 무례하다 할 정도로 비서동지에게 막 들이댔습니다.

했더니 비서동진 달리는 차창너머를 바라보며 담배만 빼금빼금 태우더군요.

그러더니 폭 가라앉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성열이, 그러는 내 마음은 편한줄 아나. 나라고 왜 아들을 귀해하고 처남을 위해주고싶은 생각이 없겠나말이야. 그렇다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면 공장일을 언제 다 하겠나. 나는 벌려놓은 일을 다하기전에는 일체 다른 생각을 다 잊기로 했으니 그리알라구.》

우리가 1 차가물막이뚫공사와 2 차가물막이뚫공사를 끝냈던 주체 79(1990)년 여름이었지요.

6월초에 들어서서부터 하늘에서는 런던 비가 쏟아져내렸습니다.

우리는 너나없이 7, 8월을 장마철로 알고있지요. 그런데 그해따라 장마철이 6월로 당겨질줄이야 어이 알았겠습니까.

낮게 드리운 하늘에서는 비가 물을 쏟아붓듯 내리고 가물막이뚫은 불어난 물에 의해 절반이상 잠기고말았지요. 비가 제발 멎었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은 알바가 아니란듯 비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한본새로 쏟아졌습니다.

눈에 띄게 불어나는 산골물은 집채같은 바위돌을 굴리며 점점 사납게 울부짖고 가물막이뚫은 물에 녹는 얼음덩이처럼 강물속에 잦아드는것 같았습니다. 뚝이 터지는 경우 가물막이뚫을 이룬 수만개의 흩가마니가 떠내려가는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것은 물길굴이었지요.

뚝이 터지는 경우 불어날대로 불어난 강물이 물길굴로 쏠릴것은 불보듯 명백했습니다. 그러면 세인트포장을 하지 않은 물길굴이 수해를 크게 입을수 있었지요. 더우기 봉락구간의 무른 암석층이 무너져내리면 짧은 시간에 회복할수 없는 엄청난 사고가 날수 있었습니다.

불이 황황 이는 눈길로 금시 터져나갈것 같은 가물막이뚫과 그너머 물길굴을 바라보던 비서동지가 바줄 한끝을 허리에 매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장마피해를 막기 위한 결사전이 벌어졌지요.

비서동지와 리건차동지 그리고 몇몇 청년들이 서로 부축하고 이끌며 물길 굴쪽으로 헤엄쳐가 강기슭의 나무에 바줄을 매놓았습니다. 바줄로 강의 랑쪽기슭을 이어놓자 홍수일, 함춘옥, 장정녀, 연옥실, 김성실, 리혜영, 최수길, 윤춘렬, 신혜경, 강선명 동무들이 한손으로는 바줄을 쥐고 다른 한쪽에는 통나무며 흙가마니를 메고 강물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한 어린 처녀는 굴러내리는 돌을 피하는 정신에 그만 바줄을 놓아버리고 강물속에 말려들어 죽을번 했지요. 우리는 누구라없이 장마비로 불어난 강물속에 뛰어들어 발전소언제를 지켜낸 전세대 청년들의 위훈담을 책에서 읽으며 자라난 세대들입니다.

하지만 그 투쟁기를 읽으면서도 그 영웅들결에 감히 우리자신을 세워보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날은 우리자신이 그 영웅적인 생활의 창조자로, 당당한 주인으로 되었지요.

그것이 어찌 단순한 물길굴이었습니까.

그것은 변압기를 실은 자동차를 떠밀며 툭아오르던 그 눈덮인 마람령이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한치한치 열어가던 그 아슬아슬한 봉락구간이었으며 얼어드는 손발을 녹일새없이 광차를 밀어가던 그 무수한 낮과 밤이기도 했지요. 그것은 또한 탄생 80 돌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탄생 50 돌을 맞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려는 우리의 더운 땀이 스며있고 그날을 그려보는 우리의 밝은 눈동자가 비껴있고 오로지 그날을 위해서만 사는 피더운 심장이 뛰고있는 우리의 살붙이나 다름이 없는것이었습니다. 그날 가물막이뚝을 위협하는 강물과 쏟아지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길굴 입구를 통나무로 가로지르고 방탄벽을 쌓듯이 흙가마니를 쌓아올리는 결사 대원들속에는 낯설은 청년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 그들은 광산동무들이었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그날 점심식사를 하려 집으로 가던 광산당비서 태명수 동지는 우리의 투쟁모습을 보고만 있을수 없어 그길로 달려가 광산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달아주었던것입니다.

나에게는 지금도 사품치는 강물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우리와 한덩어리가 되어준 그들의 미더운 모습이 눈가에 뜨겁게 어려오곤합니다.

그들이야말로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내 나라, 내 조국에서만 볼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기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사적인 노력에 의하여 물길굴은 끝내 살려냈지만 가물막이뚝은 황포해질대로 황포해진 강물에 떠내려가고말았지요.

그것이 너무 분해 녀동무들은 엉엉 소리내어 울기까지 했지요. 불행중 다행이라 할가, 나는 안도감과 상실의 아픔, 기쁨과 괴로움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감정의 파도가 순식간에 가슴을 휩쓸고 지나가는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추운줄도 무서운것도 느끼지 못한채 강물속을 뛰어들던 전투원들은 탕개가 풀린듯 강기슭 여기저기에 주저앉았지요.

강변의 여기저기에서 모닥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물그물 타오르는 모닥불결에 앉아 화락하니 젖은 옷을 쥐어짜고있는 비서동지의 모습이 류달리 내 눈길을 끌더군요. 추위에 파랗게 언 얼굴이며 헝클어진 머리카락, 어깨가 축 처져내린 그 모습은 가뜩이나 체소한 몸을 더 작아보이게 했으며 십년이나 걸늘어보이게 했습니다. 가물막이공사를 빨리 끝내야 장마철전에 언제를 타입할수 있다고 지는해, 뜨는 달을 공사장에서 맞고 보내던 비서동지였습니다. 장마비에 가물막이뚝이 걱정되어 평양에서 회의도중에 달려온 비서동지였지요.

모닥불을 돌굴 마른 나무가지를 얻어불가해서 강기슭을 돌아치던 나는 팔총형쪽에서 달려오는 작은 키에 몸이 달마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대안에 가서 발전기설비제작을 맡아 보고있는 리영옥동무였습니다. 기분이 언짢았던탓에 나는 오래간만이지만 고개를 약간 숙이는것으로 인사를 받았지요.

가물막이뚝이 떠내려간게 사실인가는 물음에도 《눈으로 보구려.》 하고 통명스레 대답했습니다.

비서동지가 어데 있느냐는 물음에도 《왜 그러오?》 하고 무뚝뚝하게 반문했지요. 리영옥동무는 내 심정이 십분 이해되는지 불손한 나의 태도를 탓할대신 나에게 대안에서 급히 오게 된 용건을 이야기해주더군요.

그 내용인즉 이런것이었습니다.

대흥단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고 발전소를 건설하기때문에 구조물공사를 하기도전에 발전기설비제작이 쭉쭉 풀리고있다, 우리 공장도 당에 보고를 올렸으면 한다, 더우기 우리 공장은 다른 기업소와는 달리 중형발전소를 건설하기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구조물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나가고있는데 발전기설비제작이 잘 진척되지 않아 건설이 빨리 추진되지 못하고있다, 당에서 조치를 취해주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 뉘전으로 중형발전소건설을 끝낼수 있다는 내용으로 당에 보고를 올리 자는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띄우는것 같았습니다. 이 제의서 문제야말로 뜻밖의 피해로 하여 괴로와하고있는 비서동지의 무



거운 마음을 얼마만이라도 가볍게 해줄수 있으리라는 생각때문이였지요.

나는 리영옥동무를 앞세우고 비서동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귀가 되어 리영옥동무가 하는 말을 듣고있는 비서동지의 얼굴표정을 결눈질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툭툭 소리를 내며 타고있는 모닥불을 보고있는 비서동지의 기분상태를 짐작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때문에 우정 대안에서 왔겠소?》

비서동지가 불쑥 묻는 말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영옥동무.》

비서동지는 잠시 동안을 두고나서 조용조용한 어조로 말을 계속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오. 가령 동무가 아버지가 준 돈으로 선물을 마련해 생일을 맞는 아버지에게 드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진짜 선물이겠소. 우리가 만약 우에다 손을 내민 덕으로 발전소를 세운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공장 로동계급이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수령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한단말 이요.》

나는 삽시에 모닥불의 열기가 내 얼굴에 집중되는것 같았습니다.

충성과 효성이란 말은 예 오늘 변함이 없이 울리지만 나는 비서동지처럼 이 말의 참뜻을 깊이 새겨보기는 처음이였습니다.

세월이 멀리 흘러간대도 나는 장마물이 가물막이뚝을 뒤흔들여간뒤의 강변과 그 강변의 모닥불가에서들은 비서동지의 말을 잊을것 같지 않습니다.》

최성열은 잠시 말을 끊고 담배를 붙여물었다.

중천에 뜬 태양은 호듯호듯 따듯한 별을 퍼붓고 하늘가 어데선가 종다리가 우짚었다.

《내가 지내 말을 많이 한게 아닙니까?》

최성열은 이렇게 말하며 열적은 웃음을 지었다.

《좋은 이야기는 길어도 짧게 생각된다는 말이 있듯이 최동무이야기는 들을수록 감동이 되누만.》

《그렇다면 이야기를 좀더 해야 되겠구만요.》

최성열은 담배를 끄고나서 말을 다시 이어갔다.

《...전선공장에 전기줄을 가지러 갔다가 출고시간을 놓쳐 다리밑에 차를 세워놓고 비서동지와 온밤 운전칸에서 새우던 때며 일주일간 잠을 꼬박 자지 못한채 언제콩크리트라이프를 하던 일, 그 시절의 사연을 다 말하자면 아마 끝이 없을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잊혀지지 않는것은 발전소건설이 마감대목에 이르렀던 주체 80(1991)년말에 있는일입니다.

영광의 그 2월과 4월은 손가락을 꼽을수 있을만치 눈앞에 박두했는데 해야 할 일은 많고 많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발전기설 기초공사를 다그치고 대안에 서는 발전기설비제작에 불이 붙고...

발전기설 기초공사는 파넬 토량만해도 3,000립방이나 되었지요.

강쪽으로는 흙과 돌이 범벅이여서 파내기가 좀 낫지만 물길굴이 있는 산쪽은 암반으로 이루어져 한치한치 착암기로 뚫어 발파를 해야 했습니다.

우물속처럼 발전기를 놓을 구멍이 깊어지자 팔이 닿지 않아 유압식 굴착기가 무용지물이 되었지요.

오랜 연구 끝에 강쪽으로 길을 내고 유압식 굴착기를 끌어들여 기계가 다시 은을 내게 하는데도 비서동지의 숨은 노력이 컸습니다.

비서동지는 언제 잠을 자고 언제 깨어나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늘쌍 현장에 붙어살다나니 건강상태가 말이 아니였습니다.

급성위장염에 위경련까지 겹쳐 때없이 배를 안고 돌아갔고 과로에 불면증까지 와 한두시간 잠을 자는 경우에도 모르핀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일이 치질 때마다 비서동지는 《힘을 내여 다그치기요, 대안에서 당장 1 호발전기가 도착할텐데.》 하고 전투원들을 고무하곤했지요.

물길굴의 콩크리트라이프도 끝내고 언제도 일떠선 당시의 조건에서 발전기설비가 도착한다는 말은 조업의 날이 다가왔다는것을 의미했으므로 그 말은 우리 공장 전투원들의 힘과 사기를 돋구어주는 촉매제와도 같았습니다.

그게 아마 주체 80(1991)년 12월 19일이었던가 봅니다.

대안에서 리영옥동무가 보내온 전보에는 반갑지 못한 소식이 적혀있었습니다. 비서동진 《설전에 1 호발전기제작을 끝낼수 없음》라는 전보지에 적힌 글발을 몇번이고 보고 또 보더군요. 그러더니 나를 보고 래일 당장 대안으로 가자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 이튿날 우리는 대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설명절을 열흘 앞두고 말입니다. 우리가 대안에 나타나자 리영옥동무는 전보를 받지 못했는가 고 하면서 눈이 휘둥그래지더군요.

《오늘부터 나도 이 성열이도 동무의 대원이요. 밤을 패라면 밤을 패고 심부름을 하라면 심부름을 할테니 설전으로 1 호발전기조립이 끝나게만 해주오.》

비서동지가 이렇게 통조로 말하자 영옥동무는 난처한 표정만 짓더군요.

그날부터 비서동지는 맹활약을 벌였습니다. 현장에서 조립공들과 함께 발전기도 조립하고 로동자들이 추위하면 난로불을 피워주기도 하고 또한 가공과 조립직장의 직장장과 부문당비서를 만나 설전에 1호발전기설비제작을 못끝내면 2월 16일전에 1호발전기의 시운전을 보장할수 없고 당앞에 결의다진대로 명년 4월 15일에 발전소를 조업할수 없다, 그러니 자기 일처럼 도와달라 하고 선전사업을 들이댔지요. 비교적 순조롭게 돼가던 설비조립이 암초에 부딪친것은 12월 29일이었습니다.

현장창고를 아무리 뒤져도 발전기축매달을 부울석과 팽각관으로 쓸 25미리 동관이 없었지요. 공장에서 생산계획을 끝낸 년말인데다 새해에 쓸 자재가 미처 도착하지 못한것이기때문이었습니다. 이웃공장에도 가보고 중앙자재공급위원회에 알아보아도 며칠 기다리라는것이었습니다. 30일밤 나는 물론 설비추진조의 영옥이네들도 설전에는 안되겠다고 나왔지요.

그런데 기적은 그날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행여나 해서 또 어느 한 공장에 찾아갔다 밤이 깊어 돌아오던중 비서동지는 대안구역당 문수길부장네 집에 찾아갔지요. 아무리 잘 아는 사이라도 밤이 깊어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것이 실례라는것을 비서동진들 왜 모르겠습니까. 선반공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역당의 한개 부서를 책임진 일군으로 자란 문수길동지는 그밤중으로 비서동지와 같이 밤교대작업을 하는 현장로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동무들, 고원에서 온 당비서동무가 설비가 채되지 않으면 설명절도 우리 공장에서 쇠겠다는데 도와줄 방도가 없겠소?》

진정은 진정으로 통하는가 봅니다. 여기저기서 쓰다가 남아 조금씩 건사해두었던 석과 동관이 나타나 드디어 중지했던 설비제작을 끝내게 되었지요.

우리가 1호발전기설비를 두대의 자동차에 싣고 대안을 떠난 때는 12월 31일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앞차에는 내가 타고 뒤차에는 장영민동무가 모는 차가 따라섰지요. 거리의 여기저기에는 《새해를 축하합니다》라는 글발이 나붙어있었으며 활기에 넘쳐 오기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명절기분이 확연하였습니다. 낮게 드리운 재빛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우리의 앞에는 얼음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눈이 쌓여 미끄러운 천리먼길이 놓여있었지요. 뒤바퀴에 쇠사슬을 차서 그런지 평양을 거쳐 무지개동굴앞까지는 무사히 당도했지만 동굴위구에

쓴 《수리중》이라는 글쪽을 보는 순간 앞이 다 캄해지더군요. 뒤로 되돌아갈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량난이 었습니다.

굳이 출로를 찾는다면 마식령으로 뻗어오른 옛날길을 달리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찔한 절벽결으로 뻗어오른 고개길은 오랜 기간 차들이 안다녀서 도로상태가 말이 아닌데다가 무릎이 넘게 눈까지 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있을 공장동무들이며 더우기는 4월로 잇닿은 나날을 하루하루 손꼽아가며 분과 초를 아껴가는 비서동지에게 대안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차마 할수 없었습니다.

《성열이, 3대각오가 생각나나?》

비서동지가 운전실에 멍하니 앉아있는 나에게 밑도끝도 없이 묻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눈만 습벽이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가는 얼어죽고 굶어죽고 맞아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 저 마식령이 마치 우리에게 그런 각오가 돼있는가고 묻는것만 같구만. 성열이, 한번 용기를 내어 넘어보지 않겠나?》

그리고는 나를 뻘히 쳐다보더군요.

《마식령말입니까?》

나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소리로 대답했지요.

불현듯 변압기를 싣고 마식령을 넘던 그때 일이 생각나더군요.

비서동지는 가자고 우기고 나는 못가겠다고 뻘대고, 비서동지의 고집으로 떠나는 했지만 그때 내심장은 전혀 뛰지 않았었지요. 정 가겠으면 가자. 가다가 못가게 되면 당비서가 책임지겠지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경우와는 달리 나는 내심장이 뛰는것을 느꼈습니다.

《가잡니까. 까짓거 잡시다.》

내가 선선히 응해나서자 비서동진 그러는 나를 한참이나 쳐다보더군요.

마치 처음 보기라도 하는듯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동차는 숫눈에 덮인 하얀 마식령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령길은 첫시작부터 애를 먹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나를 내놓고 모두 차에서 내렸지요. 비서동지는 오른쪽 바퀴를 말고 리학모동지가 왼쪽 바퀴를 말고...

비서동지네가 차보다 먼저 앞질러가며 발과 손으로 바퀴가 굴러갈수 있게 눈을 치고 나는 그 길로 차를 몰아가고 이렇게 한메터, 한메터 툭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높은 산중턱과 아찔한 벼랑

터를 에돌아갔는데 바람받이쪽에는 눈이 얼마 없는가하면 그렇지않은곳에는 바람에 날려온 눈이 허리치게 쌓여있었습니다. 한메터, 또 한메터, 어찌보면 차가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앞서가며 솟는길을 헤쳐가는 비서동지네들에 의해 끌려가는것 같았지요. 아차 잘못하면 차바퀴가 얼음판에서 밀리어 벼랑으로 떨어질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길이었습시다. 나는 온 정신을 차를 몰아가는데만 쏟은 나머지 비서동지가 너무 더워 솜옷을 벗어 길옆의 눈우에 놓은줄도 몰랐지요. 몹시 긴장했던지라 비서동지도 솜옷을 벗어놓은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것을 몰랐던것 같습니다. 차가 마식령마루에 올라서자 찬바람이 갈개기 시작하더군요. 그제서야 비서동지는 솜옷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벌써 솜옷을 벗어놓은곳으로부터 40 리 가까이 전진했을 때였지요. 우리 일행중 누군가가 솜옷을 찾아오겠다고 했으나 비서동지는 잃은 솜옷은 다시 구할수 있어도 잃은 시간은 다시 찾을수 없다고 하면서 갈길을 재촉했답니다. 령을 통과하는 전기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 설비를 실은 자동차를 가지고 무사히 령을 넘어야겠다는 그 한생각뿐이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 일을 때없이 회고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하지요. 사람이 한생애 조국과 인민, 당과 수령을 위한 일에만 전심전력하며 자신을 까맣게 잊고 산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될것인가 하고말입니다. 아마 그런 시간이 긴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 한생을 보람있게 산 참된 사람일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눈에 묻힌 마식령을 넘으며 목은 해를 보내고 새해 1992 년을 맞이했지요.

마식령을 내린지 얼마 안있어 우리 차는 교통안전원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고원양말공장차가 얼음길, 눈길 가리지 않고 짜다닌다고 해서 무슨 소리가 했더니 틀린 소리가 아니구만. 누가 오늘 같은날 차를 몰고 마식령을 넘으라고 했소. 그가 누군가말이요.》

젊은 교통안전원은 눈을 부라리며 따지고들었지요.

《운전수동무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나를 비판하십시오.》

교통안전원은 좀전에 욱한 주인공이 다름아닌 우리 당비서동지라는것을 알자 몹시 아연해하더군요. 비서동지는 그 교통안전원에게 우리 같은 교통규정 위반자때문에 안전원동무가 명절날도 쉬지 못하니 정말 면목이 없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있는 일에 대해서도 요약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몹시 감동된 그 교통안전원은 낮은대로 새해인사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깎듯

이 거수경례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가 원산시가지를 벗어나자 우리는 차를 멈춰세우고 운전실에서 간단히 아침식사를 했습니다. 새해를 축하해 술도 한잔씩 했지요.

그때 비서동진 우리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설명절을 운행길에서 맞는 사람도 흔치 않을것이다, 두고두고 오늘을 추억하자, 오늘 나는 정말 기쁘다, 8 층집이 일어선것도 기쁘고 자체탄광에서 탄이 쏟아져나오는것도 기쁘고 발전소가 완공단계에 이른것도 기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것은 그 나날에 우리 동무들 모두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충신으로 자란것이다. 기대앞에서 양말이나 짜던 섬약한 처녀들과 아주머니들이 집도 짓고 언제도 쌓고 깊은 산중에서 전주목도 끌어내리는 어엿한 녀장부로 자라나지 않았는가. 여기 앓은 성열이, 학모, 영육이도 그새 얼마나 쇠소리나는 일꾼으로 성장했는가.

나는 그때 비서동지의 말을 들으며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결사옹위할 제일 충신으로 자라난 우리 동무들의 미더운 그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1 호발전기를 2 월 16 일전으로 조립하여 시운전을 보장하는 일은 그것을 대안에서 제작하여 가져오는것 못지 않게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발전기를 조립하자면 의례히 천정기중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져올데도 없었고 설사 있다해도 그것을 설치할 시간이 없었지요. 기중기대신 삼마대를 설치하고 비서동지가 차정남동지와 같이 활차에 감은 와이어야쁘로 8 톤이나 되는 육중한 회전자를 들어올렸을 때였지요. 갑자기 로프가 끊어지면서 8 톤짜리 회전자가 팡 하고 비서동지 곁에 떨어졌지요. 그 순간 나는 전율하듯 몸을 떨며 눈을 딱 감았습니다.

위험은 벼락같이 나타났다 벼락같이 사라졌지만 몸은 그냥 떨리기만 하더군요. 삼마대로부터 2 메터남짓 떨어져있던 내가 그렇게 놀랐으니 회전자를 머리우에 이고 손잡이를 돌리고있던 비서동지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비서동진 전혀 놀란 기색을 나타내지 않더군요. 담배를 한대 피운후 다시 그 일에 달라붙어 그 문제거리의 회전자를 끝내 발전기 본체에 넣고야말았지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 50 돌이 되는 날인 2 월 16 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1 호발전기조립도 거의 끝나갈 때였습니다.

타빈축과 발전기축만 연결하면 수문을 열어 발전기를 돌려볼수 있었지요.

그런데 정작 연결하자고보니 두축사이가 30 센치나 짧은게 아니겠습니까.

방도는 두축사이를 카프링으로 연결하는것이였습니다. 곧 무게가 1 톤이나 되는 카프링소재를 주물하고 가공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지요.

별의별 고생을 다하며 런 이틀을 꼬박 지새운뒤에야 우리는 건설장에 도착할수 있었지요. 카프링으로 타빈축과 발전기축을 연결하고나니 15 일밤도 깊어 새날로 주말을치고있었습니다. 드디어 물길굴로 물을 통과시켜 1 호발전기를 돌릴 시각이 다가오고있었지요. 과연 물의 힘에 의해 타빈축이 돌고 발전기가 돌면 전기가 나오겠는지, 의혹과 기대가 교차 되는속에 가슴만 두근거리었지요. 처음은 물을 조금씩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발전기를 천천히 돌리면서 축의 중심을 맞추면서, 그런 뒤에야 물을 통과시키게 했습니다. 발전기가 바람을 일쿠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둔중한 진동에 발전기실 바닥이 흔들리고 그보다 몇갑절 우리 가슴이 더 흔들렸습니다. 드디어 발전기실에 설치한 배전반에서 계기들이 움직이고 발전기실에서 흘러나온 전기에 의하여 전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또 보아도 그 불빛은 우리 발전기가 안아 낸 우리의 불빛, 우리의 전기였습니다.

순간 발전기실에 모여있던 우리 동무들속에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 습니다.

《만세!》, 《만세!》

나는 랑불을 타고 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씻을념도 잊고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처녀들은 너무 기뻐 서로 얼싸안고 돌아가고 남동무들은 비서동지를 목마에 태우고...

나는 우리 발전소의 첫 불빛을 보게 된 력사적인 시각을 영원히 기억하려고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계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50 돛인 주체 81(1992)년 2 월 16 일 새벽 4 시를 가리키고있더군요.

우리는 그후 련이어 2 호발전기와 3 호발전기를 조립하였지요.

그날은 중형발전소의 탄생을 온 나라에 선포할 조업식을 눈앞에 둔 4 월 9 일이었습니다.

나는 아침에 비서동지가 몸이 불편하여 공장에 출근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지요. 조업식을 앞두고 미진된 일을 처리하느라고 지내 몸을 혹사한 탓이었지요. 오후 2 시경 초급당부비서동지가 나를 찾아 운수반으로 뛰어왔더군요.

좁전에 군당책임비서동지가 비서동지를 찾더라면서 집에 가서 보고 심하지 않으면 군당으로 태워가자고 하기에 나는 서둘러 차를 몰고 공장을 나섰 습니다. 비서동지는 부비서동지의 말을 듣더니 앓던 사람 같지 않게 서둘러 옷을 입는것이였습니다.

바로 이때 밖에서 인기척소리가 나더니 군당책임 비서동지가 방안에 들어서는데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병문안을 할겸 급히 알릴 일이 있어서 왔소.그래 몸은 좀 어떻소.》

책임비서동지는 자리에 앉으며 눈에 띄게 수척한 비서동지를 유심히 바라보다더군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피곤에 몰려 그저 하루이틀 휴식했을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놓이누만. 하기가 비서동문 이제까지 아파도 앓을새가 없었지, 안그렇소?》

책임비서동지는 이렇게 말하며 눈가에 조용한 웃음을 피우더군요.

방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책임비서동지는 몸가짐새를 바로 하더니 《비서동무, 기뻐하오.》하고 정중 한 어조로 말을 계속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당위원회책임일군으로부터 고원양말공장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최근 몇해동안에 공장건물도 새로 짓고 탄도 자체로 캐고 어버이수령님탄생 80 돛을 맞으며 중형수력발전소건설을 완공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자력갱생공장>이라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이 사실을 어버이수령님께 보고 드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대단히 큰일을 했습니다.>라고 과분한 치하를 주시였습니다.》

나는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습니다.

아직은 발전소의 조업식도 하지 못했고 탄생 80 돛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만수축원의 인사도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그렇듯 과분한 치하를 먼저 보내주신단말입니까.

심장을, 아니 온몸을 뒤흔드는것과 같은 충격적인 그 소식은 나를, 방안에 둘러앉은 사람들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듯싶었습니다.

숨결소리가 절로 높아지고 생각에 앞서고 말에 앞서는 뜨거운 격정으로 하여 눈곱에 핑그르 이슬이 고였습니다.

나는 눈을 습벽이며 애써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했습니다.

바로 이때 혹 하는 흐느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깨를 가볍게 떨며 울고있는 사람은 비서동지였습니다.

추위도 추운줄 모르고 힘겨워도 힘든줄 모르고 생명의 위험앞에서도 무척처럼 심장이 드놀줄 모르던 비서동지가 어린애처럼 울고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 또한 그렇게 울며 나는 그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최성열이 이야기를 마친줄도 모르고 한동안 그자리에 못박힌듯 앉아있었다. 그러는 나의 눈앞에는 겉보기에는 무뚝뚝해보이던 사람, 당과 수령을 받드는 그 티없는 충성심으로 하여 아름답게 돋보이는 한 당일군의 참모습이 우렁이 안겨오는것이였다.

## 머은령에서

오전 11시경 마침내 자동차는 고르로운 동음소리를 내며 령길을 치달아 오르기 시작했다.

아늑한 보금자리 바라지 않네  
화려한 꽃다발도 바라지 않네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공장에 갔던 그 젊은이가 적재함우에서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달리는 자동차의 앞시창으로 산비탈에 드문드문 서있는 이깔나무며 떨기나무숲, 계곡아래로 굽이쳐흐르는 푸른 물줄기가 엇갈리며 비껴들었다. 조금전에 최성열동무한테서 좋은 이야기를 들은탓인지 뒤설레는 가슴을 도무지 진정할수 없었다. 령길을 40 분남짓 치달아 오르자 민밋한 등판이 펼쳐졌다.

그 등판길을 얼마쯤 달리노라니 곧추 뻗어간 길에서 아지를 치듯 골짜기 아래로 뻗어내린 길이 보였다.

최성열은 갈림길에서 잠시 차를 세우고 운무속에 가리워 어렴풋하게 보이는 팔봉산이며 그곳까지 펼쳐져있는 등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서부터 머은령등판이 시작되어 저기 팔봉산까지 잇닿아있는데 그 면적이 거의 200 정보나 되지요.》

《그러니까 저게 다 양말공장 원료기지겠구만.》 나는 놀라움과 감동이 어린 눈길로 끝간데없이 펼쳐진 등판을 둘러보고 또 둘러보았다.

《먼저 여기 제남골에 들러 우리 공장 염소떼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대단합니다.》

최성열은 차머리를 골짜기길로 돌렸다.

자동차는 2키로미터남짓 내리반이로 달려서야 벽계수가 흐르는 골짜기바닥, 평퍼짐한 공지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리자 오른쪽 언덕우에 한일(-)자로 길게 서있는 널판자로 아담하게 지은 염소우리가 안겨왔다.

나는 알맞춤한 키에 얼굴이 동그스름한 축산작업반 통계원 윤춘렬동무와 같이 염소우리를 돌아보았다. 염소우리는 경비실과 조리실, 각각 두칸식의 새끼칸과 어미칸, 청사료칸에 잇달려있는 여덟칸의 우리, 그앞에 잡관목으로 울바자를 둘러친 놀이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가 염소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고 물자 윤춘렬은 마침 오전방목시간이 끝나 염소들을 부르려던 참이라고 하면서 맞은편 산을 향해 호각을 부는것이였다. 그러자 산등판 여기저기서 《매애》, 《매애》 하는 염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거참, 신통하구만, 호각소리에 염소들이 대답하는걸 보니...》

내가 이렇게 말하자 윤춘렬은 눈가에 웃음을 피우며 말을 계속했다.

고것들이 얼마나 명물인줄 아세요? 기분이 좋을땐 발을 구르며 춤까지 춘답니다. 그리고 물쿠는 여름날엔 아무리 찾아도 떨기나무 그늘속에서 나오지 않아 애를 또 얼마나 먹인다구요. 염소를 잃은줄 알고 온 산판을 참빚훔듯한적도 있답니다.》

《염소가 사람처럼 더위를 탄다는 말이겠소?》

나는 사양공들의 애간장을 태우며 나무그늘속에 숨어있는 염소의 모습이 떠올라 즐겁게 웃었다.

얼마 안있어 흰구름떼가 내린듯 골안은 염소무리로 덮이였다.

염소들이 놀이장을 거쳐 각기 자기 우리로 들어가자 사양공들은 먹이통에 소금을 가져다주느라고 바빠 돌아치고있었다.

내가 모두 몇마리나 되는가고 물자 윤춘렬은 방목을 처음 시작할 때는 30 마리였는데 지금은 200 마리 계선을 넘어섰다는것이였다.

그중 울봄에 새끼를 낳을 어미염소만해도 40마리나 된다고 자랑을 하면서 1,000 마리개선을 돌파할 때가 멀지 않았다고 확신에 넘쳐 말하는것이였다.

(30 마리로부터 200 마리, 또 1,000 마리라.)

나는 윤춘렬이 어렵지 않게 말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늘어날 염소마리수를 되뇌여보며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감동을



받은것은 이 외진산중에 전변의 오늘을 안아오기 위해 황도하비서를 비롯한 이 공장 로동계급들이 바쳐온 그 헌신적인 투쟁이야기였다.

4년전 개척의 첫삽을 박을 때만해도 여기 산중에는 집도 전기도 물도 없었다 한다. 그들은 산중에 집도 짓고 전기도 끌어오고 물도 끌어왔으며 30마리의 염소를 사양하기 시작했었다. 비오는 날이면 건강치 못한 염소들을 방목무리에서 떼내어 우리안에 두고 맛있는 풀을 뜯어다 《특별봉사》를 했으며 찬바람이 부는 밤이면 염소우리에서 담요를 같이 덮고 자기까지 했었다.

또한 밤중과 새벽에 새끼들의 배를 일일이 만져보고 배가 끓은 새끼들은 어미염소한테 가져다 보충젖을 먹이기도 했었다.

어느날 저녁엔가 10마리의 염소가 갑자기 쓰러졌었다.

방목공들은 염소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했으며 맥이 풀려 일어설 기운조차 내지 못했다.

이튿날 황도하비서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었다. 당비서는 처음하는 일이니 무슨 일인들 없겠느냐고 고무해주었으며 염소사양관리에 필요한 책도 한보따리 안겨주고 약과 함께 수의사도 한명 보내주었었다. 사양공들은 다시 분발하여 일어섰다. 낮은 낮대로 염소방목을 하고 밤에는 횃불을 켜들고 산에서 나무를 찍어내려 제재를 했었다. 건조한 우리와 깨끗한 공기를 좋아하는 염소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염소우리를 새로 짓기 위해서였다. 하여 오늘과 같은 염소우리가 번듯하게 일어서고 사양공들모두가 염소박사가 되었던것 이다. 점심식사후 나는 팔봉산기슭에 있는 똑감자밭을 돌아보려 갔다는 황도하비서도 만날겸 머은령원로기지를 돌아보려고 계남골을 떠났다.

자동차가 등관길에 들어서자 길량쪽으로 무연하게 펼쳐진 풀판이 안겨들었다.

《몇년전만해도 여기는 인적이 없던곳이었습니다. 고산지대여서 나무도 쓸만한것이 없고 잡관목만이 우거져있던 불모의 땅이었지요.》

최성열은 차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등관길로 차를 천천히 몰아가며 말을 계속했다.

《비서동지가 이곳을 우리 공장 원로기지로 하라고 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머리를 기웃거렸었지요. 풀판조성을 위해 온 공장이 펼쳐나섰을 때는 정말 핑장했습니다. 사내들처럼 처녀들과 아주머니

들도 도끼와 곡괭이를 들고 나섰었지요. 그 시절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동무들은이 머은령을 미운령이라고까지 불렀었지요. 비서동진 그때 3일이 멀다하게 이곳에 와 나무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면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해 오늘의 고생을 락으로 여기자고 우리 동무들을 불려일으켰답니다.》

가도가도 풀판은 끝나지 않고 최성열의 이야기도 계속 되었다.

《이제 조금 더 가면 풀판겉에 있는 뽕나무밭을 보게 될겁니다. 그런데 고산지대의 날씨탓인지 뽕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 애를 먹고있지요.》

최성열의 말대로 조금 지나니 그 충실치 못한 뽕밭이 나타났다.

운전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어느결에 앞시창에서 뽕나무밭이 사라져버렸다. 모닥불이 타오르는 똑감자밭머리에 서 축산반장과 같이 무슨 이야기인가를 주고받고있던 황도하비서는 내가 가까이에 다가서자 의외라는듯 눈을크게 떴다.

내가 《비서동무를 한번 만나기가 무척 힘들구만요.》하고 롱조를 섞어 말을 건네자 비서 역시 《무슨 바람이 불어 예까지 왔습니까?》 하고 스스럼없이 말을 받는것이였다. 나는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황도하비서와 마주앉았다.

한기세지사장이며 최성열운전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초면이나 다름없는 비서동무가 구면이 기라도 한듯 퍼그나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자신으로서도 놀라운 이런 질문으로 그와의 대화를 시작했다.

《산곡에 계시는 어머니는 잃지 않습니까?》

황도하비서는 뜻밖인듯 나를 흘끔 쳐다보는것이였다.

《차를 타고 30분이면 갈수 있는데 일이 바빠 3년이 넘도록 끝내 시간을 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발전소건설을 끝낸 다음에야 찾아갔겠습니다.》

황도하비서는 그때 일이 돌이켜지는데 우선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조업식을 한 뒤에도 한달이 켜 지나서야 산곡에 찾아갔었습니다. 어머 니가 나를 끌어안고 막 우시더군요. 영웅이 되었다는 꿈같은 소식을 들은 뒤부터 아들이 금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것만 같아 내가 좋아하는 순두부를 해놓고 기다렸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눈곱이 뜨거워지더군요.》

나의 눈가에는 행복한 어머니와 행복한 아들의 그 극적인 상봉이 생동한 화폭으로 떠오르는것만 같았다.

《이걸 좀 보십시오.》

황도하비서가 갑자기 똑감자를 내밀며 화제를 돌리는바람에 그에게서 생황적인 이야기를 더 듣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중요한 화제거리의 그 똑감자를 받아들였다. 손에 목적이 실리는것으로 보아 반키로는 훨씬 넘을것 같았다.

《지난해 봄에 심은 똑감자를 몇포기 캐보았는데 수확이 꽤많은것 같습니다.

며칠내로 똑감자를 공장에 실어내리고 똑감자발면적도 한 댓정보 늘줄가 합니다.》

나는 황도하비서의 말을 들으며 나이로 보면 한갓이 멀지 않은 사람인데 정열은 젊은이 못지 않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내가 똑감자발면적이며 감자밭은 어디에 있는가고 묻자 비서동무는 자기네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것이 더없이 기쁜듯 나를 언덕진곳으로 이끄는것이였다. 그런 뒤 팔봉산을 등지고 서서 손으로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그 지점과 면적, 수확량까지 일일이 열거하는것이였다. 그가 가리키는곳을 지켜보는 나의 눈가에는 이제 며칠내로 여기 밭머리에 솟아날 똑감자 산이며 뒤이어 염소우리에서 태어날 100마리에 가까운 새끼염소들이며 여름철에 폭포처럼 쏟아질 염소젖, 하늘이 높이 들린 가을날 밭이랑을 타고앉아 웃고 떠들며 똑감자를 껌 사람들의 밝은 얼굴이 그 무슨 영화의 화면과도 같이 안겨오는것이였다. 수천년세월 무료하게 흐르던 덕지강의 흐름을 전기의 흐름으로 바꾸어놓았듯이 황도하비서는 여기 공장으로부터 70여리 떨어진곳에 있는 머은령의 봄철과 여름, 가을을 수확의 한 계절로 이어놓은것이였다. 문득 나는 이틀전 한기세지사장에게서 들은 말이 새삼스레 돌이켜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십년전 한기세지사장은 공장건물을 새로 지어 공장의 면모부터 일신시킨후 연료와 동력, 후방기지과 원료기지를 제힘으로 꾸려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장이 제발로 걸어나가게 하자고 황도하비서가 말할 때 그것을 한갓 공상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날의 그 《공상》, 그 높은 목표가 바야흐로 완전히 실현될 날이 다가오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나에게서는 산과 산에 받들려 솟아있는 해발 800미터로부터 1,000미터를 헤아리는 머은령의 높이가 단순한 해발고의 높이로 생각되지 않았다.

이 머은령의 높이는 원쑤들이 몰아오는 고립과 압살의 모진 광풍에도 끄떡없이 우리 혁명, 우리 조국, 우리의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있는 황도하비서를 비롯한 이 공장 로동계급들이 받들어 올린 충성의 높이, 효성의 메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얼마전 온 나라 인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하게 열린 전국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황도하비서는 이런 말로 마감 토론을 끝마쳤다.

《...저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며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함으로써 우리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공장>의 고귀한 칭호를 영원히 빛내여 나가겠습니다...》

그후의 생활은 황도하비서가 력사적인 그 대회장에서 결코 빈 말을 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이 세상이 열백번 뒤집한다해도 추호의 동요없이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결사옹위하는 김정일 제일숭배자, 김정일 제일옹호자인 황도하비서와 같은 미더운 충신들이 이 땅 어디 가나 있어 력사에 류례가 없는 모진 시련속에서도 우리인민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 조국은 최후승리의 언덕을 가까이 하며 신심드높이 강행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것이 아닌가.

《정말 소문없이 많은 일을 했구만요.》

내가 진심으로부터 되는 인사를 하자 《아닙니다.》 하고 황도하비서는 말을 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공장에 모시자면 아직 멀었습니다.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황도하비서가 어깨를 낮출수록 나의 눈앞에는 머은령을 딛고선 그의 모습이 거인처럼 돋보이는것이였다.

주체87(1998). 3. 18. 고원에서-



## 명산의 근본

김형준

### 상봉만 있으라고

인호대로 가는 바위 길엔  
은사다리 길을 열어 맞아주고  
불영대의 가파른 내리길엔  
금사다리 어서 오라 반겨주네

향암천 쉬여가는 깊은곳엔  
구름다리 흔들 마음도 건들  
등산객 모두 요람속 아기 된듯  
나이도 잊고 지체도 잊네

상원암 찾아가는 등산길은  
꿈속의 절승절경인가  
절승에 넋을 잃어 눈길을 팔면  
걸음은 절경 잃어 후회만 남네

서있자하니 앞서간 등산객들  
나 볼것 모두 걷어갈듯싶어  
가자 하니 그사이 정든 바위  
그렇게 갈 길 왜 왔느냐 묻네

인정의 석별만 눈물인가요  
산천의 석별은 더 빠근해  
장군님 그 마음 헤아리시여  
등산길 밟으시며 열어주셨네

아, 상봉만 있는 묘향산 등산길  
오르면 오를수록 천상절경  
내리면 내릴수록 천하절승  
꿈에도 밟히네 상원암 등산길!

### 상원암 찾아가다가

물소리 벗삼아  
상원암 오르는 길  
옆지르듯 달려오는  
향암천 맑은 물아

바위틈 헤집고  
살짝 웃는 네 모습  
문틈새로 내다보는  
련인의 눈빛인가

결눈 살짝 살펴보고  
아니본척 내달으니

갈거면 그냥 가지  
정은 왜 뺏어가노

상원암 찾아가다  
물에 정을 뺏겼으니  
상원암 찾아 가선  
넋마저 뺏기겠네

에라 에잇!  
정도 넋도 뺏기라지  
내정 내넋 따로 있다  
산도 물도 내것인데...

### 묘향산 약수

돌에 짓눌린 참깨 들깨  
방울방울 기름 되어 내리듯  
묘향산 웅자에 놀리어 솟는  
묘향산의 약수 명산의 진수

마시면 땅의 정기 몸에 흐르고  
말으면 산의 정기 넋에 스미는  
사랑의 약수 은정의 불로샘  
우리 수령님 찾아주셨다오

## 상원암의 삼폭

한눈에 안겨오는  
상원암의 세 폭포  
룡연폭포 안개바다  
바쁜 눈길 붙잡고

은실금실 줄줄이  
가야금 세워놓은듯  
산주폭포 맑은 선를  
내 두귀 빼았는데

다색단 드리웠나  
단풍잎 점점 박힌  
천신폭포 제 한쪽을  
썩둑 잘라가지라네

안개도 소리도 으뜸이요  
비단필 또한 제일이니  
아! 이런날 이런 땀  
내 몸 열로 되었으면

## 취나물

묘향산 가는 길  
길바투 나왔어  
오는 손님 가는 손님  
눈길 뚫는 취나물아

귀한 나물 너를 찾아  
산채군들 많을텐데  
깊은 산 바위틈에  
산삼처럼 숨어살지

아니라오 아니라오  
산삼보다 더 귀한

할 말이 내게 있어  
길넉바투 나왔았소

오늘의 이 행복에  
취해서만 산다면  
즐거운 등산길은  
치욕의 길 되리니

피로써 찾은  
오늘의 이 행복에  
취해서만 살지 말라  
길넉바투 나왔았소

## 명산의 근본

만산에 꽃들이 만발하여  
진한 향기 풍기고  
기암에 반했던 등산객들  
향기에 취하여 걸음 못떼네

꽃속에 부리박은 벌나비  
꽃가지 흔들어도 날지를 앓고  
태고적 앉았던 저 바위  
앉음새 아직도 그대로구나

바위도 꽃도 정기넘치여  
귀빈처럼 나를 반겨 맞아주니

시흥에 거워 한수 부쳤노라  
-나를 잊지 않아 반갑노라!...

바위도 꽃도 내게 말하네  
-시인이여 명산의 근본을 아시라

묘향산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  
우리의 옛 모습 지켜주시려  
금은보화 아무리 귀중타 해도  
묘향산 경치와 바꿀수 없다고  
내밀에 만년금광을  
거름처럼 묻어 잠재웠다오

## 만폭동

만폭동 가는 길 험하고 가파로워  
든든히 차비 갖춰 떠났지만은  
아니할 생각을 내 했나보오  
등산의 기쁨은 가파로운 길

폭양은 잔등에 땀집을 지워도  
오를수록 땀을 씻는 천폭만폭  
전설의 선녀가 차물을 권한대도  
폭포에 취하여 사양만 하리

그 옛날 시선이 하늘소 타고와  
시흥을 돌구어 읊조렸던 만폭이  
오늘은 온 천지 사람들 찾아와  
마음속에 안고 가는 사랑의 만폭동

아, 땀흘려 찾지 않을 명산이라면  
그늘에 앉아 그림이나 볼것이지  
찾아보니 금수강산 내 조국이  
세상에 제일인줄 내 재삼 느끼오

-묘향산에서-

## 가사

### 장군님과 길가집 할머니외 1편

김봉운

눈보라 북방천리 헤쳐오신 장군님  
길가집 할머니의 두손목 잡아주셨네  
인민이 기뻐하니 천만시름 풀린다며  
전기난방 살림집도 하나하나 보살피셨네  
아 우리 장군님  
아 행복한 인민

장군님 그 사랑에 목이 메인 할머니  
가슴을 들먹이며 간절히 말씀올렸네  
장군님 웃으시니 온 나라가 밝아지고

장군님이 근심하면 온 나라가 잠 못 듭니다  
아 우리 장군님  
아 행복한 인민

사랑의 자옥마다 세상만복 주시며  
장군님 령을 넘어 또다시 먼길 가시네  
길가집 할머니는 손저어 따라나서며  
장군님의 안녕을 길이길이 축원하였네  
아 우리 장군님  
아 행복한 인민

## 아버지를 닮으리

나에게 피를 주고 생명을 안겨준  
아버지를 아니닮고 누구를 닮으랴  
모습도 마음도 아버지를 닮으리  
신념도 예지도 아버지를 닮으리

나에게 힘을 주고 미래를 밝혀준  
아버지를 아니닮고 누구를 닮으랴

품성도 인정도 아버지를 닮으리  
걸음도 배짱도 아버지를 닮으리

우리의 아버지는 **김정일** 장군님  
내 나라는 한가정 백두의 혈통  
위대한 아버지 장군님을 닮으리  
만민의 어버이 장군님을 닮으리

단막희곡

## 어머니의 마음

호도균

때: 현대

곳: 군소재지에서

나오는사람들

어머니-군유치원 원장

금희-딸 (유치원교양원)

창수-맏아들

경옥-창수의 처

현심-출가한 딸

성민-군교육과장

기타: 순녀, 군당일군

△무대: 정원처럼 잘 꾸러진 집 뜰안, 우측에 대청이 달린 살림집이 있고 좌측에는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다.

△막이 열리면 어머니가 탁자앞에서 교편물을 만들고 있다.

△경옥이 들고방을 들고 들어온다. 조용히 어머니 뒤로 다가온다.

경옥: 원장어머니...

어머니: (생각에 잠겨 돌아본다.)

경옥: 호호, 어머니 저예요. 호호...

어머니: 앤 그저... 어떻게 된 일이나? 오늘은 짬을 다 내구.

경옥: 애아버지하구 탄광물자때문에 왔다가 들렸어요. 그런데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일은 무슨 일... 그새 앓지들 앓았니?

경옥: 우린 일없어요. 아이참, 호호, 이봐요! 어머니 가가표가 틀렸어요. 《마마》를 《마마》라구 썼어요. 호호.

어머니: 에그머니, 내 정신보지, 이젠 나이를 먹으니 알쏭달쏭한게 허허... 심계골발전소마을에 새루 생긴 유치원에 보내자구 교편물을 좀 만들었는데 마음처럼 안되누나. 허허

경옥: 참 어머니, 누이가 거기 교양원으루 간다지요?

어머니: 너두 알구있었구나.

경옥: 애아버지가 그러더군요. 누이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어머니: 우리 군유치원에서 금희가 선발됐다.

경옥: (다가서며)어머닌 참, 네 고아자식을 키워서 탄광으루 농촌으루 다 떠나보내구 마지막 금희까지 또 심심산골루 보내는군요.

어머니: 지금 모두들 그렇게 살고있지 않니. 오늘 발전소가죽들이 이사갈 때 금희두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근심에 차서 마을쪽을 보며)아침에 나간 애가 왜 아직 안오는지 모르겠구나.

경옥: 아니, 누이가 어데 갔어요?

어머니: 글썄 어데 간단 말두 없이 나갔는데...애두 참...

경옥: 거 혹시 발전소마을루 먼저 떠난게 아니예요?

어머니: 아직 떠날 차비두 안하구있는 애가 그렇게 훌쩍 가겠니? 그런것 같진 않다.

경옥: 그럼 이제 들어오겠지요 뭐.

어머니: (교편물을 거두며)밥두 안먹구 시장하겠는데...

경옥: 어머니...누이가 읍에서 멀리 떨어진 인적없는 산골루 가자니 생각이 많은 모양이군요.

어머니: 그 일이 뭐 가구싶으면 가구 가기 싫으면 안가두 되는 일이나?

경옥: 저...어머니 거기에 다른 교양원을 보낼걸 그랬어요. 누인 산골에 가있기 정말 아까워요. 호호.

어머니: 애에미야. 그렇지 않아두 지금 설통해하는 금희앞에서 그런 소리 말거라.

△이때 금희가 손풍금을 메고 들어온다.

금희: 어머니...

어머니: 금희냐?!

경옥: (다가오며)호호, 범이 체소리하면 온다더니 호호... 누이 잘 있었어요?

금희: 형님. 오늘은 서쪽에서 해가 났나? 명절날에 두 바쁘다구 끄떡 안하더니...난 형님얼굴을 잊어먹는가 했네.

경옥: 누인 만나자마자 비판이군요. 호호.

어머니: 앤 참. 형님이 보구싶으면 제가 갈게지 형님을 나무랄게 있니?

금희: 어머니 언제봐야 형님편이야. 내가 뭐래요? 반가와서 그러는거지요 뭐, 호호.

경옥: 호호...누이, 그런데 어데 갔됐어? 어머니가 걱정하시게.

어머니: 말을 하구 다니렴. 애야.

금희: 어머니, 나 성민아저씨를 찾아갔됐어요.

어머니: 군교육과장아저씨한테말이나?

금희: 음. (탁자에 손푼금을 벗어놓는다.)

어머니: 애, 거긴 왜?

금희: 호호, 어머니 그저 심각해서 그러네. (다가서며)어머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고아형제가 어머니와 한가정이 된 날이에요. 우리가 정생일이란말이에요. 호호...그래서 내가 어머니와 한 고향인 교육과장아저씨를 우리 집에 초청했지요 뭐.

어머니: 애두 참, 그 일때문에 아침부터 뛰어다녔단 말이나? 기계공장에 가서 전기물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구 떠날 준비를 하지 않구

금희: 에이참, 어머니 그저 심계폴 심계폴... 난 가정생일을 쇠구 천천히 가겠어요.

어머니: 무슨 소릴 하는거냐? 그럼 오늘 가지않구? 금희야.

금희: 교육과장아저씨한테두 승낙을 받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뭐?...

경옥: 누인 심계폴에 가구실지 않은 모양이군요.

금희: 형님 난 어머니간호병이에요. 호호. 이젠 우리 형제가 나한테 준 특별임무예요. 그런데 어머니 에이참...

어머니: 원 애두... 그동안 어머니가 그만큼 말해줬는데 난 어머니말을 하나두 듣지 않았구나. 심계폴발전소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자리를 잡아주신 발전소가 아니냐. 지금 중소형발전소들을 잘 돌려 큰 은을 내게 하는건 장군님의 뜻이란다. 난 장군님의 뜻을 받들구 발전소자녀들을 위해 가는거라구 어머니가 말했지.

금희:야, 어머니. 그렇지만 난 사정이 좀 다르지 않아요.

어머니: 사정은 무슨 사정?...

금희: 어머니 참. 시치미를 딱 떼시구 모르는척 하시네. 어머니, 난 아이들 예술소조를 책임지구있구 그리구 또 인차 예술축전에두 나가야하는데...이번에두 어머니네 유치원이 전국축전에서 당선되야 할게 아니예요. (매달리며)어머니, 난 어머니하구 같이 있구싶어요.

어머니: 앤 요새 꼭 어린애같다니까.

금희: 어머니 정말 미워.

어머니: 애 금희야. 네가 말아 손푼금수루 키운 학철이두 이번에 발전소루 탄원한 부모를 따라 심계폴루 가는데 일이 마침 잘됐는데 뭘 그러냐?

거기 가서 축전에 나가렴 응? 어머니두 다 생각이 있어서 너를 보내자구 하는거다.

금희: 아이참. 학철이 하나가 문제예요? 딴 애들두 있지 않아요. 됐어요, 어머니: 오늘은 오빠랑 언니랑 다 오는데 가정생일준비나 잘 하자요...형님, 내가 오빠가 좋아하는 순두부를 할려구 콩을 담겼어요.

경옥: 그래요?!

금희: 순두부솜씨는 어머니를 따를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어머니 호호

어머니: 앤 참, 이제라두 빨리 떠날 차비를 해라. (교편물을 들고 집으로 들어간다.)

금희: 에이 어머니 알다가두 모르겠어.

경옥: 누이.

금희: (손푼금을 메고 대청으로 올라간다.)

△창수 꾸레미를 들고 들어온다.

경옥: (마중하며)여보...

창수: 자, 좀 반소. 저기 마루에 놓소.

경옥: 인쥬요. (꾸레미를 받아준다.)

금희: (대청에서 내려오며)오빠... 이젠 뭐예요?

창수: 음. 구기자를 넣구 만든 어머니 약이다. 금희야, 네가 식전에 잊지 말구 어머니한테 꼭꼭 드러라.

금희: 오빠 정말 효자야. 호호- 그런데 오빠! 야 좀 빨리 오지. 난 오빠를 기다리다가 속이 까맣게 타서 재가 됐어요. 씨.

창수: 갱책임기사가 짬을 내기 쉬운줄 아니? 이번 에 왔던김에 집두 좀 손질하구 어머니방 구들골두 다시 봐야겠기에 크게 마음먹구 시간을 냈다.

금희: 오빠 그저 올 때마다 바쁘단 소리지 뭐.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자두 어머니한테 말했다가...에이참

창수: 어머니가 반대하시더니?

금희: 또 꾸중만 들었어요.

창수: 그래?!- 하긴 어머님이 나무람하실수있지. 발전소건설때 지원가서 심계폴에 유치원을 받기 하구 꾸린것두 어머니구 너를 거기에 추천한것두 어머니데...

금희: 오빠가 좀 잘 말해줘요.

창수: (다가서며)애 너무 걱정하지 말아. 내가 이야기하마. 너라두 읍에 있으면서 발전해야지.

경옥: (꾸레미를 마루에 놓고 다가온다.)

금희: 그럼 난 오빠만 믿겠어요. 오빠.

창수: 걱정말라니까.

금희: 부탁해요 오빠! ... 야 오빠가 제일이야. 호호. 오빠 나 인차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 훈련을 봐주구 오겠어요.

창수: 응. 어서 그래라.

금희: (홍홍 노래부르며 나간다.)

**경옥:** (다가서며)여보, 당신 어찌자구 그래요?  
그러다 어머니를 노엽히지 않겠어요? 그러지않아  
두 지금 누이때문에 어머니가 생각이 많으신데.  
**창수:** 걱정마오. 나두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오. 당  
신은 그저 잠자쿠 있으라니까. 알겠소?  
**경옥:** 어쩐지 누이 일이 심상치 않아요.  
**창수:** 알았다니까...(웃옷을 벗어주고 울바자를 손  
질한다.) 우리 어머니 그거 고지식하시지.  
**경옥:** 당신은 참...

△순녀 과일구력을 들고 들어온다.  
**순녀:** 모두 편안했어요? 호호 정말 오래간만에요.  
**경옥:** 어서 오세요. 학철어머니!  
**창수:** 안녕하십니까?  
**순녀:** 안녕하세요?  
**어머니:** (나온다.)  
**창수:** 어머니...  
**순녀:** 저...(다가가며)원장선생님! 떠나기전에 한번  
찾아뵙자구...이사준비를 하느라구 늦어서 미안  
해요.  
**어머니:** 바쁘겠는데 뭘 이렇게... 그래 짐은 다 꾸렸  
나?  
**순녀:** 오늘 이사집을 실구 심계골루 떠나자구해요.  
**어머니:** 읍에서 수백리나 떨어진 산골에 가서 고생  
이 많겠어요.  
**순녀:** 고생이랄게 있어요? 우리 군에 복동이발전소  
라구 모두들 관심해주는데 호호... (탁자에 과일을  
놓으며)집뜰안에서 판 배예요. 하나 들어보세  
요. 원장선생님!  
**어머니:** 아이한테나 줄게지 뭘 들구오면서 그러나  
**순녀:** 또 있답니다. 겨우내 읍에 보관했더니 배맛이  
정말 잘 들었어요.  
**창수:**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허허.  
**순녀:** 번번치 못해요. 제 성의루 생각해주세요. 호.  
**경옥:** 아이! 정말 배가 탐스럽군요!  
**순녀:** 금희선생이 우리 학철이한테 손풍금을 배워  
주느라구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또 폐를 끼치게  
됐으니 뭐라구 인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폐는 무슨 폐라구 그러나. 학철이가 재간둥  
이니 우리 금희가 좋은 애를 만났지. 허허.  
**순녀:** 원장선생님두. 무슨 말씀을...우리 학철인 금  
희선생과 함께 여기 떨어져였으라니까 콩당콩당  
뛰며 호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답니다. 애가  
사기가 났어요. 호호...  
**어머니:** (심중해지며)아니? 학철이를 여기 떨구다  
니요?  
**순녀:** 읍에 가까운 우리 친척집이 있답니다. 금희선  
생이 학철이를 떨귀달라구 부탁하길래 그집에  
맡기기루 했어요.

**어머니:** 뭐라구요? 우리 금희가요?  
**순녀:** 애아버지하구두 그렇게 토론했답니다.  
**어머니:** (안색을 흐리며)금희가 그랬단말이에요  
**순녀:** 아니 저...  
**어머니:** 그 말을 왜 이제야 해요? 학철이 어머니.  
**순녀:** 이거 제가 공연한 말을 한것 같군요. 저~원  
장선생님! 그러지 않아두 우리 학철이를 읍에  
떨구자구 했답니다.  
**창수:** 어머니, 허허(다가서며)저 이번 축전에 학철  
이가 없으면 안된다니까 금희가 그렇게 부탁한  
모양이군요. 학철이 어머니! 정말 잘 생각했습니  
다. 아이들이야 시내에서 키워야 발전두 빠르지  
요. 허허.  
**순녀:** 정말 그래요.  
**어머니:** 창수야 무슨 소릴 하는거냐 응? 아이를 떼  
놓구 가다니?  
**창수:** 어머니, 그래두 피아노랑 있구 혼련실이랑 그  
쫄한 읍이 읍이지요.  
**순녀:** 원장선생님.저희들 걱정은 말아요.  
**어머니:** 그래 오늘 떠난다구요?  
**순녀:** 예. 저, 그럼 전 짐을 실을 차가 올 시간이 되  
서 빨리 가봐야겠어요. 원장선생님! 몸을 잘 돌  
보세요. 또 오겠습니다.  
**창수:** 아주머니, 읍에 나오면 제집처럼 들리십시오.  
허허.  
**순녀:** 알겠어요. 전 어머니한테 오면 꼭 친정집에  
온것 같애요. 호호. 어머님을 잘 모셔요.  
**경옥:** 수고하겠어요.  
**순녀:** 잘 있어요(나간다.)  
**어머니:** (생각에 잠겼다가)애가 어머니한테 한마디  
말두 없이 어떻게 그럴수 있단말이나.  
**경옥:** 어머니.  
**창수:** 어머니 그거 여전하시군요. 허허.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들이 왔는데 집에 들어가서 얘기  
랑 나누면서 나하구 금희문제를 의논해보자요.  
(어머니 손을 잡아 이끌며)나두 금희를 보낸다  
니까 마음이 허전하구 별라군요. 허허...금희일  
만은 잘되야겠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심계골마을이 뭘 어떻게구 그러냐?  
**창수:** 그래두 이건 금희의 운명문제데...자 들어가  
시자요. 어머니!...여보, 어머니를 모시고. 어서  
들어가요.  
**경옥:** 어머니, 들어가시자요.  
**어머니:** 먼저 들어가거라.  
**창수:** 어머니, 그럼 제 뒤뜰안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집옆에서 삽을 들고 나간다.)  
△경옥이 가방과 과일구력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  
간다.  
△뒤길에서 성민이 들어온다.

성민: 원장동무...

어머니: 교육과장동무예요?!

성민: 원장동무, 내 이자 기계공장에 알아보니 아직 전기물망이 채 안뒀더군요. 그래서 기일이 좀 걸려두 잘 만들어달라구 다시 부탁을 해놨습니다.

어머니: 개원식할 때 아이들한테 콩우유를 만들어 주자구했는데 그렇게 늦는단말이에요?

성민: 그게 뭐 그리 바빠니까? 허허...솔직히 말해서 심계마을 교양원을 다시 선정해야했기에 내 좀 늦었습니다.

어머니: 이젠 과장동무까지 그런 립장이예요?

성민: 원장동무 이거 뭐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허허... 다르게 아니구 사실말해서 금희야 원장동무의 친딸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교아들속에서 제 친자식이라는걸 숨기구 키워왔는데 그 딸을 원장동무한테서 떼놓자니 나오서는 마음에 걸리는군요.

어머니: 과장동문 괜한데 다 마음을 쓰면서.

성민: 금희아버지의 옛친우로서 이 랑심이 허락치 않습니다. (생각에 잠겨 뜰안을 거닐며)참 세월은 흐르는 물이라더니, 20년전 강물에 빠진 아이를 구원하구 회생된 금희아버지를 저 벽선팔에 묻구 여기루 올 때 금희가 세살이었지요?

어머니: 그랬어요.

성민: (다가서며)금희 아직 원장동무가 자기 친어머니라는걸 모르구있더군요.

어머니: (신중한 어조로)그래 그애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해줬어요?

성민: 아니요! 차마 그말이 입밖에 나가지 않더군요. 원장동무! 말이 났으니말이지 툭 털어놓구 말해서 내 생각엔 이제 교아애들이 다 자라 가정두 이루구 제구실을 하는데 금희두 어머니를 알구 원장동문 금희를 데리구 살아가 할것 같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교아자식들은 다 어렵구 힘든곳으루 보내구 제가 어떻게 친자식이라구 금희를 끼구 있겠어요. 그건 저를 모르구 하는 말이에요. 전 제자식 남의 자식 차별이 없이 교아애들을 다 내 친자식으루 삼구 장군님의 효자루 키우자구 우리 모녀사이를 아직 누구에게두 말하지 않은거예요. 그리구 또 금희가 어머니를 알면 교아들속에서 저하나 특혜를 바랄것같아 다 자란 오늘까지 그 애한테 친어머니란 말을 피하구있어요.

성민: 그래두 혈육은 혈육이지요... 난 이번에 금희가 나를 찾아와서 어머니가 친어머니라면 자기 심정을 그렇게 몰라주겠는가구 원장동무를 나무람하는걸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원장동무가 친딸을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하구 가슴이 다 섬적해 지더군요.

어머니: 금희를요?

성민: 그애 전망을 놓고봐두 그래 후에라도 금희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게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금희는 읍유치원에 있어야 합니다. 금희를 보내선 안됩니다. 금희말이 섭섭하긴 하지만 내보기두 그동안 원장동무가 너무 모질어 진것 같습니다.

어머니: 제가요?

성민: 랑해하십시오. 전 원장동무의 모녀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생각에 잠겼다가) 전 사실 이젠 년로보장들어갈 나이두 다 됐구해서 금희를 앞서 보내구 저두 뒤따라 발전소마을루 가자구 했어요. 그런데 금희가 그렇게까지 나을줄은... 정말 뜻밖이에요요. 과장동무! 과장동무가 진정으루 우리 금희 아버지와의 우정을 생각한다면 우리 금희가 강행군시기에 장군님께서 바라시는곳에서 참답게 살수 있게 잘 이끌어주세요. 예?

성민: 이제 금희의 마음을 돌린다는건 불가능합니다. 안됩니다!

어머니: 불가능하다구요?

성민: 여하튼 금희문제는 달리할수 없습니다. 나두 깊이 생각하구 내린 결심이니 이번만은 금희부탁대루 해줍시다. 원장동무!

어머니: 과장동무!

성민: 글썄, 그렇게 합시다.

어머니: 예?

△경옥 부엌에서 행주치마를 두르며 나온다.

성민: 오늘 가정생일날이라더니 며느리두 왔구만

경옥: 안녕하세요?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구...

성민: 그래 탄광일이 잘되나?

경옥: 우리 탄광애두 심계골전기가 들어와서 증소형발전소덕을 단단히 본답니다. 호호.

성민: 발전소가 은을 내기 시작했구만. 허허...(다가서며)원장동무, 다른 생각말구 마음을 놓구 오늘은 자식들과 함께 좀 쉬십시오. 자 그럼...(나간다.)

어머니: (말없이 침묵에 잠겨있다.)

경옥: 어머니... 너무 고심하지 마세요. 제보기두 이젠 누이를 돌려세우지 못할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 내가 에미구실을 잘못한것 같구나. 아무래두 내가 군당에 찾아가서 이야기하구 심계골루 떠나야 할것 같다.

경옥: 어머니가요?

어머니: 참, 애에미야, 학철이네가 오늘 이사를 한단데 가서 일손을 좀 도와주렴.

경옥: 어머니...

△어머니 고심에 잠겨 뜰안을 나간다.



△경옥이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들어간다.

△사이. 반대쪽에서 현심이가 보자기를 들고 뛰어 들어온다. 경옥이 다시 나온다.

현심: 형님! ...야 형님, 내가 한발 늦은게 아니에요? 금희가 떠났어요?

경옥: 누이...(다가서며)안떠났어요.

현심: 그래요?!...형님, 우리 농장에서 발전소마에 지원물자를 가지고 가요. 내가 책임자루 뽑혔어요. 호호.

경옥: 축산반장인 누이가?

현심: 유치원에 주자구 닭이랑 가져가는데 금희가 잘만 기르면 아이들한테 매일 닭알을 먹일수 있어요.

경옥: 현심인 정말 세심하다니까. 어머니처럼. 호호.

현심: 나야 덜레바리지요 뭐!. 호호... 우리 어머니 잔소리는 내가 다 독차지했었으니까요. 호호.

경옥: 누인 성격이 활발해서 어머니사랑두 제일 많이 받았지요 뭐. 호호.

현심: 형님두...참, 군대나간 채영이한테선 새 소식 없어요?

경옥: 오빠한테 편지가 왔어요. 적은이가 신병훈련을 마치구 전연에 배치받았대군요.

현심: 입대할 때부터 전연전연하더니 딱소리나게 됐는데요! 호호... 이제 금희까지 새 초소루 가면 우리 형제가 그즈하게 되겠어요.

경옥: 그런데 현심이...(다가서 며) 금희가 갈것갈지 못해요.

현심: 아니,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경옥: 저...이제 알게 될거예요. 먼길을 왔는데 숨을 좀 돌려요. 난 좀 나가봐야겠어요.

현심: 형님...아니 형님...  
△경옥 나간다. 밖에서 경옥이와 금희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금희, 언니가 있어요.

-그래요? 어데 가요, 형님?

-응, 인차 와요.

△이어 금희가 들어온다.

금희:언니.

현심:금희야.

금희: 언니! 호호...언닌 늘 방목지에 나가 산다지?

현심: 오, 염소때 물구다니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니? 호호, 음메 음메 하구 날 염소엄마처럼 찾아. 호호.

금희: 호호, 언닌 이젠 염소엄마가 다 됐구나.

현심: 그래. 호호. 금희야? 자, 네 목도리를 떠왔어. 한번 써봐.

금희: 야, 언니가 떴어?

현심: 응, 네게 맞겠는지 모르겠다. 양털루 두툼하게 떴는데.

금희: (목도리를 펴보며) 언닌 정말!...언니가 제일 이야. 호호.

현심: 어서 써봐. 어디 맞나보자.

금희: 써보나마나지 뭐. 난 아이때부터 언니가 입던 옷이 제일 잘 어울렸으니까. 언니가 좋다면 다 좋아.

현심: 앤 그저... 요 애교쟁이, 호호... 금희야,우리 여기 좀 앉자.

금희: 응. (탁자앞에 나란히 앉는다.) 야, 언니하구 오래간만에 앉아보누나... 언니, 손이 다 뾰구나. 부드러운 언니 손이 이게 뭐야.

현심: 일하는 손이 그렇지 뭐.

금희: 에이, 일욕심쟁이.

현심: 금희야, 넌 나를 욕 많이 하지? 내가 시집갈 때 나때문에 이 뜰안이 호호, 울음바다가 되지 않았어.

금희: 정말 그랬어. 호호.

현심:야, 그때 정말 어머니하구 떨어지기가 죽기보다 싫더니... 난 지금두 어머니와 함께 있던 때를 생각하면 잠이 다 안와. (생각에 잠겨) 우린 저 사과나무가지사이루 둥근달이 교묘히 비칠 때면 여기 뜰안에 앉아 어머니한테서 밤가는줄 모르구 손풍금을 배웠지. 재미나는 이야기랑 들으면 서말이야.

금희: 언니, 생각나? 호호, 언젠가 어머니생일날에 우린 여기 앉아 서로 헤여지지 말구 시집두 가지 말구 어머니를 잘 모시자구 약속했지. 호호.

현심: 생각나지 않구. 그때 정말 천진했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어머니를 잊지 않구 일을 잘 하면 그게 다 어머니를 위한거지 뭐. 꼭 어머니를 모시구있어야만 어머니를 위한게 아니야. 참, 애 금희야, 너 정말 심계골에 안가려니? 응?

금희: 언니, 난 사실 예술학교를 졸업하구 전문단체에 가서 한번 본때있게 이름을 날려보자구 했는데 어머니를 생각해서 읍유치원으루 내려왔어. 난 여기서 아이들을 데리구 예술을 하면서 희망을 찾구있어.

현심: 그건 나두 안다.

금희: 그런데 어머니 정말 우리 자식들의 립장에서 섭섭할 때가 많아. 오빠두 그래 언니두 그렇지 뭐. 꼭 탄광이나 농촌에 우리가 가야겠어? 언닌 학교때 체육계통으로 발전하고싶어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머니 언니를 굳이 농촌지원대루 보내냈어. 이제 나를 산골루 보내구 또 채영이가 제대되어 들어오면 어느 광산으루 보내자구 할거야. 어머니 정말 너무해 우리가 친자식이 아니니

까 우리들의 전망에 대해 크게 마음쓰는것 같지 않아. 하긴 양어머니가 양어머니지 뭐.

**현심:** 금희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응?

**금희:**왜, 내 말이 잘못됐어?

**현심:** (자리에서 일어나며 심각한 어조로) 뭐라구? 너 어쩌면 어머니에 대해 그렇게 말할수있니. 어머니 언니 키우며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신분이야.

**금희:** (일어나며) 어머니 심장이 차. 친자식을 대하는 어머니처럼 뜨겁지 못해.

**현심:** 그만해! 어머니를 모독하지 말어.

**금희:** 내가 어머니를 모독한다구?

**현심:** 은혜는 은혜루 갚으라구 했어. 난 어머님생각이 옳다구 생각해. 네가 여기서 예술하는 아이들을 데리구 축전에 나가는것보다 어머니말씀대루힘이 들어두 발전소마을에 가서 거기 세명의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는것이 장군님께 더 기쁨을 드리는 길이야... 난 그래두 네가 외지에 나가 감기라두 걸릴가봐 앓지 말구 어머니의 기대에 보답하라구 목도리를 떠왔는데 너 탄뎀만 꾸구있었구나. 어머니를 배반하구...

**금희:** 뭐? 언니 정말...

**현심:** 넌 확실히 변했어. 예술을 한다구 하면서 고생을 싫어하구 귀족 자식처럼 돼가있어. 진정한 예술은 조국과 어머니를 알게 하는 참다운 것이란다. 넌 사심없이 진정한 사랑으로 이 나라의 고아들을 키워준 그 고마운 어머니들을 모독하고있어.

**금희:** 그 말은 너무해. 언니...난 아직 친부모의 얼굴을 몰라. 난 친어머니의 그림자도 못봤어. 그래서 난 어머니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구 존경했어. 어머니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구 했어. 그런데 어머니 너무 매정하단말이야...(목도리를 주며)놀라와! 난 언니가 나를 그렇게 보구있는줄은 몰랐어. 목도리를 가져가. 안쓰겠어! 정말 안쓰겠어.

**현심:** 금희야...

△금희 집으로 들어가버린다 사이...

△창수 집뒤에서 땀을 문대며 나온다.

**창수:** 현심이 왔니?

**현심:** 오빠...(다가서며) 오빠가 금희를 좀 따끔히 타일러줘요. 금희 지금 허영심에 들떠있어요. 오빠.

**창수:** 앤 그저. 네가 뭘 안다구 그래? 금희 그런 애가 아니야.

**현심:** 뭐라구요? 그럼 오빠... (다가서며) 오빠 왜 금희를 두둔해줘요? 왜 잘못되는 동생을 비호해나서요. -오빠!

**창수:** 애애, 넌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그러니, 응? 금희 내가 잘 알아...그리구 내 그러지 않아 두 널 한번 만나자구 했는데 채영이가 나한테 보낸 편지에 뭐라구 썼는지 아니? 우리 네 고아중에 어머니의 친자식이 하나 있다는거야.

**현심:** 뭐예요?

**창수:** (편지를 꺼내며) 자, 보겠니?

**현심:** (편지를 받아본다.)

**창수:** 입대할 때 교육과장아저씨가 말해줬다누나. 어머니를 잊지 말구 군사복무를 잘하라구.

**현심:** 어머니 우리한테 자기는 친자식이 없다구 하지 않았어요?

**창수:** 앤 참 답답하구나. 우리야 아이때 어머니한테 왔으니까 어머니의 깊은 내막까지는 모르구있지 않니. 교육과장아저씨 어머니와 한고향사람이다.

**현심:** 오빠 그럼 금희가 어머니의 친자식이라는데요?

**창수:** 물을게 있니? 나두 채영이 편지를 받구보니 지난날 어머니에 대해 생각되는 점이 많구나

**현심:** 오빠...

**창수:** 난 아이때 고열루 심하게 앓은적이 있는데 어머니등에 입혀서 병원에 가서 삼일째 되는날에야 의식을 깬다. 그때 어머니 어린 금희를 업구 내결에서 꼬박 밤을 썼지. 난 어머니가 고마와서 《어머니, 금희네 부모들두 다 잘못됐나요?》하구 물었더니 어머니 나를 한참동안 비라보다가 《응, 그래...》하구 내가 보지 않게 얼굴을 돌리시더니 조용히 눈굽을 훔치시 더구나... 그때부터 난 어머니앞에서 금희말을 입밖엔 내지 않았다. 어머니두 우리한테 금희에 대한 말만은 하지 않구...난 분명 금희가 어머니의 친딸 이라구 생각한다. 그래서 난 어떻게 하나 여기서 금희를 잘 발전시켜주자는거다. 그게 어머니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것이 아니겠니.

**현심:** 오빠, 어머니 아마 금희가 친자식이라구 해두 이번 일은 용서하지 않을거예요.

**창수:** 용서하지 않는다구? 앤, 넌 왜 금희를 나쁘게만 보니, 응? 사람이 그러면 못써! 그래두 그 앤 널 친언니처럼 따르구있지 않니.

**현심:** 어머니 언니 키우는데서 언제나 원칙적이었어요. 사람은 조국앞에 후회없이 살아야 한다구, 청춘시절에 당을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남보다 앞장서는 선봉대가 되야 한다구 늘 말씀하셨어요. 오빠가 지금 금희를 비호하는건 어머니를 위해주는것이 아니예요. 오빠.

**창수:** 금희문젠 그렇지 않아.

**현심:** 금희 옳지 못한 길로 나가구있단말이에요.

**창수:** 그만해라.

**현심:** 오빠 정말 어머니를 몰라요.

창수: 네가 뭘 안다구 그래. 넌 이 일에 빠치지말아  
...(횡 집 으로 들어간다.)

현심: 오빠 어찌면...

△현심이 수심에 잠겨 편지와 목도리를 들고 조용  
히 뒤돌로 나간다.

△어머니가 순녀를 데리고 들어온다.

어머니: (옷을 털며)산골길에 독이 깨지지 않게 주  
의해요.

순녀: 애아버지가 원장선생님이 이사집까지 실어  
준걸 알면 저를 욕했어요.

어머니: 별말을...(마루에서 교편물을 가져다주며)  
저...이 걸 가지구요. 어린이악보책하구 지능  
놀이감인데 학철이한테 줘요.

순녀: 원장선생님두...

어머니:참 학철이가 깎뚜기를 좋아하던데, 허허...  
이사집을 실을 때 보니까 깎뚜기단지가 없더구  
만. 내가 인차 몇개 구해보겠어요.

순녀: 됐습니다. 자꾸 이러지 마세요. 저희들이 미  
안해요.

어머니: 그러구 학철이를 꼭 데리구가라구! 우리  
장군님께서는 섬마을 몇몇 아이들을 위해 학교  
까지 세워주시는데 아이를 떼놓구 가는건 정말  
옳지 않아요. 아이는 어머니곁에 있어야 해요.

순녀: 저... 원장선생님...

어머니: 학철이 부모들은 장군님의 뜻을 받들구 발  
전소루 가는데 그 훌륭한 길을 떠나는 부모의 마  
음에 아이때문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두 안구가면  
되겠어요? 학철이 재능이면 어디에 가있든 축전  
에 나가 꼭 성공할수 있어요.

순녀:전 우리 학철이보다 원장선생님이 걱정이 돼  
서 그렇니다. 몸두 편치 않은데 산골에 와서 어  
떻게 아이들의 시중을 둔다구 그러니까.

어머니: 내 걱정은 말아요.

△이때 밖에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찾는  
학철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순녀: (밖에 데고)오, 학철아, 어머니가 곧 간다! 간  
다니까...

어머니: 애를 데리구 어서 떠나요. 학철이가 기다리  
구있군요. 허허... 자, 어서 함께 떠나요. 학철 어  
머니.

순녀: 원장선생님!

어머니: 내 뒤따라 가겠어요. 자, 어서 떠나요!

순녀: 저...(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떼며 나간다.)

△창수 웃옷을 입으며 집앞에 나와 순녀를 바래워  
주는 어머니를 이윽히 바라본다.

창수: 어머니-(다가서며) 학철이가 가면 금희두 가  
야 한다는 말이 아니예요? 어머니 뭘 그렇게까  
지 그리십 니까?

어머니: 애야, 창수야.

창수: 교육과장이저씨두 도와주겠다는데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고생을 사서 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 내가 너희들에게 고생을 시킨다구?

창수: 화목하던 우리 집안이 이게 뭐예요. 별참은  
일루 균열이 생기구 형제 들간에 오해가 생기구  
...나두 왜 그런지 요즘은 이 집에 오구 싶지않  
단말입니다.

어머니: 뭐...

창수: 사람이 어떻게 고정하게만 살겠어요. 내가 막  
장에서 일하면 댕치 금희까지 또 제 희망을 버리  
구 외지루 가게 해야겠습니까? ...전 사실 어머  
니앞에 이런 말을 하기가 괴롭습니다. 우릴 키워  
준 어머님이 아닙니까. 전 이날 이때껏 어머니가  
바라는 일이라면 달다쓰다 말없이 받아들였습니  
다. 어머님말을 거역할수 없어서 말입니다. 그러  
나 금희는 어머니곁에서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  
지 않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래 넌 신념두 없이 지금까지 이 어머니앞  
에 순종했단말이나?

창수: 어머니...

어머니: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들  
을 헛키웠구나. 아니...아니... 어머니 너에게서  
신념의 뿌리가 없는 생활을 바라지 않았다.

△금희 집에서 나온다.

금희: 어머니...두부콩두 갈구 빨리 만두랑 빗자요.  
(다가가며) 음, 어머니 좀 웃으세요. 오늘 어찌다  
온 집안이 모였는데.

어머니: 원 애두, 내가 뭐 어떻다구 그러냐.

금희: 오빠, 오늘은 오빠가 주방책임자예요. 어머니  
오빠가 빗은 만두를 제일 좋아해요. 호호,

창수: (침울한 어조로) 금희야- 형님하구 같이해라.

금희: 오빠, 왜 그렇게 심각해서 그래요?

경옥: (들어온다.) 저 어머니...학철이네 이사집을  
실은 차가 떠났어요. 학철이두...

어머니: 그래?!

금희: 아니 형님- 학철이가 떠나다니요?

경옥: 금희, 방금 제 어머니와 함께 심계골루 갔어  
요.

금희: 뭐예요? 그게 정말이에요?

경옥: 그래요. 어머님이 보냈어요. 누이.

금희: 어머니, 야 정말, 학철이를 보내면 어떻게 해  
요? 이번 축전에서 바라본건 학철이 하나뿐인데  
그애를 보내면 어떻게 하는가 말이에요.

현심: (편지를 접어쥐며 나온다.)

어머니: 예술하는 아이들을 꼭 읍에서만 키운다는  
법은 없다.

금희: 어머니, 학철이가 여기서 축전에 나가면 원장  
인 어머니한테두 좋으면 좋았지 나쁘게 뭐가있  
는가 말이에요?

**어머니:** 넌 학철이를 빗대구 여기서 제 명예를 차리구 자기 안식처를 찾자는거냐?

**금희:** 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대두 너를 믿었댔다. 넌 예능두 있구 아이들두 너를 잘 따르구 또 애들 구미에 맞게 음식만드는거랑 손이 술가와서 네가 가면 내 마음이 놓인다구... 네가 어머니를 이해해주리라구 믿었댔다.

**금희:** 어머니 정말 너무해요.

**어머니:** ...

**현심:** 금희야, 제발 그러지 말어, 그러지 말어. 어머니 앞에서 그러면 안돼!

**경옥:** 금희, 진정해요.

**창수:** (한숨을 짓는다.)

**어머니:** 금희야... 애들아, 난 여태 너희들을 언제 한번 남의 자식이라구 생각해본적이 없다. 다 친 자식이라구 생각했지...

**현심:** 어머니...

**어머니:** ...너희들의 부모들은 다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생을 마쳤다. 기관구에서 복무한 창수아버지두 그렇구 농장원이었던 현심이 부모들도... 기계공장에서 일하던 채영이 부모들두, 중학교 선생이었던 금희 아버지두 다 자신보다 당을 먼저 생각하구 조국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다. 그래서 당에서는 너희들에게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준게 아니냐.

**창수:** 어머니...

**어머니:** 이 집과 뜰안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했냐... 손풍금을 타며 노래속에 웃음속에 뛰놀며 자란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은 이 뜰안이 정말 쓸쓸하구나. 꽃밭두 사과나무두 이 집두... 첫눈이 내릴 때면 너희들이 하얗게 눈사람이 돼서 웃구 덩굴던 이 뜰안이...

**창수:** 어머니

**어머니:** (다가서며) 금희야, 너두 지금 나라형편을 잘 알고있지 않냐. 우린 지금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하고있다. 적들은 우릴 죽이자구 갖은 짓을 다하구 우린 자국자국에 피와 땀을 새기며 우리의 락원을 일떠세우고있다.

장군님께서는 중소형발전소들을 잘 돌려야 사회주의를 지키구 인민생활을 윤택하게 할수있다고 그토록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어떻게 자기자신과 자기 명예만 생각하구 발전소를 외면하구 회피할수 있냐?

**금희:** 저...

**어머니:** 창수도 그렇다. 너희들을 낳아준 부모는 서루 다르지만 이 어머니와 한가정이 되구 친어머니, 친자식으로 될수 있는것은 우리가 장군님을 따르구 장군님의 한가정이라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 우리 장군님께서는 새해 설날에두 쉬지 못하시구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시며 그길루 인민군군인들이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와 자강도의 험한 설령을 넘고 넘으시여 깊은 산 곳곳에 세워진 중소형발전소들을 찾으시었는데 장군님의 자식된 도리로써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니? 장군님께서는 어느 하루 한시도 우리 인민을 잊지 앓구 계시는데 너희들은 왜 순간이나마 장군님을 잊구 사니, 응? 어머니 그게 가슴아프구나... 금희야, 너는 정말 배은망덕한 자식이다.

△어머니는 천천히 집으로 들어간다.

△침묵...

**현심:** 이제라두 채심해서 어머니말을 들어. 어머니 앞에 사죄해!

**금희:** 오빠, 내가 정말 어머니가 말하는 그런 녀자였나요. 예?

**창수:** 후-금희야, 우린 지금까지 어머니말씀을 철칙으로 삼았지...

**경옥:** 누이, 생각을 고쳐해요.

**금희:** (다가서며) 언니, 좋아요. 언니말대루 난 어머니를 배반했어요. 난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난 이 집에서 나가겠어요.

**현심:** 금희야.

**창수:** 애, 어델 간다구 그러니?

**경옥:** 야 참, 누이 그러지 말아요.

**금희:** 어머니 정말 야속해요. 어찌면...

**현심:** 그럼 넌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과 결별하겠는거니? (다가서며) 금희야, 너 왜 자꾸 그러니, 응? 어머니 너를 사랑하기때문에 아픈 마음을 들었어. 넌 얼마나 좋은 어머니를 모시구있는지 아니? 자, 이 채영이 편지를 좀봐라,

**금희:** 무슨 편지말이예요.

**창수:** 그 편진 내가 교육과장아저씨를 만나 사연을 자세히 알고 너한테 보여주자구 아직 말하지 않았댔다.

**금희:** 예?... (편지를 펴본다.)

△편지내용이 채영이 목소리로 들려온다.

《...형님! 전 지금 적들과 계급의 총대를 맞댄 최전연전호가에서 이 글을 씁니다. 우린 어제 도놈들의 도발책동에 맞서 결사전을 벌렸습니다. 여기엔 평화가 없습니다. 이 시각에도 지척에서는 적들의 포성이 울리고있습니다. 형님! 이 동생을 믿어주시시오. 저는 죽어두 살아두 장군님의 근위병사, 총폭탄전사답게, 어머니의 자식답게 싸울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교아들을 장군님의 아들딸로 키워준 우리 어머니와 같은 이 나라의 수많은 어머니들의 사랑을 저는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것입니다

다. 형님, 전호가에 배를 붙이고 적진을 살펴보는 이 시각에도 저는 입대할 때 교육과장이 저씨가 한 말이 생각나는군요. 분명 우리 형제들속에는 어머니의 친자식이 있습니다. 전 금희가 어머니의 친딸이라구 생각합니다...》

**금희:** (편지를 내리며) 아니?... 오빠, 이게 사실이에요?

**창수:** 금희야...

**금희:** 언니.

**현심:** 그건 너와 나, 우리 형제 각자가 생각해볼 문제야.

**금희:** 뭐라고요?

△성민 들어선다.

**성민:** 금희야.

**금희:** 아저씨-(다가서며) 아저씨가 대답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저의 친어머니예요? 예? 아저씨! 아저씨 누구보다도 우리 어머니를 잘 알지 않아요.

**성민:** 그렇다! 그건 사실이다. 난 채영이가 입대할 때 어머니를 잊지 말구 군사복무를 잘하라고 아직 너희들에게 해주지 않은 그 말을 이야기해줬다.

**금희:** 아니예요. 그럴수 없어요. 그럴수 없단말이에요. 아저씨!

**성민:** 금희야, 넌 친어머니를 보구싶다구 했지? 어머니의 그림자라도 보구싶다구 했지?... 난 사실 어머니의 부탁두 있구 해서 너에게 이 말만은 하지 않자구 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오늘은 말을 해야겠다.

**금희:** 아저씨...

**성민:** 네가 두살때였다. 아버지가 회생된후 당의 배려로 군당학교를 졸업하고 벽선리에서 여기 군유치원원장으 올 때 어머니 육아원에 맡겼던 너를 찾아오면서 창수와 현심, 채영이 세 고아를 함께 데리구왔다. 그때 어머니 사람들에게 그 고아들속에 친자식이 있다는걸 말하지 않았다. 제 자식의 하나보다 세 고아자식을 생각해서 그들의 어린 마음에 그들이 지구 어머니가 있는 너를 보며 서러워할가봐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금희:** 예?

**창수:** 아저씨...

**성민:** 세상에 제 자식을 귀해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니? 그러나 어머니 너희들 모두를 똑같이 효자, 효녀로 키워 장군님앞에 내세우자구 자그마한 차별이 없이 한품에 안아키웠다,

**현심:** 아저씨.

**성민:** 나두 너의 어머니를 잘 안다고는 하지만 이번 일을 놓구 자책되는바가 많구나. 지금처럼 어렵

구 준엄한 때 우리가 어떻게 장군님을 받들구 장군님과 한마음이 되어 혁명전사의 의리를 다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너의 어머니앞에서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다.

**금희:** 아저씨.

**성민:** 금희야-

△모두 심심한 침묵속에 잠긴다. 금희 깊은 생각에 잠겨 자리를 옮긴다. 서서히 음악이 울린다. △어머니가 소복차림에 트렁크를 들고 대청으로 내려온다. 대청에 눈부신 해빛이 비쳐든다.

**창수:** 어머니...

**성민:** 원장동무!...

**어머니:** 창수야, 내가 발전소마을에 금희를 보내겠다구 군당에 제기했었는데 어찌겠니. 이제 개원식두 해야겠는데 내가 거기 가서 유치원을 맡아보겠다구 군당과 의논했다.

**창수:**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간단말이에요? 어머니!

**현심:** 어머니, 야 참, 그 몸으루 어텔 간다구 그러세요.

**경옥:** 어머니!

**어머니:** 금희야, 잃지 말구 잘 있거라. 소식두 종종 전하구, 응?

**금희:** 아! 내가...

△금희 울음을 터치며 어머니앞으로 달려간다.

**금희:**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죄많은 저를 용서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금희야.

**금희:** 어머니를 괴롭힌 이 딸은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예요. 어머니, 어머니!...(어머니앞에 주저앉는다.) 제가 가겠어요. 제가 가겠어요. 제가 발전소마을에 가서 아이들을 키우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금희야.

**금희:** 어머니-(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눈물을 흘린다.)

**현심:** 금희.

**어머니:** 원 자식두...됐다. 그만해라, 애야, 그럼 어머니와 같이 가자꾸나, 응? 금희야!

**금희:** 어머니!

**경옥:** 어머니!

**창수:** (다가서며)어머니,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 아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전 오늘에야 우리를 키워준 어머니의 그 심정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창수야...

**성민:** 그래!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것이 천가지 만가지라구 할가...거기서 단 한가지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면 그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어려울 때일수록 **김정일** 장군님을 더 잘 받들구 장군님과 생각을 같이하구 걱정을 같이하는 장군님의 친아들딸이 되길 바라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다.

**창수** : 아저씨!...

△이때 군당일군이 들어온다.

**군당일군** : 아, 교육과장동무두 여기 있었구만.

**성민** : 군당비서동무!

**군당일군** : (다가서며)거 원장동무!...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심계골에 중소형발전소가 완공됐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이 올린 원장동무에 대한 자료를 친히 보아주셨습니다.

**어머니** : 예?

**군당일군**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읍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발전소에 세명의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을 꾸린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구 하시면서 원장동무가 부모없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훌륭히 키워 나라의 어려운 초소에 내세웠다는데 정말 좋은 동무라고, 그런 동무이기에 당에서 관심하는 중소형발전소를 위해 헌신할수 있었다고... 자신께서는 그런 애국적인 아름다운 소행을 보고받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면서 원장동무의 그 참된 마음은 승리의 래일을 위해 전진하는 시대의 자랑이라고 높이 치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동무에게 친히 자신의 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원장동무!

**어머니** : 장군님께서요?!

**성민** : 원장동무!

**창수** : 어머니, 장군님께서 어머니를 알아주시다니요.

**현심** : 정말 꿈만같아요. 어머니!

**금희** : 어머니! 어머니! ...

**어머니** : 금희야... 장군님께서는 바쁘신 현지도의 길을 지체하시면서 아직 이고장 사람들도 미처 가보지 못한 저 험한 심계령을 걸으시며 우리 군인민들의 생활을 위해 발전소를 세울 방향과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늘같은 사랑을 안겨주시구나! 애들아...

**군당일군** : 원장동무, 정말 그렇습니다.

**정옥** : 어머니!

**어머니** : !... (감격에 눈굽을 적시며 목이 메인다.)

**금희** : 어머니, 전 장군님의 고마운 은혜를 잊지 않고 어머니처럼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에서 참된 인생을 꽃피우겠어요! 어머니!...

**창수** : 어머니!

**어머니** : 그래, 세상에 우리 장군님같은신분은 없다. 너희들두 잘 알지만 이 어머니에게 돈이 있었니 재산이 있었니? 추울세라 배고플세라 너희들을 품어주고 키워주신분은 어버이장군님이시니!... 우리 일을 더 잘해서 장군님을 잘 모시자꾸나. 장군님을 잘 모셔야 우리 조국이 번영하구 우리 삶이 빛난단다!

자식들 : 어머니!!

△모두 승업한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성민** : 원장동무, 거 전기물망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꼭 책임지구 보내겠습니다. 허허.

**어머니** : 고마와요, 과장동무!

**창수** : 어머니, 우리 다같이 발전소마을에 가서 유치원개원식두 하구 가정생일잔치두 하구 장군님의 사랑을 전하자요.

**어머니** : 그래 그래...

**군당일군** : 허허...금희동무,심계골에 가서 앓지 말구 일을 잘하라구! 그래서 금희두 뜻깊은 우리 공화국창건 50돐 대축전장에 승리자의 기쁨안구 땀땀이 들어서야지! 허허!

**금희** : 알겠습니다. 비서동지!

**정옥** : 장군님의 사랑을 안고가는 누이가 정말 부럽군요. 호호.

**금희** : 형님!...저 오빠, 언니...어머니!이 기쁜 날에 제가 어머니한테 노래를 불러드리겠어요.이 딸의 새 출발의 노래를 말이에요. 호호

**어머니** : 어서 부르렴, 허허.

**정옥** : (손퐁금을 가져다주며) 자요, 누이! 어서 불러요.

**금희** : 형님두...언니두... (손퐁금을 메며). 오빠두 우리 다같이 부르자요.

**창수** : 금희야!...

△금희 밝은 웃음안고 손퐁금을 탄다.

△어머니와 자식들이 행복과 랑만에 넘쳐 노래를 부른다.

심계천물결우에 노을이 비끼고  
어머니 그 마음 내 심장 울려주네  
아, 당을 따라 한마음 변함없이  
내 심장 조국의 불꽃이 되리...

△배경속에 심계마을에 우렁이 솟은 중형발전소가 펼쳐진다.

△노래속에 서서히 막이 내린다.

# 성강의 구내길이어

김만영

불노을 피는 철의 지구라면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길이어라

성강의 구내길은

허나

지구의 가장 넓은 길 한가운데

내 서있는듯

거창한 력사의 큰길을

내 걷는듯

가슴은 세차게 뿔뛰거니

이 구내길에서 울리는 심장의 교동소리는

그리도 크고

이 구내길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그리도 뜨거운것 아니더나

혁명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

사회주의운명과 직결되어있는 이 구내길

강성대국의 대문과 곧바로

잇닿아있는 길

아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며

우리 장군님 걷고 걸으신

력사의 길

성강이 자랑하고

조국이 자랑하고

우리 당이 자랑하는

혁신자도 영웅도 승리자도

이 길에서 태어나리

이 길을 걸으리

쇠물빛노을을 비껴담고

충성스런 성강의 발자욱을 새겨안고

더욱더 넓어지라

성강의 구내길이어

90년대 천리마가 나래펼친

강행군의 큰길이어!

-성강에서-



#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사상을 적극 구현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중요과업

김선일

오늘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우리 작가들은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을 받아안고 크나큰 감격과 흥분에 설레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4월 18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강령을 밝혀주시어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를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서한에서 민족대단결의 본질과 기초,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의 독창성과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여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단결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외세의 지배와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온 민족이 서로 접촉, 대화하고 련대련합을 강화할데 대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킨 력사적문헌이며 현시기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준 불멸의 총서이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을 받아안게 된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경사이며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를 내다볼수 있게 하는 일대사변으로 된다. 지금은 겨레와 함께 우리 작가들의 가슴가슴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대헌장인 새로운 민족 대단결총서를 발표하시어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에 휩싸여있으며 민족대단결사상을 구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드높은 맹세로 타변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로작은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고 민족최대의 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위업수행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것으로 하여 조국통일주체문학작품창작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불멸의 기치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전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복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을 구현한 문학작품을 활발히 창작하는것은 오늘 우리 시대와 민족의 절박한 요구이다. 민족분단의 반세기가 넘어선 오늘까지 우리는 아직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지 못하고있다.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무너지고 압박받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주독립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때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한 민족분렬의 고통을 반세기이상이나 겪고 있는것은 도저히 참을수 없는일이 다.

오늘 우리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나라의 안팎의 정세로 보나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시대의 추세로 보나 지금이야말로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통일된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으로써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 겨레의 통일기운은 비상히 높아가고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은 꺾을수도 막을수도 없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렬해지고있다. 우리는 어떻게하나 어버이수령님의 가장 숭고한 뜻이었고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인 조국통일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이러한 시대적요구와 민족사적과제를 해결하는데서 응당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이것은 민족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해야 하는 문학의 근본사명이기도 하다. 지난 시기 우리 문학분야에서는 당의 민족대단결사상을 구현한 작품창작에서 적지 않은 성과와 경험을 이룩하였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푸른 하늘》, 영화문학 《위대한 품》, 가사 《반갑습니다》, 《통일오작교》 등은 우리 당의 민족대단결사상을 형상적으로 심오하게 구현한 성과작들이다.

그러나 시대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성과는 아직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문헌을 높이 받들고 민족 대단결의 위대한 사상을 구현한 가치있는 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위업 실현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

민족대단결사상을 구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 먼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으로 훌륭하게 형상하는것이다. 단결의 공고성과 생명력은 천만의 대오가 위대한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굳게 뭉치는데 있다. 오늘 우리 민족대단결의 중심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다.

일찍부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해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적극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오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민족대단결구상과 조국통일로선은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민족의 령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과 품격에 있어서나 장구한 기간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탁월한 령도력에 있어서나 그리고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특출한 위대성과 최고의 권위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민족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로, 회세의 천출명장으로 훌륭히 형상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또한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한없이 넓은 도량과 감화력을 지니시고 온 민족을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겨레를 하나로 묶어세우시는 민족대단결의 유일한 중심이시라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만이 해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의 운명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라는것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 5대방침의 기치따라 민족적화해와 단합이 이룩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이 거세차게 벌어지는 민족사의 자랑찬 흐름을 감명깊게 보여주어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에 대한 형상은 또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평생을 바쳐오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민족대단결의 줄기찬 력사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그려야 한다. 이것은 형상대

상의 특성과 사상주제적내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작가들이 해방후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단선단정》조작책동으로 민족분렬이 고정화될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이 다른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민족공동의 대책을 협의하고 견해의 일치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한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대한 작품을 무게있게 창작한다면 해내외의 동포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한없는 로고와 품모, 민족대단결의 경험과 업적을 가슴뜨겁게 인식시키고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과 열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줄수 있게 될것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우리 문학이 그려야 할 생활은 대단히 많다.

격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이 열리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 마련되던 나날에 대한 형상, 범민족대회를 비롯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떨쳐나서던 감격스러운 나날에 대한 형상, 온세상이 다 아는 《통일의 꽃》에 대한 형상, 북과 남에서 헤어져살면서 생사여부조차 모르던 혈육들이 뜨겁게 상봉하는 내용에 대한 형상 등 아직 우리 작가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분야는 적지않다.

참으로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킨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한없는 로고를 깊이있게 그리는데는 우리 작가들의 더없이 신성하고 숭고한 의무이며 량심이고 도리이다.

이러한 형상은 우리 문학의 기본형상과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주체 문학의 화원을 더욱 꽃피우는데 이바지할뿐아니라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에 커다란 고무와 힘을 주게 될것이다.

민족대단결사상을 구현한 작품창작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주체의 민족관에 기초한 민족자주, 애국애족의 철학을 심오하게 밝혀내는것이다.

철학적무게가 있는 종자를 심고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을 보장하는것은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민족대단결사상을 구현한 문학작품에서는 응답주체의 민족관에 기초하여 민족의 운명개척의 근본진리를 심오하게 일반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작가들이 주체의 민족관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 우리 당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주체사상을 민족문제에 구현하여 내놓은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가장 폭넓은 민족단합의 사상이다.

주제사상은 처음으로 민족발전의 합법칙성과 민족단결의 기초를 과학적으로 밝혔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다.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것만큼 민족성원들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과 뗄수 없이 결합되어있으며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기본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이다.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성과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은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을 묶어세우는 민족적단결의 기초로 된다.

우리 당이 밝혀준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압박받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인민들이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지향해나가고있는 우리시대의 기본흐름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며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높고 단결력이 강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과 우리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 조국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는 오늘의 실정을 반영한 가장 올바른 사상이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의 민족관을 확고히 지니고 문학작품에서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깊이있게 구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민족자주, 애국애족의 철학을 심오하게 밝혀내는것이다.

문학작품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누구도 살아갈수 없으며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족의 어느 계급, 계층도 자기 운명을 바로 개척해나갈수 없다는 사상을 심오하게 밝혀야한다.

그리고 민족의 자주성에 나라의 존엄과 영예가 있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이 있으며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기상이 있다는것을 힘있게 해명하여야하며 민족의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의 연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리익, 민족성과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고 민족적 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 진리를 예술적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애국애족의 정신과 고유한 민족적기질을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창작에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를 뛰어넘어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할데 대한 사상을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족의 념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것없이 민족공동의 위업,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길

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형상하는것이 필요하다.

민족대단결사상을 구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형상의 폭과 깊이를 대담하게 해결하는것이다.

형상의 폭과 깊이를 대담하게 해결하는것은 민족대단결사상을 구현해야 하는 이 주제작품의 사상미학적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문학작품에서 민족대단결사상을 구현하자면 어차피 민족의 각이한 계급과 계층, 각이한 사상과 리념을 가진 인물성격과 그들의 다양하고 극절많은 생활을 그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로부터 우리 작가들은 민족의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서로 다른 성격을 깊이있게 탐구하여 폭넓은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우선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단결하고 조국통일위업에 기여하는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물의 성격창조에서는 어느 한 계급과 계층에 국한시키지 말아야 한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와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군인들 각이한 계급과 계층을 다 형상대상으로 삼을수있다.

물론 우리 작가들은 외세의 지배와 남조선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끊임없이 용감하게 투쟁하는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한때 길을 잘못들었다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들어서는 인물의 형상을 잘 그려야 한다. 비록 과거에는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오늘에 와서 진심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는 인물의 성격창조는 전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자못 의의가 크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창작에서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 인사들, 대자본가,군장성들에 대한 형상에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경험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작가들은 지난 시기의 창작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형상창조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에 대한 형상에도 주목을 돌려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 이루어질수 없다.

우리 작가들은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우리

민족을 둘로 영원히 갈라놓고 지배하려는 미제의 변함없는 야망을 폭로단죄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에서는 우리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남조선통치배들을 동족과의 대결으로 부추기며 남조선에 계속 미군을 주둔시키고 끊임없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 미제의 죄행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하여 그려야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일신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위하여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의 물골을 적라라하게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민족반역자들에 대한 형상은 누구든지 외세를 등에 업고 외세와 《공조》하면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반북대결정책을 추구한다면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것이며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줄수 있다.

우리 당의 민족대단결사상을 구현한 작품창작에 서는 문학의 모든 형태에 걸쳐 전면적으로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형상수법을 다양하게 리용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력사적시대의 요구에 맞게 확고한 신심과 드높은 열정을 가지고 민족대단결사상을 구현한 조국통일주제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 영원한 메아리

한찬보

하늘높이 솟은 개천문앞에 서니  
락락장송 솔푸른 환영대회장  
력사의 그날로 내 마음 내려치도다

오늘도 그날처럼  
맑게 개인 10월의 하늘아래  
메아리치던 만세의 함성  
조국의 구원자  
민족의 태양  
만고의 영웅을 환호하던  
그날의 감격 가슴 흔드누나

기쁨과 감격  
심장의 분출이 그대로 옮겨진  
프랑카드들과 기발들  
누구나 키쫂구는 어른들이 앞에 섰었  
깡충깡충 뛰어 서야  
단상에 오르신 **김일성**장군님을  
순간순간에 뵈웁던  
그날에 나는 학생이었다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환호성  
설레이는 인파우에 태양같이 떠오르시여

한손을 높이 흔드시며 하시던 말씀  
오늘도 귀가에 쟁쟁하구나  
오늘도 이 하늘아래 꼭 차올리누나

또박또박 이 가슴에 새겨지던 메아리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아, 위대한 자주의 명언  
조국건설의 불멸의 대강이여

머리에 흰서리 내린 오늘도  
젊음에 살게 하는 말씀이여  
내 늙음을 모르고 지칠줄 모르고  
열정과 힘을 주는 메아리여

아, 위대한 그날의 연설은  
오늘도 만민의 심장을 흔드나니  
세월을 넘어 그날의 메아리는  
주름살 만져보며 마음 약해질 때도  
개천문앞에 엄하게 나를 세워  
조국위한 청춘의 삶을 안겨주도다

## 보통날의 하루

## 1

사람들은 아마 내가 휴식일을 싫어한다고 하면 대뜸 왕거짓말쟁이라고 할 것이다. 목재배정지도원으로 립산사업소에 내려가있으니 한적한 합숙방에서 온종일 통나무처럼 덩굴며 오죽 좋을테냐고...

그러나 나는 사실 일요일, 특히 비가 철철 내리는 휴식일이면 더욱 싫어한다.

바로 아무 일감도 없는 그런 날이면 요즘 나홀로 남모르게 겪고있는 고민, 그 지긋지긋한 생각들이 앞산마냥 덩그러니 눈앞에 떠오르기도 하고 작은 틈으로 커듯 집요하게 머리속을 썰며 파고들기도 하는데 그것은 순제 팜으로 미역을 감으며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진저리난다.

(...수도건설지휘부에서는 나를 왜 그 벅찬 건설장에 그냥 두지 않고 이 먼 립산사업소에 상주시켰을가? 아직 마흔도 안됐는데 어째서 50 늙은이에게나 맞을 일거리를 맡겼을가? 나한테서 늙은이냄새라도 나더란말인가?)

몇해전까지 청년돌격대 참모장까지 한 사람인데로인가발을 쓰지 않은 다음에야 무슨 그런 냄새가 벌써 난다고 뒤전으로 쪽 밀어놓는단말인가. 분하다. 무슨 착오가 있어 나는 인생 40에 벌써 황혼을 예감하며 이런 몸부림을 해야 한단말인가? 정녕 그 착오는 뭘가?...)

로동과 함께 단순하게 사고하는데 습관된 나는 이렇게 줄곧 낚시코처럼 후비고드는 고민이 딱 질색이었으며 그런 번민을 구름처럼 불러오는 휴식일이 끔찍스러웠다. 이날도 나는 조금만 더 있으면 사람 살리라는소리가 저절로 터져나갈것만 같아 번민을 대번에 가서줄 구경거리나 일감을 찾으려고 합숙방을 급히 나섰다.

그러나 사방에 둘러선것은 금시 눈섭위로 밀려내려오는것 같은 아찔한 산봉우리들뿐이요, 게다가 아침부터 검은 구름장들이 그 산봉우리들을 성난 독수리마냥 덮치고있으니 구경거리는 물론 시원한 일거리 하나 쉬 찾을상싶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마을쪽을 향해 걸었다.

느닷없이 얼마전 나의 이런 버릇을 일군의 일욕심으로 잘못 보고 높이 《평가》하던 이 고장 《정춘실운동》 책임자 오금단이라는 처녀의 말이 귀전에 새로왔다.

《석호지도원동지한테 하루를 분과 초로 쪼개가며 사는 아주 좋은데가 있어요. 그건 꼭 평양에 있는 누구와 비슷해요.》

나는 처녀에게서 누구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물어주었으면 하는 기미를 느꼈으나 짐짓 묻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분명 이 나라에 이름있는 영웅이거나 큰 일군들중의 한명일것이기 때문이었다.

어쩐지 그들은 나처럼 고민부터 잊자고 하루를 분과 초로 계산하며 살지 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하니 자신이 더없이 가없게 여겨져 구슬퍼지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벌써 비가 내리려는지 뒤산너머에서 우뢰우는 소리가 먼 포성처럼 들려온다.

그 포성의 메아리를 타고 합숙에서 겪던 고민의 파편조각들이 다시금 뇌리속으로 흘러드는것이 뚜렷이 알린다.

내가 이리로 떠나올적에 그곳의 한 친구는 위로 한답시고 이런 말을 했었다.

《석호, 그건 다 자네가 여직껏 모르고 살던 주패를 배운탓이구 술을 배운탓이야.》

나는 어이없어 웃다가 퍼르르 화를 냈다.

《그럼 주패를 알구 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진달뱅이>이겠군그래?》

《아, 그게 아니지. 내가 말하자는건 그게 아니라니까. 모르고 살던 그것들을 알 여유가 생겼다는 그것, 바로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거야. 생활이란 그 어떤 계산기보다두 더 엄밀한것이거든.》

《그럼 이제라도 주패, 술... 다 버버리면 되겠구만.》

시시평당한 소리라고 툭 씹버리고 오긴 했지만 추억의 잔향이 되살아 나군할적마다 왜선지 노래마감의 후렴처럼 반드시 떠오르곤하는 작고도 예리한 파편조각이었다...

마을에 내려왔다.

그러나 웅건한 산발들의 위엄에 주접이 들줄 아느냐는듯 2-3층으로 흰돛마냥 우뚝우뚝 솟은 립업로동자들의 마을에서는 어떤 일거리 하나 찾을수 없었다.

나는 몽유병환자처럼 이곳저곳을 더 찾아다니다가 립산후방기지들이 늘어서있는 기슭쪽으로 향했다.

마침 저기 장공장 아래켠에서 녀인들 몇흙가마니들로 발뚧을 쌓노라 법석 하는것이 보였다.

전날 비에 발을 뭉청 큰 길밀수로관으로 다 흘러 보내고나더니 또 한소나기 퍼부을것 같은 하늘의 심술스러운 소동에 그만 겁들이 나서 달려나온 장공장 녀인들인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 큰비가 다시 내린다면 물매급한 이곳에서 저 가마니들이 무슨 뚝구실을 제대로 하랴.

나는 굵직한 통나무들로 말뚝을 박고 그 안쪽에 다 흠가마니를 쌓아야 한다는 조언을 어서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금단책임자를 찾아 부지런히 부업지 사무실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나는 그곳 사무실에서 너무도 예상치 않았던 일과 부딪치는바람에 그만 찾아온 용건을 깜빡 잊고말았다.

금단이가 상글하게 휘어나간 눈섭밑에 한가득 눈물을 담고 너인들속에서 울고있다가 나를 보기바쁘게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기때문이었다.

나는 의아함을 금할수 없어 한쪽구석에 몰켜섰는 너인들에게 물었다.

《왜 그러오?》

《...》

누구도 선뜻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불쑥 무슨 불상사라도 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사연을 다시금 서둘러 물었다.

한 너인이 한숨부터 내쉬더니 말을 시작했다.

《...우린 그사이 수도건설자들한테 통나무들만 실어보내곤하는것이 마음에 걸리군해서 지원물자를 좀 준비했었어요. 염소, 돼지, 산나물, 감자, 콩, 강냉이... 실히 한차분에 달했지요.》

《그런데 ?》

나는 그런 홀륭한것을 마련해놓고 어째서 울상들인지 그 이유가 더욱 궁금하여 다그쳐물었다.

《그런데 글썽 정작 가져가야 할 사람이...딱 거절하는군요.》

《저런? 누가?》

《자동차를 몰고... 그 돌격대... 총...》

《돌격대총각? 어디 좀 모자라는 사람인게구만.》

《모자라다뇨, 우리 금단책임자의 애인인데.》

《어영?》

나는 실수했다고 생각하며 얼른 화제를 바꾸어 날씨가 하도 소동스러우니 제정신을 못차리겠다고 몇마디 두덜거리고나서 상당한 정도의 정중성을 기해가며 지금 금단의 애인되는 그 청년이 어디 있는냐고 물었다.

《좀전에...우리 금단책임자한테 나무람을 쓰구 사업소쪽으로 올라갔어요.》

《헛참, 난 그 청년이 자기 애인의 성의에 대해 왜 나무람을 쓰는지 그것부터 어서 좀 알고싶다는데 두!》

내가 한발 나서며 안타까와하자 너인들도 간단명료하게 대답하기 시작했다.

《일요일이지만 창문틀생산이 너무 바빠 달려내려왔는데 지령에도 없는 먹는걸 싣고가면 난 무슨 꼴이 되는가?》

다른 한 너인이 재담의 대역을 수행하듯 금단이를 대신해서 대답했다.

《지령문제라면 걱정말라. 여기에 요즘 수도건설지휘부 석호지도원이 내려와있는데 그가 다 평양에랑 연락해줄것이다.》

《석호? 그 호랑이가 여기 내려와있나? 그렇다면 더 그러지 못한다. 못해!》

《뭘뭘, 호랑이?》 나는 뜻밖에 내가 거들리우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소리쳐 물었다.

그러나 너인들은 제잡담 그냥 말을 엮어나가고있었다.

《호랑이게 뭐예요. 얼마나 양처럼 양순한 사람이 라구-》

《무서운 호랑이라는데두!-》

《암전한 양이라는데두요!》

《그래서 난 이제 그 동지앞에서 인생 총검열을 받아야 한다는데두!-》

《총검열하자고 들 사람이 아니라는데두요!》

《아 거 그 녀석의 이름이나 좀 대주고 떠드오!》

나는 슬며시 속이 번져와 짹 소리쳤다.

한 너인이 정우라고 부른다고 대답했다.

정우?...

기억에 없다. 아무리 추억의 갈피갈피를 헤집어 보아도 삭막할뿐이다.

그런데도 그 청년은 나를 아는체하며 거들어? 혹시 나는 그를 몰라도, 그는 나를 알수도 있겠지. 돌격대시절에 수백명이나 데리고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름도 기억에 없는 녀석이 나를 그처럼 아는체할수가? ...

아니 혹시 그 녀석은 평양에 가서 다른 한 처녀와 정을 나누고 금단의 앞에 와선 그런식으로 마음을 거두려는 자기 립장을 표명하는게 아니야?

금단이도 무슨 조짐을 느꼈기에 울지. 어서 알아 봐야겠군. 어서 더 말을 시켜야겠어...

《자, 어서들 계속하오. 아주 재미있구만.》

그러나 너인들은 그세 말할 흥들을 다 잃은듯 더 말할게 없다고 했다.

《없다니? 내가 호랑이니 양이니 하는 소리밖에 더 했소? 막이 닫기려면 아직 멀었다니까. 책임자가 울게 된 사연이 절정같은데 어서 이자 그런식으로 다 털어놓소.》

《...울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울어봐서...》

한 너인이 이러자 금단이를 대신하던 너인도 흥심없이 그의 말을 잇대여 나갔다.

《정우 그 사람이- 유혹이라는데 판게 아니다. 이렇게 나라일보다 자기에게 리로운것부터 생각하게 하는게 유혹이다. 정녕 어쩌다 중요임무를 받고 내려온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놓아야 옳은가? 모든 날들을 최후의 날처럼 여기며 살자 약속했으면 이하루도 장하게 살도록 도와줘야지 자꾸



동요바람부터 일으켜놓으면 내 힘들어 어떻게 평양까지 돌아가겠는가-》

나의 귀에는 이미 그 녀인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모든 날들을 마감날처럼 여기며 살자?)

가슴에 먼 포성같은 소리가 다시금 울려오고 옛 시절에 부르던 장중한 선율같은것이 온몸으로 퍼져간다.

한순간 눈앞으로 벅찬 돌격대생활이 사뭇쳐갔다. 그렇다. 그 시절에 들은 소리다. 아니 말이 홀룡해서 나 자신도 몇번 외운것 같다.

흘러간 세월의 눈비속에서 글발들은 퇴색하여 기억속에 자자구구 명백치 않지만 자주 입에 올리던 말인것만은 틀림없다. 오늘에 와선 그것이 한때 멋으로 외웠다는것이 분명하지만 그때는 목숨과도 기꺼이 바꿀 좌우명으로 여기며 살았었다.

아마 그때 정우라는 청년도 무슨 일인가로 해서 나한테서 그 불같은 말을 듣고 이게 무서운 호랑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은 모양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아직도 그 말을 외우며 살수 있을것인가.

순진한 사람으로군. 너무나 정도로...

그런 사람한테 호랑이처럼 군 나도 너무나 사람이고...오늘까지도 별별 펄게 만들다니...

그러고보면 언젠가 금단이가 평양 누구와 나를 비한것이 바로 그 녀석 이였어. 큰 일군인줄 알았더니만 시시하군. 체면깎이겠는걸. 어서 떠나보내야지. 가뜩이나 내 인생이 기운 리유를 알지 못해 번열이 날 지경인데 별 시시결령한 일거리가 다 찾아드는군. 당장 후방물자를 싣고 떠나라고 불호령을 펴줘야지...

나는 그바람으로 립산사무실로 달려왔으나 그 청년을 만날수 없었다. 나를 만나야했다면서 채벌장으로 올라갔다는것이였다.

《아니, 날 만나겠다는 사람이 거긴 왜 올라간단말이요?》

나는 정문경비원에게 물었다.

《그 청년의 말이... 석호지도원동진 전투현장에 가있을분이라더군요.》

홍팩밀에서 뭔가 불끈하는것이 알렸다.

(싱거운 녀석같으니. 누구더러 감히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거야?)

나는 그를 그냥 내버려두면 망신을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비원에게 어서 그 청년을 찾아 내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거의 명령조로 말했다.

## 2

내가 팔걸이의자에 앉아 종이 반시간이나 기다렸을 때에야 누군가 복도로 혈금씨금 반달음해오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속 모든 금선들이 자그마한 틈개에 의하여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바싹 조여지는듯한감을 느끼는데 손기척소리와 거의 동시에 문이 벌컥 열리더니 키가 꺾실한 청년이 무엇에 떠밀리우기라도 한듯 쉼 들어선다.

《참모장동지, 접니다. 정우입니다.》

어떻게나 잘 아는 사이로 못박으며 반가와하는지 나는 그만 고까운 심정을 가슴에 안은채 그리고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얼굴도 미처 뜯어보지 못한채 덩달아 활짝 웃기부터 하였다.

손들을 마주 쥐고 오래간만이라느니, 잘 있었느냐느니 하고 한참 떠들여댄 후에야 나는 눈박아 청년의 얼굴을 살피었다.

처녀의것과 같은 가느다란 눈썹, 웃음을 담고 연방 깜박거리는 눈, 키처럼 쭉 빠진 목...아마도 보이지 않는 뒤쪽에서 비쳐오는 금단책임자의 애인이라는 후광이 없었더라면 청년은 못난이축에 속하는 키적다리로서 나를 무척 실망케 하였을것이였다.

《1려단에 있었던가?》

《아닙니다. 3려단.》

《아, 3려단이였지.》

먼저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잠시 입을 다물고있자 정우는 웃사람들의 그런 실수쯤은 흔히 있을수 있는 일이란듯 조금도 낮빛을 달리하지 않으면서 자기쪽에서 해후의 기쁨을 계속 떠나갔다.

《참모장동지가 내려올적마다 1려단이 뚫었지요. 번쩍 정신도 차렸구. 저한테두 늘 주의, 경종을 울렸지요.-57호운전사, 동작이 굵떠! 내 불의에 한번 운전간에 오를테요!-그런데 저에 대한 검열은 못하지 않게두 전연이 멀지 많은 철도건설장에서 있었지요. 생각 안나십니까? 우리 1려단에 내려왔던 그 저녁...》

전연이 멀지 않은 철도건설장?...아, 드디어 생각났다.

...해질무렵 3려단에 회의지도때문에 내려갔던 나는 키다리운전사가 엮어 질듯 달려오며 좁전에 자기 차가 숲속에서 적간첩놈의 수류탄공격을 받았다고 떠드는바람에 한길 뛰며 놀래었다.

어떤놈이 감히 채 어둡기도전에?

그러나 운전사는 앞바퀴쪽에서 분명 화광과 폭음이 요란히 터져올랐다는것이였다. 나는 다소 두려운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두 대원을 끌고 현장으로 달렸다. 그런데 이런 맹랑한 일이라고야...

차는 무사했으며 놈들의 《습격》을 받은 흔적조차 찾아볼수가 없었던것이다. 다만 앞바퀴가 예리한 돌부리에 찢려 풀썩 물러앉아있을뿐이였다.

운전사는 창피해했으나 나는 그냥 웃어넘길수 없다고 생각했다.

《운전사는 물론 돌격대원 자격도 없소! 차는 버리구 제 목숨만 살리겠다고 내뿜었으니 이거야 투항이지 판계요?》

《…》

운전사가 그 긴 허리를 어떻게나 깊이 숙였던지 나는 그가 내 말을 듣지 못할가봐 걱정될 지경이었다. 하여 나는 무릎을 끼고 앉으면서 주먹으로 땅을 두들겼다.

《이렇게 자기부터 생각하면 나라일이, 혁명이 어떻게 되겠는가말이요!》

운전사는 내앞에 꼬꾸라지듯 폴썩 주저앉더니 끼이끼이 울기 시작했다.

가엾은 생각이 가슴밀굽으로 저미고들었으나 나는 그를 위해 값죽은 동정은 삼가해야 한다고 마음을 사려먹었다. 실컷 울도록 내버려두었다가 다소 어성을 낮추어 말했다.

《자기한테 겁이 많아서만 이런 망신을 당한다고 생각해선 안되겠단말이요. 문제 지금 동무한테 오늘의 이 하루가 혁명의 하루이구 그런만큼 최후의 날처럼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자각이 없소. 그런 신념만 강하다면야 제 목숨부터 돌보려는 너절한 생각이 나올테요?》

《…》

운전사는 돌처럼 굳어진채 내 말을 온몸이 귀가 되어 듣고있었다.

그후 어느날 운전사는 나를 찾아왔다. 그는 머뭇거리며 수첩을 내밀더니 전날 내가 마무리짓던 말을 수고스러운대로 좀 적어달라고했다.

나는 그의 불구슬같이 이글거리는 눈길에서 전날의 나의 말이 그의 신념으로도 되었다는것을 알았다. 나는 기쁨을 안고 수첩을 받아들면서 말했다.

《썩죽지, 그렇지만 이진 나의 신념이기도 하니가 같이 맹세 다지는것으로 하자구.》

웃는지 우는지 모를 소리가 나의 왼쪽 귀바퀴를 간지럽히며 들려왔다.

조금후에 나는 원주필을 고루어쥐고 전날의 말을 간략해서 힘박아 써나갔다....

바로 그때 그 운전사가 오늘도 내곁에 와 앉아있는것이다. 나를 은인이나 형님처럼 한없는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따르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누구나 자기 존재가치를 의식하며 흐뭇해하듯이 나역시 오래간만에 폐부속으로 찾아든 긍지로운 감정을 기쁨속에 맛보며 스스로 보기에도 우아한 동작으로 정우의 어깨를 가볍게 껴안았다.

《고맙구만, 오늘까지도 잊지 않고있으니.》

《잊다니요. 제가 그걸 잊으면 인간이 아니지요.》

《히, 그래... 그런데 이보라구. 팔도강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심산유곡 립산처녀를 택했나?》

《그것도 지도원동지덕이지요.》

《뭘, 내 덕?》

나는 놀라움과 기쁨이 한데 엉킨 어조로 물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네. 이곳 립산사업소 인입선공사를 할 때였는데...》

정우는 즐거운 이야기를 나한테 전하게 된것이 무엇보다 기쁜듯 연방 웃어가며 계속했다.

《...아찔령마루쪽에서 난데없는 감자배낭 하나가 돌덩이처럼 돌돌 굴러내려 오지 않았겠습니까. <정춘실운동>을 하려 깊은 골안으로 들어가던 이 고장녀인들이 마루쪽에서 쉬다가 아차 실수로 굴러내려 보낸게 분명했습니다. 녀인들은 기슭에까지 내려오기가 힘드니까 돌격대원들 잡수시오 하고 그냥 간게지요. 우리 동무들은 립산녀인들이 수고하는 우릴 생각해서 내려보낸것 같은데 어서 구워먹자고 떠들썩했습니다. 저도 그러고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저의 귀가에 우뢰쳐오는 엄한 호령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오늘도 최후의 순간에 살지 않을 작정이냐.-

저는 회닥닥 감자배낭을 둘러메구 아찔령마루를 향해 상사말처럼 울리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사람구실을 하는것 같았으니까요. 립산녀인들은 저를 몹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땀뚱이가 되어 찾아온 저를 금단이라는 처녀가 레사롭게 보지 않더라말입니다.》

《하-거 정말 소설같은 얘기로군. 아주 자랑찬 인생행로야. 나도 생각이 많소... 음... 그렇지만 이보라구.》

나는 그만 한담을 하고 어서 본론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며 계속했다.

《...아직 막대기들은 신지 않았겠지?》

《막대기라뇨?》

《통나무말이야. 차에다?》

《네. 목재말입니다. 지도원동지가 배정해주셔야 신지요.》

《음. 진 잘했소. 내 이자 동무를 기다리는 사이 평양에다 전할했소. 후방국장한테. 그 사람 어떻게나 좋아하던지. -막대긴 다음날 실어와도 돼. 지원물잔 오늘 실어오지 못하면 다른데로 갈수 있단말이야! 아무 소리 듣지 않도록 다 말해둘뿐만아니라 속보에도 크게 내도록 조직해놓을테니까 어서 실어보내라구! -하더구만. 그 사람 나까지 내줄 소리를 하면서... 허허허...》

웃던 나는 우뚝 놀라며 굳어지지 않을수 없었다.

정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점점 사라져가고있었을 뿐만 아니라 눈구석에서는 이미 불만의 불꽃이 세차게 타번지고있었기때문이었다.

《아니 왜 그러나? 정우가 한번 특색있는 일을 하면 나도 기쁘겠구 해서 그러는건데?》

정우는 잠시 더 나를 처음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있더니 눈길을 떨구며 말했다.

《저를 내세워주려는 마음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목재를 싣고 가야 함...》

《전환 했는지 알아!》 나는 그의 말허리를 툭 잘라버리며 다소 짜증을 냈다.

《전화가 문제 아닙니다. 바로 그 후방국장이 이번에 우리 려단에 내려오게 돼있는 통나무들을 우선 바쁜 대목부터 메꾸고보자면서 후방물자와 바뀌치길하는 바람에 제가 부랴부랴 내려오게 된건데...건설장에선 당장 창문틀 만들 목재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음, 그렇다?...》

나는 정우의 립장도 딱하지만 지금쯤 벌써 입빠른 후방국장이 책임일군들한테 나의 이름도 거들어가며 보고했을텐데 이 일을 어찌나하는 생각이 더 난감하게 눈앞을 가리웠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기간 건설과 그 과정에 다루게 되는 각종 자재와의 사이에서 능해질대로 능해진 이 석호의 눈앞을 아주 가리운다는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인차 해결책을 찾은 나는 자신의 명석한 두뇌에 스스로 만족을 느껴가며 프직프직 입을 열었다.

《창문틀 목재가 문제라면 그건 내가 제껴 풀어주겠네. 어제 4 공공사업소에 목재를 한차분 더 보냈는데 곧 그쪽으로 돌리도록...》

희망으로 밝아질듯하던 정우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지자 나는 저자기 놀라운 어조로 물었다.

《아니 그것도 싫단말이요?》

《...》

정우는 뭐라 대답할듯하더니 한숨만 푹 내쉬고만다.

《허 이런...호랑이앞이라구 별별 편다기에 양이 아니라 토끼로까지 물러났는데 내 이제 뭐 더 해야 동물 만족시킬수 있겠소?》

《전...전...》

정우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힘들게 계속했다.

《그 호랑이로 그냥 남아있어달라는겁니다.》

《뭐요?》

《이 하루도 최후의 날처럼 여기라구 채찍을 높이 쳐들어 달라는겁니다!》

《허허...헛참.》

나는 내 얼굴에 어리는 뜨스한 홍조와 어쭙은 미소를 감득했다. 그리고 그 순간에야 뒤산쪽에서 울

던 우뢰소리도 턱밑에 와서 지금 막 성을 공격하는 진군북처럼 요란하게 울고있으며 비도 역수로 퍼붓고 있다는것을 알았다. 정우는 내친김에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려는듯 했다.

《섭섭합니다. 정말이지 참모장동지가 이렇게 달라질줄은, 령감이 다 됐을줄은...》

창밖에서 불채찍같은 번개가 대지를 후려칠적에 내 가슴속에서도 뭔가 터지는것이 알렸다.

《아 여보, 말을 좀 삼가하요!》

《...》

정우는 나의 호령에 입은 다물었으나 두 어깨는 지진 만만 바위처럼 떨고있었다.

《나야 그런 정신으로 살라는거지 황금덩이를 곁에 놓고도 막돌을 쥐는 머저리가 되라는것은 아니란말이요. 하루쯤 그런들 어쩔단말이요? 애인도 좋아할거구 평양동무들도 다 좋아할텐데. 그러구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야.》

나는 너무 부엌계 신경을 돋켰다는 생각이 들어 말을 끊고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러나 나는 웃사람의 지위가 너무도 여지없이 지리밧혔다는 불쾌감과 압박감때문에 한모금의 담배연기도 들이킬수 없었다.

내가 담배를 다시 비벼끄자 정우는 안된듯 다소 누그러진 어조로 입을 열었다.

《너무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지원물자는 먼데 사람들한테루 날라가지 않아도 드릴 사람이 있는것 같아서...아까 채벌장에 올라가니까 휴식일인데도 모두 나와 수고를 하더구만요. 수도건설에 목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구. 전 그들에게 그걸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

나는 자신의 눈에서 불기둥이 뻗어나가는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러구 요즘 불같은 세월에... 요즘이야, 하루쯤이야 하며 서로 눈감아주는 사이 나라일이 손해볼걸 생각하면... 글썽 저 혼자 중뿔나게 그런다구 웃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참모장동지, 참모장동지가 그렇게 살적에 우리 돌격대일이 얼마나 잘된줄 압니까. 참모장동지는 얼마나 훌륭했구! 정말 인간다웠습니다. 저도 별로 그렇게 살아오진 못했지만 이 가슴에 언제나 공지가 차넘쳤습니다. 저도 참된삶을 산다는 자랑이 파도쳤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든 이 공진 못차버립니다. 이 자랑은 못버립니다!》

정우는 머리를 들지 않고 웨쳤으나 나는 그의 눈물을 력력히 보았다. 그 눈물은 그의 어조속에도 젖어있었고 꼭 당겨신은 로동화우에도 떨어져있었다.

그와 더 맞설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씩베듯 말했다.

《중소. 지시표를 떼줄테니 어서 목재를 싣고 떠나도록 하오!》

나는 서둘러 지시표를 떼후 어서 나가라는 뜻으로 문가쪽으로 내밀었다.

정우는 별수 없이 일어나 그것을 받아들고 말못다한 아쉬움을 온몸에 담은채 문가로 향했다.

《잠깐》

입을 벌린것은 나였다. 그만 믿고서 속을 다 털어놓은것이 알찌근하고 깨름했던것이다.

《나에 대해 너무 실망할건 없을것 같소. 모든건 동물 생각해서 한 소리였구... 또 내가 여기 와있는것도 평감이 다 됐길래 와있는게 아닌게구.》

나는 무엇때문에 이 말을 했던지 얼굴이 화끈해움을 느끼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순간에 사회와 집단을 위해 목숨을 내뿜 일이 생긴다면 나는 서슴없이 뛰여들 각오가 되어있네!》

《저도 믿습니다.》

정우는 진정으로 기쁜듯 활짝 웃으며 성큼 문쪽으로 향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동안 청동으로 주조한듯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었다. 어린 사람의 손아귀에 온 가슴이 아주 다 틀어잡힌듯한 생각...

그리고 상한 자존심은 살맞은 맹수마냥 흉곽밑에서 거칠게 뛰놀았다.

창밖에서도 내 마음을 담아서인지 더 한층 소란스럽게 들볶아대고있었다.

무엇보다 분한것은 정우의 말을 하나도 부인할수 없는것이였다. 더우기 기가 찬것은 철부지로 우습게 알았던 그 운전사한테서 내가 이제 지금껏 것처럼 알아내고싶던 인생살이의 요인-인생착오점을 찾을것 같은 예감이였다.

그것은 정말로 모욕감이 뱀굽이마다에서 꿈틀거리는 일이였다.

그렇지만 사색은 줄곧 그것으로 타래못처럼 파고드는것을 어찌는수없었다.

정녕 그것인가? 내가 한때 주장했고 오늘에 와선 정우가 주장하고있는 그것에 인생을 후회없이 살게하는 운명의 미더운 노가 있단말인가? 나는 바닥없이 깊어지는 상념에 잠겨 지금 밖에서 비가 얼마나 내리고있는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조금도 느끼지 못하며 앉아있었다.

### 3

경비원아바이가 문을 벌럭 열어제끼며 그 어떤 참혹한 재난을 예상케 하는 목소리로 웨쳤을 때에야 나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큰물이 났습니다.》

나는 처음 불이 났다는 소리로 잘못 들었다.

기슭쪽에 위치한 이곳에 물이 날리가 없기때문이었다.

그러나 경비원아바이가 숨가쁜 소리로 지금 금단이네 목장, 식료공장, 장공장, 버섯공장, 창고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됐다고 안타까이 웨쳤을 때에야 현실적인 긴박감에 떠밀리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정말로 부업기지가 자리잡은 골안은 이미 큰물에 잠겨 호수를 이루고있었다.

그만 저드랑이에 끼운 밤송이같은 정우때문에 모든것을 잊고있는 사이 무더기비가 내린것이 분명했다.

나는 언제 부업기지쪽으로 달려내려왔는지 의식하지 못하였다.

번개는 여전히 시퍼런 칼날로 하늘을 몽청 잘라내던지고 잘리워나간 거기서는 심술쟁이가 함지박으로 물을 내깔리는것 같은 큰비가 쏟아져내리고있었다.

그 비를 받아안은 모든 산발들은 고스란히 이골안으로 그 물을 흘려 보내는데 그 물량은 실로 무시무시할만큼 굉장했다.

벌써 물에 잠긴 집집승우리들에서는 돼지며 계사니들이 악청을 질러대고 장공장쪽에서는 간장탕크에 물이 들어간다고 너인들이 아우성을 쳐댔다.

그래도 매사에 손끝이 여물고 앞망진 금단이는 새끼염소라도 몇마리 전져보겠다고 물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달리며 너인들에게 뭐라 야무진 소리로 지시를 주고있다.

나는 점점 더 절박감에 떠밀리며 금단을 향해 웨쳐물었다.

《도대체 이 골안이 왜 물에 잠기는거요. 왜?》

금단이는 거의 울음조에 가까운 어조로 대답했다.

《뚝을 쌓았던 흙가마니들이 밀려내려가면서 큰 길밑의 수로관을 막은것 같아요. 아, 그 가마니들을 치워야 물이 빠질텐데...》

(아, 그것이 중시...)

나는 뒤통수에 둔한 타격과 같은것을 느끼면서 입을 크게 벌리였다.

아까 가마니뚝을 쌓는것을 말려야 했을뿐만 아니라 통나무말뚝 박는 공사를 직접 지휘했어야 했다는 후회막급한 생각이 심장을 거머쥐고 아프게 비틀었다.

아, 어째서 나의 요즘 생활에선 이리도 허점이 많으며 번민을 통구리로 걷어안는것인가.

나는 큰길쪽을 원망스레 내려다보며 꺼지는듯한 한숨을 내고었다.

골짜기를 가로 메우며 지나간 큰길은 우뚝 높기도 했다.

결국 그 큰길은 지금 수로구멍이 메는 바람에 재난의 제방쪽으로 되고만것이였다.

이미 바다같은 깊이로 물이 잠겼으니 그 수로구멍을 찾는다는것도 불가능할것 이었다.

꼭짜 못하고 모든걸 다 물에 잠그게 됐다고 한숨을 내쉴으며 섰는데 문득 금단의 웨침소리가 나의 귀전을 날카롭게 울리며 들려왔다.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다는것인지 그때에는 인차 알수가 없었다. 더구나 아직도 나의 머리속으로는 광란하는 자연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섰는 자신에 대한 불만과 오늘은 어째서 나한테 이런 실수와 후회, 참패로 얼룩지는 일들만 불거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흘러가고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뒤미처 어서 돌아오라는 금단의 웨침소리가 들리고 거기 비탈이 뽕얇게 드리운 《제방쪽》쪽에서 걱정 말라고 응답하는 귀익은 사나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을적에야 목재를 실은 자동차를 몰고 내려오던 정우가 막힌 그 수로구멍을 열어놓으려고 헤엄쳐가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뚜렷해졌다.

(아니 저 친구가 어찌자구?)

나는 정우가 시도하는 일의 위험성이 피부로 느껴져 한순간 전신했다.

수로구멍에 막힌 가마니들을 치워놓는 순간에 물은 수만톤의 압력으로 사람을 마치 포신강을 통과하는 포알처럼 무자비하게 밀어낼것이기때문이었다.

나는 그를 어서 불들어야겠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것을 느끼면서 힘을 다해 웨쳤다.

《서라 서! 위험하단말이요!》

정우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헤염만 더 바빠 치고있었다.

나는 물을 차며 앞으로 내달다가 서버렸다.

이제 아무리 바빠 따라간다 해도 그를 불들수없다는 생각이 뇌리를 치기때문이었다.

정우는 잠시 선헤염을 치더니 이윽고 자맥질하여 물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머리에서 흘러내린 물이 눈에 흘러들어 앞을 가려보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으나 눈 한번 깜빡 않고 그쪽을 바라봤다.

불쑥 정우의 머리가 다시 나타났다.

가마니들은 빠지지 않고 숨은 막혀오니 올라온 모양이었다.

잠시후 정우의 모습은 다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온몸에 바짝 당긴 활시위와 같은 긴장이 살아오름을 느끼며 서있었다.

잠시후...온 우주의 소음이 이 끝안에 다 밀려들었는가싶던 소란스러운 소리들을 대번에 짓눌러버리며 어떤 폭음과 같은 소리가 터져오르더니 이윽고 수로 아래쪽구멍으로 거대한 물줄기가 허영계 뻗어나가는것이 보였다.

《정우!》

나는 웨쳐부르며 둔덕쪽으로 올라 밑으로 내닫기 시작했다.

나는 달리면서 시내가에 섰던 팔목만큼이나 굵은 쇠스레나무가 드센 물살에 풀대처럼 쉬 눕는것을 보았으며 돌돌 굴러가는 가마니 짝들 사이에서 어리친 물고기마냥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면서 떠내려가는 정우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몸부림하며 황소를듯했다.

《정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나보다 앞서 구울듯 달려가는 금단의 모습을 보면서 일은 큰 울음으로 이어질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행이라는것이 접어들기 저어하며 피해가는것인지도 몰랐다.

정우는 병원에서 한시간쯤 지나 깨어났으며 다친데도 크게 없고 그저 이마와 턱쪽에 상처를 입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뇌타박이라도 받지 않았겠는가 하여 몇시간 더 안정시키기로 했다.

나는 물이 찌고 모든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골안 정경을 한참 둘러보다가 좁전에 있었던 재난을 어째서 내가 아니라 정우가 타개했을까 하고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며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오며 내가 이제 정우를 만난다는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몇적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새삼스러워졌다.

그런데 마침 그의 입원실안에서는 금단의 목소리가 울려나오는것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건설자재부터 신고가는것이 것처럼 옳고 훌륭한것이라면야 그것이 어떻게 정우동무의 량심으로만 되겠나요. 지도원동지의 량심으로도 될거예요.》

《나도 믿소. 그래서 버릇없이 몇마디 했던건데...음》

신음비슷한 정우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는것이어서 나는 자리를 뜰수가 없었다.

난 요즘 자주...메뚜긴 철을 따라 색깔을 변하지만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군하오. 훌륭한사람들이 일시 어려운 환경이 좀 조성되었다 해서 하루쫘이야 이틀쫘이야 하며 내것부터 찾는단말이요.

하루 그러다 만다던 사람들이 인젠 아주 버릇이 불어 허구한 날 제 목숨만 돌보자 들구 나라가 큰 손실을 입겠는데도 오불관연이란말이요. 그러면서 비위 좋게 서로 리해하자고 하오. 아, 정말 그런 철면피한 인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는것 같소.》



헐헐 단숨을 몰아쉬며 내뿜는 정우의 말을 듣고  
섰자니 온몸이 그대로 모닥불속에 드는것만 같았다.  
나는 급히 밖으로 나와 다시 물쩍 꼴안을 굽어보  
며 서있었다.

소란을 피우던 산촌도 이제야 리성을 찾고 멋적  
어하며 생각에 잠겨 있는듯하였다.

어쩐지 내가 할 소리를 정우가 했다는 생각...모  
든것을 그에게 뺏긴것만 같은 느낌... 그리고 나의  
인생착오의 비밀마저도 그가 짱그리 다 쥐고있다는  
믿음...

놀랍고 분했다. 보따리를 바꿔메도 이렇게 바꿔  
멜수가?

그러나 내 스스로 저어온 치욕의 기슭인데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며 원망한단말인가.

나는 아까와 달리 속히 정우를 만나고싶은 생각  
이 불일듯하는것을 느꼈다.

이 수치와 모욕감 비슷한것을 털어버리기전에는  
잠시도 서있을수가 없었기때문이었다.

나는 구름같은 술많은 머리칼을 날리며 장공장쪽  
으로 달려가는 금단의 모습이 보이자 급히 병원으  
로 발길을 돌렸다.

나는 신의를 저바린 나에 대한 정우의 절규부터  
듣게 되리라고 생각하며 입원실에 들어섰으나 그가  
하는 소리는 너무도 달랐다.

《아, 떠나십니까? 떠나겠습니까.》

《아, 떠나다니...아직 시간이 많은데.》

나는 정우를 앉히며 계속했다.

《이번에 거 수고 많았소. 나도 생각이 더 많아지  
누만.》

나는 두볼로 불벌레가 기여가는것만 같은감을 느  
끼며 어쭙게 웃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런 부끄러운 생각은 참기로  
하고 보다 높은것을 지향하며 급히 들어왔으니만큼  
인차 낮빛을 고치고 그의 손까지 스스럼없이 짚수  
있었다.

내가 그의 맑고 부리부리한 눈을 곧추 들여다보  
며 동무는 오늘 어떻게 되어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는가고 막 물으려는 때였다.

간호원이 벌떡 문을 열고 들어서며 제잡담 떠들  
어댔다.

《아침, 운전사동무. 수첩은 말리웠지만 물에 글  
자들이 피었으니 말리나 마나예요.》

정우는 후닥닥 일어나 간호원이 들고 들어온 수  
첩을 뺏듯했다. 그리고는 바빠 몇갈피 번지더니 다  
행이란듯안도의 숨을 내쉬며 정히 손다리미질을 두  
어번 했다.

그의 행동을 주시하던 간호원이 재미있다는듯 깔  
깔 웃으며 다시금 입을 벌렸다.

《호, 그 글만 있으면 되는게군요. 하긴 저도 그  
글을 읽고는 가슴이 뜨끈했어요. -하루하루 최후의

날처럼 살리! 철도건설장에서 참모장 석호와 전사  
정우가 다진 맹세-》

《!》

나는 다시금 둔탁한것으로 뒤통수를 얻어맞는감  
이었다.

간호원은 여전히 감심되어 떠돌고있었다.

《참 좋은 글이에요. 최후의 날 허를 끊던 마동희  
투사동지의 정신이 비껴있는것 같구, 불뽕는 적의  
화구로 달려가던 리수복영웅의 마지막숨결이 살아  
있는것 같아요. 결국 정우동지도 오늘 그래서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단행...》

《아 됐소, 됐소. 어서 나가 제일이나 보우.》

그러니 간호원은 시작한 말을 기어코 끝내려는듯  
두눈에 꿈같이 그윽한것마저 실고 계속했다.

《금단언니가 왜 동무를 그처럼 못잊어하는지 오  
늘 똑똑히 알수 있었다니까요. 호...물론 거기 적혀  
있는 참모장 석호라는 동지도 어느 처녀의 마음을  
꼭 그러쥐구 평양이 들썩하게 위훈을 세우고있겠지  
요? 호...》

《그럼, 그렇지 않구. 동문 이미 늦었소.》

정우는 처녀를 내몰듯하며 말했다.

나는 그들의 뒤를 뿌연게 흐려오는 눈으로 바라  
보며 속으로 대답했다.

《아니요. 처녀동무, 그 사람은 변했소. 말공부쟁  
이가 돼버렸소. 그 좋은 신념마저 뺏기구, 닝마같은  
인생을 살고있소.》

나는 어쩐지 정우만이 아니라 천하가 다 나를 지  
켜 보고있는 가운데 자기를 돌이켜보고있다고 확신  
하며 계속 생각했다.

정우에게 있어서 그 글은 가슴속깊이 간직된 구  
슬이여서 녹이 썬지 않았다.

오늘은 그의 심장을 타고 뛰는 매 방울의 피마다  
에도 살아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날들을 하루처럼 살아 온생  
이 빛나는 영원을 얻었고 나는 모든 날들을 모든  
날대로 살아 온생을 두고 그 어느 똑똑한 하루도  
얻지 못하였다.

뒤전으로 밀려나 늙은이 취급만 받았다.

생활이 나를 버리고 장달음해 달아났고 허접쓰레  
기같은 번민과 후회와 치욕만이 남았다.

일생일대실수였다. 그것이 바로 인생착오였다.

어서 그 좌우명, 소중한 내 운명의 노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 값높은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그 미더  
운 운명의 노는 위낙 내것이였다. 어서 때묻지 않은  
그대로이던 어제날로 돌아가자. 자랑찬 대오에 들  
어서자!

나는 걸음들을 헤치고 나오는 봄풀싸같은것을 가  
슴속에 의식하며 기쁨과 신심에 넘쳐 웨치고 또 웨  
치였다.

-1 만세대건설장에서-



## 흰머리수건

김동직

우중중한 산봉우리들이 키돋움하듯 멀리로 뻗어간 평안남도과 강원도의 접경지대이다. 병풍처럼 둘러서있는 련봉들이며 골안을 따라흐르는 내물에선 봄별이 자글자글했다. 한낮이 되어 끌어귀로 뻗어간 도로상에 전선으로 달리는 자동차대렬이 나타났다. 차창들이 햇빛에 번쩍이었다. 그 대렬속에서 포탄을 가득 실은 자동차 한대가 달구지길로 갈라지는 길어귀에 멎었다. 운전칸에서 보통키의 젊은 군관이 흘쭉한 배낭과 전투가방을 손에 쥐고 내렸다. 얼굴이 갱끗한 이 젊은 군관은 단기 군관강습소를 마치고 전선동부의 어느 한 근위사단에 배치되어가는 소위 엄호석이다.

자동차는 그가 내리자 곧 떠났다.

호석은 자동차를 얻어탈 때만 해도 도중에서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앞길에 놓인 다리가 파괴되어 배나무풀이 있는 이쪽으로 에돌아 통과하게 되었다.

배나무풀은 엄호석의 고향마을이다. 그곳에는 아버지과 형수, 조카가 있다.

호석은 들러가기로 결심하였다. 하루 앞당겨 배치된 부대로 떠났기에 시간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문득 형수가 누구보다 먼저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3년전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대에 남먼저 탄원하여 전선으로 나가던 형님은 호석에게 식구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엄한 부탁을 남기였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연약한 형수에게 남기고 호석은 전선으로 《도망》쳤었다.

아마도 그 자책때문이었는지-

달구지길을 따라 고개로 올라가느라 두 늙은이가 서로 부축해있는 듯한 큰 로송 두그루가 서있다. 일어섯살나던 그때에 전선으로 도망치던 일이 생각났다. 전쟁이 일어나기전까지 호석은 군소재지에 있는 고모네 집에 가서 중학교를 다녔다.

전쟁이 터지자 그는 집으로 급히 달려왔다.

군에서 열령퐁땅 군대에 나가려다 나이가 어리다고 퇴박을 받았지만 집에 온것은 따로 속궁리가 있었던 것이다. 호석은 전선으로 달아날 준비를 남모르게 끝내자 《인민군대에 나갑니다. 남자들이 가 있어야 할데는 전선이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쪽지편지 한장을 남겨놓고 밤중에 앞에 보이는 고개를 넘어왔다. 그때엔 두그루의 로송이 푸릇한 달빛아래서 근심스럽게 내려다보며 바래워주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앞가슴에 락장을 세개나

달고 어깨에 별을 박은 림름한 군관을 두팔 벌려어서 오라 반기는듯했다. 두그루의 로송을 지나고 개마루에 올라서면 그아래에 고향 마을이 내려다보인다. 그는 단숨에 고개마루에 올라섰다.

선들바람이 땀에 젖은 그의 얼굴을 스쳐갔다. 봄별은 여전히 따뜻했고 어데선가 두엄냄새가 풍겨오는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일뿐이었다.

뜻밖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던 것이다. 환희의 기쁨에 가득찼던 그의 두눈이 삽시에 굳어졌다.

50 여호 잘되던 크고작은 집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자리들엔 꺼멓게 그슬린 벽체와 타다 남은 굴뚝들만 보였다. 사람들이 사는것 같지 않았다. 그는 소스라치듯 몸을 떨었다. 그리고 불에 덴것처럼 후닥닥 마을로 달려내려갔다. 미국놈들의 폭격이 이런 외진 마을에까지 뻗치리라고 그는 생각지 못했다.

발밑에서 무엇인가 뿌적거리며 으깨여졌다. 불탄 구유들이며 타다 남은 서까래토막들... 그전에는 집집마다 박넙쿨이 지붕우를 뒤덮고 외양간에서는 누렁황소가 새김질하면서 두릿두릿 뉘를 내다보곤했었다. 마당에서는 불길처럼 타는 뉘를 머리우에 인저만한 수탉이 암탉과 노랑고 까만 병아리들을 거느리고 틀지게 거닐던곳이었다.

3년동안 전화속에서도 잊지 않던 고향마을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겨운 모습을 찾아볼수 없다. 발밑에 깨어진 물동이가 눈에 띄었다. 가슴이 섬찟하였다. 형수가 쓰던 물동이가 분명했다. 눈앞이 뿌예지고 독한 연기를 삼켰을 때처럼 목구멍이 갈칼해지는것을 느꼈다.

형님이 전선으로 떠나기 전날밤이었다.

그날밤 옷방에서는 형수의 억눌린 흐느낌소리만 간간이 들려왔었다.

남들이 들을가보아 울음을 삼킬 때는 작아졌다

가도 또 걸잡지 못하고 커지곤하였다.

호석은 속이 언짢았다. 본래부터 형수를 별로 탐탐하게 여기지 않던 그였다. 거의 무맥하다 할 정도로 유순하고 겁이 많은 형수, 하얀 살결에 몸이 호리호리하고 손발이 작은 약한 체질이였다.

발일 같은데는 익숙치 못해서 천상가야 부엌에서 동자질이나 하고 집거둑과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의 그늘밑에서 살아갈 녀자였다. 이런 형수가 우락부락하고 찍하면 투정질로 었다가는 호석이로서는 마음싸할리 없었다.

더구나 장가가기전엔 형님이 자기를 끔찍이 생각해주었는데 장가간 다음엔 형수에게 모든 정을 돌

리는것 같아 화로불처럼 잘 달아오르는 호석이로서는 뻔이 났다. 형수의 무엇이 형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어린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할수 없었다. 그때 마을에서 형님이 인물꼭고 얹힌한 처녀를 군소 재지인 읍에서 데려왔다고 부러워하고 칭찬하면 호석은 돌아서서 코방귀를 뀌곤했었다.

형수는 호석을 은근히 어려워했다. 아마도 자기를 따르지 않게 보는 시동생의 눈길에서 추위를 타군한것이였는지. 그런데 전선으로 나가는 형님을 붙들고 눈물을 쥐어짜고있었으니 그의 심사가 어찌 뒤틀리지 않겠는가. 그날 호석은 아래방에 있다가 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흥, 우리 집에 초상이 났나?》하고 한마디 내뽐고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때 울음소리가 똑 그치던것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된다. 그 억눌린 울음소리가 지금의 불행이 닥치리라 미리 예감하고 그랬던것이 아니었던지- 그러니 이젠 집식구들의 운명도 고향마을의 존재도 이것으로 끝장이란말인가?

눈앞에 펼쳐진 고향마을이 자기의 생명체를 모두 상실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뭔가 죽지 않고 살아 숨쉬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호석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방은 정적속에 잠겨있었다. 내가 착각했는가?- 호석은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역시 조용하다. 그러던 그는 살아숨쉬는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였다. 그것은 마당에 서있는 배나무들이었다. 배나무들은 자기의 힘찬 생명력을 시위하는듯 하얀 배꽃을 구름처럼 떠이고 서있었다.

가느다란 줄기의 긴 꽃꼭지끝에 부채살모양으로 겨우 몇송이의 꽃망울을 터치고있는 어린 나무는 조카가 태어났을 때 형님이 어린 나무모를 가져다심고 형수가 정성껏 가꾸던것이다. 아버지는 이것을 대견하게 보면서 우리 집안에 손자가 태어나서 배나무가 또 늘었다고 기뻐하였다. 그 나무는 호석이 전선으로 갈 때만 해도 꽃이 피지 않은 애어린것이였다. 허나 지금은 싱싱하게 자기의 존재를 뚜렷이 나타내고있었다. 누군가 배나무들을 돌보고있는것이 분명했다. 그러자 그것을 증명하듯 봄바람을 타고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흠칫 몸을 떨었다. 그리고 말뚝처럼 박혀선채 가슴을 조이며 귀를 강구었다.

민주의 새봄에 만풍년 불려불려  
장군님 은덕에 천만년 보답하세

그것은 녀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였다.

호석은 급히 그쪽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마을끝에 나서자 저 멀리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넓은밭이 펼쳐졌다. 거기서는 하나같이 흰 머리수건을 쓰고 위장을 한 녀인들이 일하고있었다.

보탑을 잡고 발갸이를 하는 사람도 녀인이였다. 치마허리를 가튼히 동이고 채찍을 든 그 보잡이녀인은 육중한 보탑을 어떻게나 숨쉴있게 잘 다루는지 조금도 힘들어하는것 같지 않았다. 고향마을에서 전에는 전혀 볼수 없었던 광경이였다.

그러니 고향마을은 숨쉬고있었다. 이때였다. 어데선가 《땅!》 한방의 총성이 울렸다. 공습정보를 알리는 총소리같았다. 호석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급강하하는 적 《썩썩기》의 스산한 동체가 머리우를 낮추 날아지나면서 앙칼진 쇠소리를 울린것은 거의 동시의 일이었다. 뒤이어 기총소사의 《따다다다!》 하는 소리와 함께 폭음이 둔덕넘어에서 일어났다. 호석은 녀인들이 비행기의 목표로 되었다는것을 깨달았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는 급히 몸을 일으켜 앞을 내다보았다. 녀인들이 발가운데서 짝 흩어져가는것이 보였다. 폭탄이 터지면서 흠기둥이 일어났다. 평화롭던 일터는 온통 수라장이 되였다. 발머리에 있던 종자가마니가 찢어져 나뒹굴었다. 고향소리가 울려왔다.

녀인들의 황급한 《소- 소가 달아난다-》, 《위험해, 대피하라!》 하는 부르짖음이 《따다다다!》 하는 기총사격소리와 《땅!》 하는 폭음에 삼키웠다. 놀라서 미친듯이 뛰는 육중한 황소의 뒤를 쫓아세 녀인이 발가운데로 달려가는것이 보였다.

그들의 머리우로 《썩썩기》가 병아리를 덮치는 술개처럼 날아들었다. 호석이의 입에서 《저런!》 하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무자비한 기총탄의 불줄기가 그들을 향해 날아갔다. 뒤에서 따라가던 두녀인이 발이랑에 었디였다. 몸집이 호리호리한 앞선 녀인만은 머리에서 흘러내린 흰 머리수건을 한손에 걸어진채 황소를 뒤쫓았다. 발갸이를 하던 보잡이녀인같았다. 놀란 소는 폭탄이 떨어질 때마다 갈팡질팡하면서 발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했다. 생명을 내내고 소를 구원하려는 녀인의 행동은 필사적이였다.

건너편 술밭에서 《엄마!-》 하는 제지는듯한 어린 아이의 부름소리가 들렸다. 호석은 심장이 옥죄이는것을 느꼈다. 그들을 구원하러 달려가기엔 거리가 너무 멀었다. 허지만 더 보고만있을수 없었다. 저러다가는 사람도 소도 다 결단날건 뻔했다. 그는 뛰쳐일어났다. 그때 녀인이 소고삐를 붙잡는것이 보였다. 뒤떨어졌던 두녀인 뒤따라와 여기에 합세하였다. 어느새 그들은 황소를 몰고 술밭속으로 사라졌다. 호석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목표물을 놓친 《썩썩기》는 헛물을 켜고 남쪽으로 날아가버렸다.

자욱히 서렸던 포연이 서서히 흩어져가기 시작하였다. 주위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호석은 대피했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군복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고 뒹구는 배낭과 전투가방을 집어들었다.

정적을 깨뜨리며 왁작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인들이 황소를 앞세우고 다시 밭으로 나오고 있었다. 밭에 들어선 그들은 종전에 아무일도 없었던 듯 쟁기에 소를 메우고 일을 시작하였다.

밭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린 후 흙을 부지런히 묻어나갔다. 너인들의 일손씨는 겉싸고 빨랐다. 그동안에 하지 못한 일을 봉창하려는 것 같았다. 이어 노래를 부르는 소리까지 들렸다.

호석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너인들만 집단적으로 밭에서 일하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자기 기억에는 봄과 종때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에게 함지에 음식을 이고 밭머리에 나와 점심을 푸짐하게 대접하던 너인들의 모습만 있었다.

호석은 그들을 만나려 밭으로 밭걸음을 옮겼다.

보잡이 너인이 밭을 갈며 마주오고 있었다. 가까이 가면서 보니 낮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수와 비슷했던 것이다. 그러나 호석은 머리를 저었다.

《형수가 밭을 갈다니-》 어림도 없었던 것이다.

너인이 점점 가까와졌다.

호석은 멈칫 섰다. 그 너인도 마주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형수!》

호석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형수가 분명했던 것이다.

《적은이!》

형수도 거의 동시에 소리쳤다. 그리고 손에 들었던 채찍을 던지고 허둥지둥 달려왔다.

《적은이가 살아있었군요. 그런데도 아부님은...》

두 눈에 기쁨의 눈물이 가득 고인 형수는 머리를 돌렸다. 호석은 자기앞에 서있는 너인이 형수가 옳은가를 다시 보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방금전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의 주인공이 과연 형수란 말인가? 그렇게 담차던 너인이-

일하던 너인들이 두사람의 상봉을 보자 손에 들었던 삼태기며 쟁이를 집어던지고 달려왔다. 너인들은 몰라보게 성장한 호석이를 둘러싸고 떠들썩했다. 이게 그렇게도 마을에서 감때사납고 세차던 억삼로인네 둘째가 정말 맞는가고.

호석은 의젓하게 너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가 낮익은 얼굴들이었다. 문득 일곱살쯤 되어보이는 어린 사내애가 눈에 띄었다.

《네가 진호구나.》

그는 급히 어린 사내애에게 허리를 굽혔다.

형수가 서둘러 한 너인에게 말했다.

《애숙이 엄마- 난 적은이와 함께 아부님께 갔다와야겠어요.》

《어서 들어가리구. 여기 걱정은 말구.》

다른 너인들도 저마다 들어가라고 한마디씩 했다. 호석은 형수를 따라 마을이 새로 자리잡은 술개골로 갔다. 굵인돌이를 돌아 끌어귀에 들어서니 반토

굴집이 주런이 보였다. 첫번째 반토굴의 집기둥에는 네모반듯한 나무문패가 붙어있었다.

거기에는 뚜렷한 먹뭉쳐로 《엄호운》이라고 형님의 이름이 써있었다. 어린 진호가 자그마한 마당을 지나 달려 들어가면서 소리쳤다.

《할아버지-삼촌이 왔어요.》

호석은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자그마한 삼작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버지는 여위고 뼈마디가 툭툭 튀어나온 두손으로 아들의 굵고 억센 손목을 덥석 잡고 놓을 줄 몰랐다. 아버지는 그동안 몰라보게 변했다. 호석은 가슴이 찢르르했다.

《아버지, 제가 승낙없이 전선으로 도망쳐서 그동안 옥 많이 했지요?》

《이 녀석, 그거야 더 말해 뭘하겠느냐. 이제 한시름 놓인다. 장하다. 그러니 너희 형제가 다 군관이 되었구나.》

호석이 다우쳐 물었다.

《형님도 군관이에요?》

《그럼, 군사부중대장인가 한다더라. 바로 한달전에 편지가 왔다. 그때는 내가 앓고 있을 때였다. 네 형수가 애써 병구완을 했지만 좀처럼 차도가 없었다. 전선에 나간 너희들 생각을 하면서 보고싶더구나. 늙은이의 주책머리없는 생각이었지. 그런데 네 형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았잖나. 얼마나 반가운지...》

아버지는 숨을 돌리느라고 잠시 말을 중단했다.

《편지에 쓰기를 미국놈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며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네 형수에게는 연약한 몸으로 고생이 많겠지만 이웃들의 방조를 받아서라도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묵여서는 안된다고 농사적정을 했더라. 나는 그때 자기도 모르게 허허 웃었다. 네 형수가 작년봄부터 집의 땅만이 아니라 마을의 모든 땅을 갈아엎는 이름난 녀성보잡이가 되어 소문난 것을 모르기때문이라고. 그래 네 형이 앞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 호운아, 여기 걱정은 말아라. 진호애미가 너를 대신하여 이 땅을 훌륭하게 지키고있다. 그저 너희들은 미국놈만 이겨라. 어떻게 하든 꼭 이겨야 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편지를 읽던 네 형수는 그만 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더라. 아마도 그동안에 고생하면서 농사를 짓던 일이 생각나서 그랬겠지. 나는 편지가 온 다음부터 속이 후련해지고 힘이 생겨 병을 털고 일어났다. 지금은 바깥출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네 형의 편지가 나에게 힘을 준 셈이었다.》

아버지는 낮은 책상의 서랍을 열더니 거기서 편지를 찾아내었다.

《옛다, 이게 네 형이 보낸 편지다.》

굵직굵직한 형님의 낮익은 글씨가 눈앞에 안겨왔다. 봉투의 주소를 보자 그는 환성을 올렸다. 자기

가 배치되어가는 군위사단의 군사우편함대 호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이 말을 듣자 기뻐했다. 밖에 나갔다 큰 바가지에 배를 가득 담아가지고 들어오던 형수도 이 말을 들었다.

호석은 자기앞에 내려놓은 바가지에 먹음직한 배가 담겨있는것을 보자 놀라서 물었다.

《지금 어느때인데 이런 배가 다 있어요?》

형수가 웃으며 말했다.

《아무때구 이렇게 볼썽 들어설것 같아 움에 깊숙이 건사했던거예요. 자, 어서 들어요. 봄철 묵은 배는 별맛이에요.》

배를 하나씩 들자 호석이가 먼저 한입 베어물었다. 달콤한 즙이 나오면서 독특한 향기를 풍기었다. 흐뭇한 눈길로 배를 먹는 시동생을 보고있던 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적은이, 아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쉬어요. 난 발에 또 나가봐야 하겠어요.》

아버지가 걱정했다.

《숨이나 좀 돌리고 나가려무나. 호석이도 왔는데.》

《아부님, 저- 긴등발을 오늘중으로 파종을 끝내야 돼서.》

형수도 시동생을 두고 나가는것을 딱해하는것 같았다. 형수는 될수록 일을 빨리 끝내고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나갔다. 아버지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뒤따라 일어났다.

《좀 누워서 푹 쉬거라. 나도 좀 나갔다 올테가있다.》

아버지는 베개를 내리워놓고 어린 진호의 손목을 잡더니 밖으로 나갔다.

잠시 방에 누웠던 호석은 인차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땀나무로 실어다놓은듯한 통나무가 마당옆에 가득 쌓여있었다. 가지들만 골라서 때었는지 모두 다루기 힘든 굵고 굳은 참나무들이었다. 그는 부엌에 들어가 도끼를 찾아가지고나왔다. 그전엔 언제 한번 형수를 도와줄 생각을 못하고 도리어 형님이 형수가 힘든 일을 할가봐 앞질러 도와주는것을 볼때면 입만 삐죽거리곤했었다. 그는 힘이 솟구침을 느끼며 도끼밥을 사방에 튕기면서 토막을 냈다. 그리고 그 토막들을 짹짹 갈라 나무를 패니 어느덧 장작더미가 높이 쌓였다.

일을 끝내고 토방에 앉아 이마의 땀을 식힐 때는 날이 저물기 시작하였다.

땀을 식히고난 호석은 동구길로 슬슬 걸어나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쪽 산밑에 보이는 반토굴집들의 낮은 굴뚝들에서 저녁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녀인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해는 봄에 취한 대지를 어루만지면서 느릿느릿 산뒤쪽으로 사라지고있었다.

하늘은 아름다운 노을로 채색되어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어있었다. 잠시후 황금색노을은 어두운

진곤색으로 변했다. 반토굴집들이 완전히 어둠속에 잠아들었다. 다만 적비행기때문에 차광막을 친 문을 여닫을 때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곳에 사람이 살고있는 집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을뿐이었다.

호석은 발머리에 앉아 어둠에 잠기는 발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형님은 여기서 발을 갈고 씨를 뿌렸다. 그리고 어둠이 깃들면 집으로 돌아오곤하였다. 흰 머리수건을 쓰고 행주치마를 단정하게 두른 형수는 대문가에 나와서 형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런데 지금은 형님대신 형수가 발을 갈고있다. 이제 전선에 가서 형수가 육중한 보습을 숨씨있게 다루고있다고 말하면 형님은 아마 처음에는 믿지 않을것이다. 그다음엔 놀랄것이며 기뻐할것이다.

호석이 뜨락에 들어서니 열린 부엌문으로는 김이 꾸역꾸역 나오는데 아궁이에서는 탁탁 소리를 내며 참나무장작이 기세 좋게 타고있었다. 고소한 기름냄새며 음식냄새가 풍기는 부엌에서는 두 녀인이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가지고 음식을 하고있었다. 토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가 청해진 마을로인들이 기다리고있다가 반갑게 맞이했다.

인사가 끝나자 상이 놓이고 음식이 들어왔다. 호석은 산우에 오른 갖가지 음식들을 보고 자기 집만이 아닌 마을사람들의 후더운 인정을 가슴뿌듯이 느꼈다. 식사가 끝난후 로인들의 청으로 전선이야기를 하였다. 밤이 늦어서야 로인들은 돌아갔으나 형수는 그때까지도 오지 않았다.

옷방에 자리를 펴고 누우니 매혹내가 약간 나는 구름노전을 깐 구들바닥이 따뜻하였다.

아버지는 아래방에 앉아 묵묵히 담배를 피우다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것 같으면 귀를 기울이곤 하였다. 멀지 않은데서 밤새우는 소리가 들렸다. 전에는 무심하게 스쳐버리던 밤새우는 소리가 형수를 기다리는 지금 류다른 정취를 자아내며 가슴에 파고들었다. 그는 눈을 감으며 돌아누웠다.

아래방의 벽시계가 《땡! 땡!》 종을 치기 시작하였다. 열개를 치고는 잔뜩 힘을 들여서 마지막한개를 더 때려 열한시를 알렸다. 정적속에서 시계추가 푹푹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눈을 떠보니 아버지는 여전히 묵은 나무등걸처럼 한자세로 앉아있는데 등잔불에 비친 옆모습이 벽에 큰 그림자로 나타났다. 입귀에 물려져있는 담배대통에서 피어오르는 담배연기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구불구불 기어오르고있었다.

호석은 형수가 걱정되었다. 자기가 아는 형수는 이런 밤중엔 문밖에도 나가지 못했던것이다.

호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옷을 입고 군복단추를 채운후 잠자는 어린 진호곁에 놓여있는 군모를 집어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이러다간 형수와 한마디 이야기도 못해보고 전선으로 떠나겠어요. 아버지, 제가 마중가야겠어요.》

아버지는 피우던 담배대통을 낫재털이에 탕탕 털어놓았다.

《그렇지 않아 나도 그 생각이였다. 함께 가자.》

호석은 뺨뚫어진 어린 조카의 베개를 바로잡아주고 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섰다.

밝은 달이 달구지길을 비치고있었다.

달은 흘러가는 구름속에 들어갔다가는 서둘러 얼굴을 내밀곤하였다.

그때마다 길이며 좌우로 펼쳐진 밭과 숲들이 눈앞에 드러났다.

별안간 하늘에서 웅글은 비행기소리가 났다. 비행기는 몸뚱이에 빨간불을 달고 둔중한 소리를 내면서 밤하늘을 가르며 남쪽으로 날아갔다.

얼마를 걸었는지. 강의 여울물소리가 좌~좌-하고 들려왔다. 이어 환한 달빛아래에 사뭇치는 흰 물굽이가 보였다. 봄밤의 찬 물기운이 쉼없이 풍기는 여울물소리는 가슴에 두려움과 같은 아릿한 설렘을 불러일으켰다.

이편 강기슭 언덕의 황철나무숲이 어슴푸레 신기한 그림자를 던지고있었다.

그들은 강가에 이르렀다.

강복판을 보니 물표면이 달빛에 물고기비늘처럼 반짝반짝하는데 그가운데 시커먼 물체가 보였다.

자세히 보니 소달구지와 사람이였다.

《아버지- 웬 달구지와 사람이 강복판에 있군요.》

《그게 네 형수일게다.》

《회의에 간 형수가 달구지를 뺨하러 끌고오겠어요?》

《리에 갔던길에 마을에서 필요한걸 그때마다 날라오군한다. 그래야 공로력을 허비하지 않는다고 네 형수가 말하더라.》

호석은 아버지를 강가에서 기다리게 하고 물에 들어섰다. 봄철이라 하지만 물은 뼈가 저리게 찼다. 다리에 차거운 랭기가 닿자 테를 두르고 조이는듯했다. 어느덧 물은 무릎을 넘어섰다. 물살을 헤치며 가까이 가면서 보니 정말 형수였다.

여울목에 빠진 달구지를 빼내느라고 철버덕거리며 애쓰고있었다.

구름속에서 얼굴을 내민 환한 달빛에 형수의 흰저고리가 젖어붙은 동그란 어깨가 오르내리였다. 호석이가 가까이 가는 기미를 느낀 형수가 고개를 돌렸다.

《누구예요?!》

물살을 헤치며 다가오는 거뒀한 사나이의 형체에 저르기 놀란 기색이다.

《형수, 저예요.》

그제야 시동생을 알아보고 그는 반색을 했다.

혼자서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아 고생하던 그에선 시동생을 만난것이 눈물이 나도록 반가웠다.

《어떻게 여길 왔어요?》

《기다리다 못해 마중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아부님두요? 어데 제셔요?》

호석이가 머리를 강가로 돌리자 형수도 그쪽을 보았다. 어스름한 달빛이 내리비치는 강가의 흰모래를 배경으로 늙은이의 형체가 보였다.

《아부님, 저예요.》

형수가 반가와서 소리쳤다. 여울물소리에 섞여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네가 옳구나. 그래 달구지가 빠졌느냐?》

《예-》

《나도 들어가마.》

아버지가 허리를 굽히는것이 달빛에 보였다. 형수는 다급해서 소리쳤다.

《아부님, 들어오지 마세요. 물이 차서 안돼요.》

형수가 급히 만류하려 나가는것을 호석이가 멈춰세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아버지- 인차 나갈테니 들어오지 마십시오.》

호석은 형수를 돌아보았다.

《앞에서 달구지채를 잡으랴요. 뒤에서 제가 밀테니.》

호석이가 미끈미끈한 바퀴살을 더듬어지자 형수가 고삐를 잡고 멍에에 몸을 실었다.

《이랴!-》

황소는 코김을 내붙고 굵은 목을 내저으며 힘을 썼다. 한참 물속에서 고생해서야 짐을 가득 실은 달구지를 여울목에서 빼낼수 있었다.

강가에 나오자 아버지가 형수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모자라는 종자와 예비농기구를 내준다기에 군창고에 갔댔어요. 여울목에 빠지지만 않았어도...》

형수는 여직껏 고생한것보다 영농물자가 해결된것이 더 기쁜 모양이다.

강물에 흠뻑 젖은 옷에서 줄줄 물이 흐르고 추위에 새파래진 머리를 본 아버지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네가 고생을 하누나.》

아버지는 서둘러 모닥불을 피웠다. 그동안 강가에 널려있는 마른 나무가지들을 모아왔던것이다.

불은 인차 달렸다. 형수는 달구지뒤로 돌아가서 화락하게 젖어 물이 흐르는 치마를 꼭꼭 쥐어짰후 머리수건을 벗고 젖은 머리칼을 매만져 수습했다. 모닥불이 세차게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불가까이로 다가오면서 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행기가 일없을가요?》

《멀지 않아 새벽인데 그놈들도 잠이야 자겠지.》

젖은 옷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안개처럼 피여올랐다. 강웃쪽에 올라갔던 호석은 마른 나무를 한아름

안아다 내려놓았다. 얼마후 그의 젖은 군복에서도 김이 문문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들 세사람의 머리위 하늘에선 달의 후광을 받아 빛나는 구름조각들이 떠있었다. 모닥불은 그 구름들에 더 밝은 빛을 보내려는듯 선명한 빛을 뿜으면서 타올랐다.

이마에 뚫장식을 붙인 황소는 느릿느릿 새김질을 하며 푸른 눈방울을 껌벅이며 형수를 물끄러미 보고있었다. 형수는 정다운 눈길로 황소를 보더니 일어났다. 그리고 그 달구지위에 실려있는 가마니에서 소먹이를 듬뿍 더 쏟아주고 돌아왔다.

형수는 흰 머리수건을 벗었다. 윤기나는 검은머리카락을 뒤로 쓸어넘기자 희고도 아름다운 얼굴이 한결 시원하게 드러났다. 그의 검은 눈동자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 비꼴다. 아름답고 그윽한 두눈은 수심에 잠긴듯한 검고 생각깊은 눈이었다. 그전에 그렇게도 연약하고 유순했던 형수가 분명했으나 지금은 다르게 보이는것은 무엇때문인가 하고 생각했으나 딱히 짚어 말할수 없었다.

다만 그전의 그 형수가 아니라는것만은 명백하였다. 생각에 잠긴 호석을 본 형수가 그를 보면서 다정하게 물었다.

《적은이, 뭘 그렇게 생각해요?》

호석은 생각에서 깨어나며 얼굴을 붉혔다.

《사실 난 형수가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저 황소를 구해낼수 있었는지 지금도 놀랍구만요.》

모닥불에 나무가지를 더 넣으면서 형수는 밝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적은이, 지난해 봄은 우리 마을이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저 귀중한 소를 보내주셨어요.》

호석은 놀라움을 안고 소를 보았다.

(아- 바로 그런 소였구나!)

어느덧 옷이 말라서 떠날 때가 되었다. 그들은 모닥불을 껐다. 불을 끌 때마다 수천의 불티들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암청색 공간으로 잦아들었다.

세사람은 달구지를 물고 집을 향해 떠났다.

형수는 호석이와 나란히 소를 몰았다. 둥근 보름달은 그들이 가는 앞길을 환하게 비치고있었다.

그들은 어느덧 파괴된 옛마을에 들어섰다. 호석은 불현듯 짙은 향기를 느꼈다. 달콤하고 청신한 그 향기는 배꽃향기였다. 소를 가져다매고 집을 부린 다음 집마당에 들어설 때는 밤 두시였다.

진호가 문턱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그들이 오는 것을 보자 달려나왔다.

호석은 아버지와 함께 옷방에 편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잠결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것을 듣고 깨어났다.

호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둥근달이 밝게 마당을 비치고있었다. 그 달은 벌써 한쪽으로 기울어져있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

리고있었다. 호석은 얼른 신발을 신고 마당을 지나서 빗장을 뿜은 다음 대문을 열었다.

열려진 대문밖에는 새 군복에 혼장을 가득 단 형님이 환하게 웃으며 서있었다. 어깨에는 상위의 군사칭호를 달고 너무도 뜻밖이었다.

처음에는 멍청해서 이게 생신인가 꿈인가 하고 두눈을 비비고 보았다.

그런데도 형님은 빙글빙글 웃기만 하였다. 호석은 그제야 형님을 얼싸안으려 달려나갔다. 그러다 문턱에 걸쳐여 앞으로 엎어졌다. 호석은 놀라서 앞을 보았다. 어둠속에서 집천정의 서까래가 울려다 보였다. 그것은 꿈이었다. 옆을 돌아다보니 아버지는 깊은 잠에 폴아떨어져있었다. 호석은 자기가 금방 꿈을 꾸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주위는 쥐죽은듯 고요가 깃들어있었다. 서늘한 바람결을 타고 불타버린 마을쪽에서 실려오는 배꽃향기가 비스듬히 열린 문틈으로 들어왔다. 문결에 있는 닭장에서 병아리가 잠들지 못하고 뻔뻔 울고있었다.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으나 도무지 잠들수가 없었다. 그는 애써 잠을 청하며 돌아누웠다.

이때 불빛이 망막을 통해 들어왔다. 머리를 들어보니 아래방에서 올라오는 등잔불빛이었다.

방등불아래서 형수가 글을 쓰고있었다. 옆에서는 어린 진호가 네활개를 펴고 자고있었다. 복스럽게 생긴 얼굴은 꿈을 꾸는지 환했다. 이마우엔 까만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형수는 아들이 차던진 담요를 당겨 덮어주었다. 그는 어린 아들의 얼굴을 한창 들여다보다가 옷고름을 눈가에 가져갔다. 호석은 얼른 돌아누우며 생각했다 (형수는 형님을 생각하구나. 그래 울면서 편지를 쓰고있구나.)

호석이도 형님의 림름한 모습이 눈앞에 삼삼했다. (형님은 중대장이 되었구나.) 문득 그것이 꿈에서 본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석은 대문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가 해서 귀를 기울이었다. 그러다 지금의 반토굴집에 대문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피식 혼자 웃었다. 아래방의 방등불은 오래동안 꺼지지 않았다. 부엌에서는 무엇때문인지 참나무장작이 아궁에서 활활 타는 소리가 옷방에까지 들려왔다.

호석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날이 환하게 밝아있었다. 병아리들이 문지방에서 뻔뻔 얹지 닭을 찾아 왔다갔다했다. 이불을 개여놓고 문을 여니 마당에서는 아버지가 쪼그리고 앉아 꿰진 삼태기를 손질하고있었다. 나지막한 처마밑에 제비가 침착하게 진흙을 물어다 둥지를 틀고있었다. 호석이가 토방을 내려서는것을 본 아버지는 다심한 눈길로 보면서 말했다.

《좀더 자도 되겠는걸 그러는구나. 네 형순 좀 있어야 들어오겠는데...》

《아니- 또 어데 갔나요?》



《오늘은 저 옷골짜기의 다락발을 제껴야 한다구 했다. 너를 바래워주자면 먼저 작업조직부터 해주고 내려와야겠다구 하더구나.》

《아버지, 형수가 저렇게 몸을 돌보지 않다가 견디어내겠어요?》

《나도 그게 근심이다. 어데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끄떡없구나. 작년봄에 있는 일이다. 한치의 땅도 묵이지 않겠다고 너인들과 함께 가대기를 끌면서 밭에서 고생하던 형수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소를 보내주시자 그 소를 붙들고 올었다. 그런데 소는 생겼지만 밭갈이를 할줄 알아야 어찌지. 우리 늙은이들은 너무 늙어서 마음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루는 리당에 갔다오더니 밭갈이를 배워달라고 하더구나. 그래 펄쩍 뛰었다. 그게 그리 쉬운게 아니라고-》

《그래서요?》

호석은 호기심이 나서 다음말을 재촉하였다.

《그런데 물려서려고 해야 말이지. 자기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는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도리질했다. 너인들치고 제일 연약한게 네 형수인데 자기가 먼저 배워야 한다고 나설 때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너무나 조르거니와 리당위원장도 적극 지지하기에 나는 해보라고는 했다. 그래 보습을 소에 메우는것부터 시작해서 밭가는 방법과 요령을 가르쳐주었다. 그렇지만 말이 쉽지 육중한 보습을 다룬다는것은 결코 험한 일이 아니었다. 밤이면 앓음 소리를 냈지만 아침이면 또 일어나더라. 끝내 네 형수는 이겨냈다. 그래서 선참으로 군에서 소문난 녀성보잡이가 되었다. 마을에서 제일 연약하다던 진호에미가 밭갈이를 능숙하게 하자 못하겠다고 하던 다른 너인들도 자진하여나섰다. 그때부터 네 형수는 다른 사람들의 앞장에 섰으며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 나라에선 봄과종을 성과적으로 끝낸 공로를 헤아려 네 형수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회의때 주석단에 앉곤하였다.》

《그러니 형님은 편지에 쓴것처럼 형수가 발전한 줄 모르고 공연히 걱정만 하고있는셈이군요.》

《허허- 그거야 그럴테지. 호석아, 이제 전선에 가서 네 형을 만나거들랑 단단히 말해줘라. 그전날의 부엌데기가 배나무골당세포위원장사업을 하고 있다고.》

《아니 형수가 정말 당세포위원장이란말예요?》

《그래 그게 믿어지지 않느냐?》

《...》

호석은 얼굴을 붉히며 더 말을 못했다. 이때 골짜기의 굽인돌이로 형수가 집을 향해 바삐 오고있었다. 아버지가 형수를 보자 호석에게 눈을 끔뵈었다. 그 눈길에는 (자 어떠냐. 네 형수가?)하는 자랑스러움이 어려있었다. 가까이 온 형수가 머리에 쓴 흰 머리수건을 벗어 탁탁 털어서 다시 머리에 단정히 쓰더니 말했다.

《어서 방에 들어들가세요. 아침이 늦었는데 인차 차려드리겠어요.》

그리고 부엌에 들어갔다. 형수의 머리수건은 어느새 빨아말려왔는지 눈처럼 희고 산뜻했다.

세수 하고 방에 들어가니 밥상우에는 성의껏 차린 음식이 김을 올리고 있었다.

호석의 앞에는 기름진 닭곰이 놓여있었다.

《아니 이젠 집에 한마리밖에 없는 씨암탉을...》

호석이는 몹시 아까와했다.

《별걱정을 다한다. 네가 전선에 나가 잘 싸우라고 형수가 새벽에 닭곰을 했다.》

부자간이 식사를 하는동안 형수는 도중식사꾸레미와 마을사람들이 가져온 위문품을 배낭에 차곡차곡 가려넣었다. 식사가 끝난후 아버지가 옷방에 올라가더니 일담배뭉음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것도 넣어라. 뭉니뭉니해도 진호애비에겐 담배가 제일이니라. 전사들과 나눠 피우면서 애비가 보낸 고향담배라고 자랑할게다.》

형수는 말없이 엽초뭉음을 받아 정히 싸서 배낭에 넣었다. 이젠 떠날 때가 되었다. 배낭을 머리위에 인 형수가 앞서고 호석은 아버지와 나란히 걸었다. 어느덧 불타서 폐허로 된 마을의 옛 집터앞까지 왔다.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되었다. 형수는 머리에 인 배낭을 내리웠다. 그리고 호석이가 배낭을 지는 것을 도왔다.

《왔다가 하루밤 편히 쉬지도 못했군요.》

《형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도리어 형수를 만나고보니 힘이 생기고 용기를 얻었어요. 형수,너무 무리하지 말라요. 건강해야 일을 많이 하지요. 참, 편지쓰길 주어요.》

형수는 어깨의 배낭끈을 바로 잡아주면서 말했다.

《편지는 배낭에 넣었어요.》

머리우에서 《파르릉!》 우뢰소리가 났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언제 몰려왔는지 먹장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있었다. 구름은 땅우의 색깔을 뒤바꾸었다. 산새들이 급히 숲속으로 날아갔다. 번개가 번쩍했다. 배꽃향기가 질게 풍겼다.

형수는 근심어린 눈길로 하늘을 보며 말했다.

《금방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 굿고 떠나요.》

《봄소나기는 풍년빈데 좀 맞으면 뭐랍니까. 그냥 떠나겠어요. 큰길에 빨리 나가야 전선으로 나가는 차를 인차 잡아탈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 조카에게 허리를 굽혔다.

《진호야, 잘 있어라. 어머니와 할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한다.이제 아버지와 삼촌이 와서 저 배꽃이 핀 옛 집터에 그전보다 더 큰 기와집을 짓고 함께 살자. 알겠느냐?》

진호는 영채도는 눈을 반짝이며 머리를 끄덕이였다.형수는 눈물이 글썽해서 시동생과 어린 아들을 바라보고있었다.

호석은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언덕길에 들어섰다. 고개 우에 올라선 호석은 돌아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아래에 아버지와 형수, 어린 조카가 그대로 서있는 것이 보였다. 이제 헤어지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다시 볼수 없을것이다. 호석이 돌아선것을 보자 형수는 머리에 쓴 흰 머리수건을 벗어 머리로 흔들었다. 그것은 마치 승리하고 어서 돌아오라고 축원하는듯 형수의 머리우에서 휘날리고있었다. 호석은 자기도 모르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나라 녀인들의 깨끗한 마음의 상징인듯한 흰 머리수건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였다. 그리고 군모를 벗어 마주 힘차게 저었다. 호석은 돌아서 고개를 넘었다.

후두둑- 하늘에서 굵은 비방울이 떨어졌다. 뒤이어 좌- 하더니 창대같은 비줄기가 역수로 쏟아졌다. 호석은 두그루의 로송이 서있는 아래로 뛰었다. 로송밑에 들어선 호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소낙비는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시원한 뎡기를 얼굴에 끼얹었다. 비줄기는 급작스레 넓다 퍼붓다가 약해지는가 하면 또다시 굵어지기도 했다.

군복이 눅눅히 젖어들었다. 호석은 배낭의 편지를 생각났다. 급히 배낭을 벗어 아구리를 열었다.

모서리가 약간 젖은 한 편지봉투가 나타났다.

그는 조심히 편지를 꺼냈다. 편지봉투에 《진호 삼촌에게》라고 씌여있었다.

편지는 봉인되어있지 않았다. 호석은 머리를 기웃하며 속지를 꺼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그는 갑자기 머리를 무엇엔가 호되게 맞은것 같았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주위의 모든것이 한순간에 정지된것같았다.

(형님이 전사하다니!-)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머리를 마구 흔들었다. 편지를 든 그의 두손이 부르르 떨렸다. 호석은 억이 막혀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속시원히 울음을 터치자 해도 가슴에 뭔가 큰몽치가 들어앉아 억제하였다. 그는 정신을 수습하고 다시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형님이 전사한것은 작년 2 월말이었어요. 통지서와 함께 전사하기전에 써놓고 미처 보내지 못했던것 같은 그이의 편지도 함께 보내왔어요. 전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아 리당위원회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로 자리에 누워 사흘동안 일어나지 못하면서도 아버님에게는 사실을 말할수 없었어요. 진호삼촌때문에 아버님이 걱정하고있던때 진호아버지까지 잘못되었다는것을 아는 날에는...저는 리당위원장아주버님과 토론하고 승리하는 그때까지만이라도 아버님께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한치도 묵어

서는 안된다고 한 진호 아버지의 부탁을 그이의 마지막 유언으로 받아들였어요. 진호 삼촌, 그러했기에 삼촌이 그전에 알고있던 형수가 아니라 다소 달라진 사람이 될수 있었어요. 때문에 소가 없을 때는 가대기를 끌어서라도 밭을 묵이지 말자고 했고 우리 장군님께서 소를 보내주셨을 때는 보잡이가 되겠다는 용기를 얻을수 있었던거예요. 지난날 우리 녀인들은 전쟁은 남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호 아버지와 삼촌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만 고대했어요. 그러나 진호 아버지의 마지막편지가 저를 정신차리게 했어요.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묵어서는 안된다는 편지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전쟁승리에 이바지할수 있는가 하는것을 가르쳐주었어요. 진호 삼촌, 여기는 넘려하지 말아요. 이젠 우리 녀인들도 자기 할일을 잘 알고있어요.》

형수는 이어 다음과 같이 계속 썼다.

《금년봄에 아버님이 갑자기 쇠약해지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지 못하였어요. 그저 형님과 진호 삼촌의 이름만 찾는데 나는 어쩔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전사통지서와 같이 보내여 온, 차마 내놓지 못하고있던 형님의 편지를 금시 온것으로 내놓았고 그것을 읽어드렸어요. 형님이 싸우던 부대에 진호 삼촌이 배치되어간다고 하니 이제는 더 숨길수 없어 이 편지를 써요. 이제 부대에 가면 늙으신 아버님께 기쁨과 만족만 드릴수 있는 좋은 소식만 보내주길 간절히 부탁해요. 그리고 전선의 전투원들에게 우리 마을 녀인들의 전투적인사를 전해주세요.》

호석은 형수의 편지에서 눈길을 땡수가 없었다.

이어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소낙비는 어느새 푹 멎었다. 무거운 비구름으로 덮였던 하늘이 회색빛공간으로 남았다.

이제 발에 심은 씨앗들은 움이 터 땅결면을 뚫고 힘차게 뽀족뽀족 올라올것이다.

사위는 조용했다. 이따금 나무에 맺힌 비방울이 후드득후드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뿐이다. 그는 어떤 알수 없는 충격으로 다시 고개마루로 단숨에 뛰어올라갔다. 고향마을 배나무곶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봄소나기가 온뒤의 배나무곶은 모든 색깔이 선명하고 진했다. 회색빛 하늘이 놀라운 정도로 새파래지면서 눈부신 해빛이 쏟아져내렸다. 가지마다 하얀 배꽃들이 활짝 핀 배나무들은 따스한 해빛과 맑은 공기속에서 청신한 자태를 뚜렷이 드러내고있었다.

호석에게는 그것이 흰 머리수건을 쓴 형수의 이름답고도 억센 모습으로 보였다. 폐허속에서도 하얀 배꽃이 아름답고 싱싱하게 피어있는 고향마을- 흰 머리수건을 쓴 형수와 마을녀인들이 지키고있는 배나무곶은 눈부신 해빛에 싸여있었다.

## 병사시초

### 처음으로 쓴 시

힘한 산 굽이굽이  
3중대 3소대 3분대도 마지막의  
전호터를 짚었던 이 손을 잡으시고  
이름은... 나이는?  
...고향은 부모님은?...

풀밭에 마주앉아 저택에서 가져오신  
점심식사구역을 먼저 푸시고  
가까이 끄당겨 팔을 끼시고서는  
영원한 기념으로 사진까지 찍어주신  
아아 우리 장군님!

그런데 나는 왜 그때에  
진짜 바른 대답을 못드렸을까...

저의 아버지는 장군님이십니다!  
저의 어머니도 장군님이십니다!  
고향도 모교도 장군님의 품!  
이름은 다만 하나 《장군님의 전사》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이런 대답을 못드렸을까...

이제는 세상에 바랄것이 없고  
두려워할것은 더욱 없어  
온 세상에 대고 크게크게 알린다-  
내 말 들어라  
아군도 적들도 다 들어라  
최고사령관이 이 전사를 아신다!  
**김정일** 장군님이 나도 알고계신다!

### 나의 종합대학

고등중학교를 졸업할적에  
나는 은근히 걱정하였지  
좀 작은편인데  
제일 큰 학교에 붙어낼가

허나 다행하게도  
소원이 성취되어  
나는 조선인민군  
영광의 《대학》에 입학하였지

내 여기서 군사만 배우는가  
주체의 철학, 혁명적군인정신  
건설도 기계도 농학도 예술도  
만능의 전법들을 다 익혀가거니

우리 군대는 혁명의 《종합대학》  
우리 군대는 무엇이냐 으뜸  
보아라 우리 군대 합창단 체육단만이라도  
보라지 우리 실습장 후방기지만이라도

군대가 웃으면 조국이 웃는다  
군대가 노래하면 인민이 따라부른다  
우리가 읊- 하면 적들은 펄쩍  
내가 척- 나서면 세계가 쳐다본다

일당백의 전당  
총을 든 《대학생》  
혁명대학에서 나는 크다!  
**김정일** 군대에 나는 복무한다!

### 조국에 드리는 청원

그대가 아픔을 지니고있는곳에  
나를 부르시라  
그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때에  
나를 부르시라

나는 그대의 아들 그대의 병사  
그대에게 가장 요긴한것을

그대에게 제일로 절박한것을  
내게 말씀하시라 말기시라

생사운명 판가리를 해야 할적에  
나 아닌 그 누가 먼저 나서랴  
오호, 그 싸움! 신성한 그 싸움에  
준비 준비하고 또 준비하나니

그대에게 감히  
도전하는 적은 있을지라도  
살아남는 적이야 있을가보나

조국이며 잊지 말고 결전의 그 마당에  
나를 부르시라 부르시라

## 시련은 첩첩 앞을 막아도

시련은 첩첩 앞을 막는다  
어려운 행군은 이어진다

오늘 우리 대오에  
김혁...차광수...오중흡 7련대가 앞장섰구나  
리수복...강호영...  
50년대 영웅들도 함께 가누나

두눈을 잃고도 내다본 승리  
허를 물어뜯고서도 웨쳐부른 만세  
철창속에 한생, 적진속에 홀로  
하늘에 흩어지고 바다에 잠겨서도  
수령의 영생, 명도자의 안녕 지킨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들

웃으면서 눈감은 자폭영웅들

그대들 이름으로  
불러다오 조국이며 나의 이름도  
수령의 전사, 담의 전사  
**김정일**장군님의 전사이라고!

시련은 첩첩 앞을 막아도  
어려운 행군은 이어지여도  
내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  
장군님 병사는 기어이 기어이  
8.15 그날처럼 7.27의 그날처럼  
천하를 굽어보며 큰 웃음 터치리라

## 자기 문답

오늘 내가 누군가 스스로 묻고는  
당이 펼친 작전도를 다시 본다  
그러면 거기 붉은 화살표끝에  
하나의 작은 점  
그것이 나다

래일 내가 어떨까 생각하고는  
행군길에 남긴 자욱 돌아본다

그러면 거기 부끄러움 없는  
그것이 나다

앞으로 먼 후날  
그때에는 자신에게도 묻지 못하려니  
무궁번영 부강할 내 나라 내 조국  
오직 그의 기억속에만 빛날수 있는 찰라  
그것이 나다

## 뜨거운 8월외 1편

리영근

8월  
해방절을 맞은 환희로 하여  
류다른 감흥을 불러주는 8월  
하늘도 산도 강물도  
흘러가는 시간마저  
뜨겁게 달아올랐구나

삼천리강산이  
수천만 조선민족이  
함께 맞은 해방이 있어도  
갈라져 헤어져  
반세기를 넘어 살았으니

아, 이렇게 우리 민족이  
8월의 하늘아래 모인 날들이  
어찌 뜨겁지 않으랴

소리쳐 부르는 통일  
피흘리며 부르는 통일  
세대를 이어 그리도 간절히  
하나같이 안고산 통일열망이  
저 하늘공간에 가득 차있다

범민족대축전의 이 마당  
허심탄회 마주앉은것처럼

바로 이렇게 민족대단결로  
우리의 통일은 이룩되려니

오, 머리들어 바라보라  
8월의 하늘가에  
삼천리를 비치는 태양  
뜨겁다  
눈부시다  
우리 민족이 손을 잡고

통일을 향해가는 이 길을  
태양이 밝게 비쳐준다

7 천만이 얼싸안을  
그날이 다가온다고  
온 우주공간에 메아리치는  
민족이 마주앉은 이 마당  
우리의 8월은 뜨겁다

## 뜨거운 손길

놓고싶지 않구나  
이렇게 잡은 우리의 손과 손  
그 어떤 인연인가...  
한민족이라는 그 한뜻으로  
함께 모여앉아 울고웃으며  
서로서로 굳게 잡은 손

너의 손길에서  
그대 피의 뜨거움 내 받아안고  
나의 손길에서  
내 심장의 뜨거움 그대 느끼려니  
한번 잡아  
두번 다시 놓지 말자  
뜨겁게 달아오른 이 손

혈맥이 통하는  
한민족이  
말이 통하고 풍습이 통하는  
우리 민족이  
무엇때문에 그 무엇때문에  
헤어져 살아야 하는가

이제는 그리움도 절정  
애타는 간절함도 절정  
하나될 조국을 바라는  
민족의 념원이

강산의 소원이  
통일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때

이렇게 혈맥이 흐르는 손을  
뜨겁게 마주잡고보니  
멀지 않았음을  
정녕 통일이 멀지 않았음을  
톡톡 뛰는 심장으로  
아니 온몸으로 절절히 느껴안나니

더 짙 부여잡는 손과 손  
통일을 불러 높이 흔들던 손  
《통일호》 기관차를 몰던 손  
통일거리를 일떠세운 손...

통일과 그리도 친숙한 손이여서  
잡은 손길따라 흐르는 뜨거운 맥박  
뜨겁게 오고가는 혈육의 정  
마주잡은것은 손이기전에  
심장과 심장의 억센 포옹이다

오, 8월의 하늘아래서  
갈라져 살아온 민족이  
하나된 모습으로 세계앞에 나섰다  
더는 갈라져 헤어져 살지 말자고  
영원히 식지 않을 뜨거운 손을 잡고